



▶ 필자의 가족



▶ 미 팀 선교회가 운영할 당시(1960년대) 관동대학 학생들과 선생들의 40년 만의 재상봉 (2012년 3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 왼쪽부터 필자의 큰형 (김영희), 둘째 형 (김병희), 삼촌 (김인구)



◀ 미시간주립대학교 Global Korea Award 수상자들과 수상식 준비에 수고한 학생들-2007년 10월 중순)



◀ 연세대학교 국제 하계대학 제자들과 함께(2010년 8월 초)



◀ 대만 FwJen대학교 제자들과 함께 (2008년 7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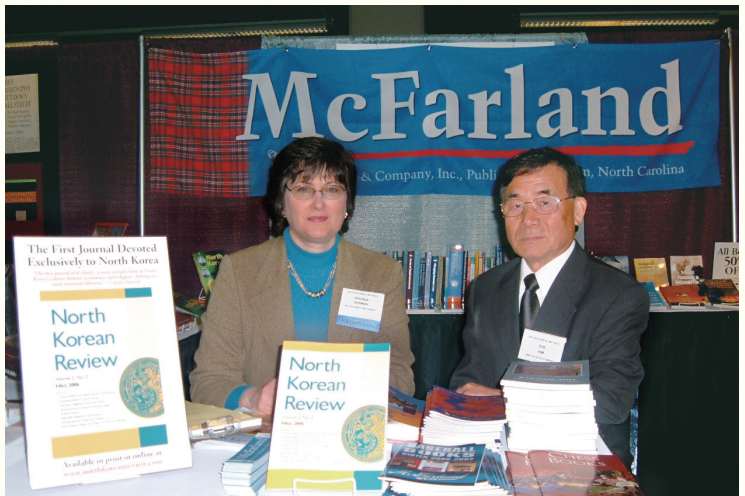
▶ 미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허창수 GS회장 및 그의 일행과 함께(2007년 5월 초)



▶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한국수산개발연구원 연구원들과 함께(2013년 9월 8일)



▶ 필자가 창간한 North Korean Review의 발행인 Rhonda Herman과 함께(미 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되었던 시카고에서: 2007년 1월 6일)





유해 없이 국립서울 현충원에 세워진 필자 셋째 형의 묘비

재미교포 김석희 교수의 자전 에세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재미교포 김석희 교수의 자전 에세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초판 1쇄 펴냄 | 2015년 11월 25일

지은이 | 김석희

펴낸이 | 남명우

펴낸곳 | 도서출판 한솜

등록번호 | 제4-379호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43-1

전화 | 02-498-4648

팩스 | 02-498-4642

e-mail | hhansom@hhansom.co.kr

홈페이지 | hhansom.co.kr

ISBN | 978-89-5748-281-0 03810

© 김석희 2015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꿔드립니다.

재미교포 김석희 교수의 자전 에세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김석희 지음

도서 **한숨**  
출판

나는 대학생 시절 생명을 위협한 병에 걸렸을 때도, 영어 때문에 미국 유학이 7년씩이나 늦어졌을 때도, 미국에서 풀타임 경비와 청소부로 6년 동안 고학을 하면서도 인생을 비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한 실력이나 재능 및 재산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은 “큰 꿈”이라는 두 자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꿈을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었고 이 결심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못내 저러오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공부가 끝난 후 몇 년 동안 한국에 정착할 최소한도의 자금이 라도 마련하려고 시작한 미국의 교수생활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반세기를 지나쳤다.”는 독백은 그날의 아픔을 다시금 상기케 한다. 그러나 생각한 만큼 큰 성공은 못 했어도 항상 꿈을 갖고 최선을 다했기에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나는 신석기시대 후반과 농경시대가 공존했던 문경군의 한 농촌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나 한미 양국에서 문명세계의 다섯 단계, 즉 석기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지식·정보시대 및 지혜



시대를 생의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 책은 그동안에 나 자신이 삶의 체험과 깊은 사유를 접목해서 서술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내 꿈이 제공한 등대의 불빛을 따라갔기에 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갈 수 있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두워도 갈 수 있었다. 개천이 나아가 강이 되고 강이 넘쳐서 비로소 바다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얻은 배움이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내 꿈에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수많은 시행착오에 봉착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동안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1.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2. 첫째의 재산은 건강이다. 3.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다. 4. 좋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원만한 대인관계이다. 5. 모든 일에서 발전의 속도는 기본에 의존한다. 6. 지혜를 얻으려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7.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면 된다. 8. 좋은 기회는 위기나 큰 변화가 있을 때 온다. 9. 작은 그릇은 금방 만들어지지만 큰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 빛과 소금의 생활이란 곧 좋은 삶을 의미한다.

누구나 위에 열거한 10가지 요인이 좋은 삶의 열쇠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좋은 삶을 위한 이 10가지 요인이 너무 상식적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좋은 삶을 위한 이 10가지 열쇠는 일종의 의무 이가 때문에 실천에 거부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꿈이 강하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감사

이 시간까지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과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동행을 위하여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날을 뒤돌아본다. 오늘도 살아 있다는 작은 일에 가슴 벅찬 감동을 회복하며, 이 작은 책을 간행하여 묶어내는데 주위의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특히 다음 다섯 사람의 인간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저서는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다. 엄창섭(관동대 교수), 이승현(국회 조사처 조사관) 변창섭(미 자유아시아 방송국 기자) 전인철(로스앤젤레스 소재 생명의말씀사 대표)와 강덕병(서울중앙복음교회 목사)은 원고를 전부 읽고 좋은 책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 꿈을 이룰수 있는 8가지 법칙

모름지기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꿈이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덟 가지 법칙이 있다. 1.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2.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소원과 일치시킨다. 3.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다. 4. 긍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한다. 5. 우리가 말하고 행한 일에 대해서 늘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진다. 6.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7. 매사에 감사한다. 8. 인생의 큰 꿈을 가진다.

지속적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꿈만 있고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꿈만 달성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만다. 한가지의 꿈은 우리가 그 꿈을 이룰 때에만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만 비전은 꿈 넘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경쟁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평가에 매달려 거기에 인생을 건다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처지와 능력을 고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1등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하고, 내가 꿈 넘어 꿈을 향해 얼마큼 더 달려왔는지를 생각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 목차

### 제1장 꿈은 이루어진다

-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다 ... 12
- 나의 젊음을 바꾼 근거 없는 소문 ... 25
- 제2의 생명을 준 숭실대학 ... 34
- 진정한 스승과 제자 ... 50
-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 65
- 아 목동아 ... 82

### 제2장 경비, 청소부에서 박사, 교수까지

- 경비와 경영학 석사 ... 89
- 청소부와 박사학위 ... 99
- 모범 기업인 허창수 ... 103
- 건망증 ... 108
- 피는 물보다 진하다 ... 116

### 제3장 꿈 너머 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횃불

-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교 ... 131
- 나의 저술활동을 뒤흔든 논문 ... 136
- 위기와 기회 ... 144
- 재미교포 1세와 자녀교육의 난제 ... 148
- 영구귀국의 마지막 기회 ... 162
- 지혜부족으로 생긴 난청 ... 168
- 조국을 생각하면 열정이 생긴다 ... 181
- 대기만성 ... 199

### 제4장 지금은 남의 땅: 떠나온 고향으로 가고파

- 한인교회 ... 217
- 한인사회 봉사 ... 223
- 고마운 사람과 필요한 사람 ... 231
- 지금은 남의 땅: 떠나온 고향으로 가고파 ... 238



제1장

꿈은 이루어진다



##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다

점촌에서 안동 방향으로 약 10리 떨어진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반곡리는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세상으로부터 잊힌듯한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 반곡리에서 1936년 5월 20일(음력) 가난한 소작인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나 호적상의 생일은 실제 생일보다 일 년이 늦은 1937년 6월 29일이다. 나뿐만 아니고 그 당시 시골에는 호적생일이 실제 생일보다 1~2년 늦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요즘은 출생신고 기간이 한 달이고, 한 달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보통 옛날에는 아이들이 빨리 죽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었던 모양이다. 하기가 내 바로 위 형도 돌 전에 죽어서 이름도 없고 우리가 죽 호적에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성인이 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내



형이 죽었을 때 죄의식을 느낀 어머니가 몹시 상심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어머니의 나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내가 살던 산자락은 산수화 한 폭과 같은 아름다운 동네였다. 봄에는 마을 뒷산에 온갖 꽃들이 울긋불긋 피었고 여름에 파란 영강에 바람이 불면 마을 앞 정자의 나뭇잎들이 춤추는 동네였다. 정자에서 멀리 보면 넓은 들판과 영강뿐만 아니라 점촌동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나는 동무들과 이 강에서 목욕도 하고 고기잡이도 하면서 장밋빛 같은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가까운 순천 김씨들이 모여 살던 이 작은 촌락의 이웃들은 모두 가난했지만, 인정이 넘치는 순박한 산골이었다.

내가 5살쯤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큰 초가집으로 이사해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다. 안채 뒤에는 대나무, 감나무, 조그마한 부추밭이 있었다. 마당 앞에는 꽃밭, 샘과 복숭아나무가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가꾸어 준 나무들이다. 여기다 내 모든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던 어머니(남이창)가 늘 계신 곳이었다. 따라서 나의 고향과 삶의 처소인 집은 어느 화가의 훌륭한 그림보다도 항상 나의 기억 흔적에 아름답고 정겨운 한 폭의 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의환향하겠다고 나 자신에게 굳은 약속을 하고 고향을 떠난 지도 덧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어느덧 60년이 흘러갔다. 그동안에 사랑하는 부모, 형, 누나, 그리고 친구들이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하나둘 저세상으로 떠났다. 그리고 큰 조카(기정)가 내가 철이 들면서부터 15년 정도 살던 집을 정리하고 도시로 떠나버린 탓에, 이제 나

는 돌아갈 고향과 집이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해마다 옛 고향을 떠난 봄이 오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온다.

나는 33세 때 미국유학을 위해 고국을 떠날 때 공부가 끝나면 꼭 돌아오겠다던 젊은 날의 약속을 이제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름 대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어설피게나마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술가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지론을 피력해왔다.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은 "역사야말로 어떤 가설이나 실험보다 더 좋은 자료"라고 언급하면서 역사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다. 그것은 유산이다. 이 자전 에세이는 곧 나의 고뇌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이 될 것이고 또 내 인생의 재발견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서전은 유명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이 평범한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글머리에서 밝히고 싶다.

## 〈여행〉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역들이 있고 사고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 기차에 타게 되며 차표를 끊어주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남겨두고 어느 역에서 내립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승객들이 기차에 오르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 친구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행 중에 하차하여 우리 인생에 영원한 공허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도 없이 사라지기에 우리는 그들이 언제 기차에서 내렸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기차 여행은 기쁨과 슬픔, 환상, 기대, 만남과 작별과 이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여행이란, 우리와 여행하는 승객들을 돕고 사랑하며,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이 편안하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견을 조정하고, 잊기도 하고, 용서도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이웃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차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계속 여행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들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고 가는 기차에 함께 탄 소중한 승객 중 한 명이 되어 준 귀하에게 감사하며, 내가 내려야 할 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여행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애대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어머니의 노래〉 마지막 절의 가사는 다 음과 같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살과 뼈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적어도 나의 모친과 세 자식의 어머니 인 내 아내(김도심)의 삶의 나날을 돌이켜보면 이 노랫말은 전혀 지나 친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다. 양주동 선생은 이 노래의 가사를 머리의 재주로만 작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감동을 받고 따뜻한 가슴을 통해 느낀 것을 맑은 영혼에 담아낸 것이라 한다.

특히 5월은 내가 개인적으로 1년 중 제일 좋아하고, 또 어머니의 날 이 있는 달이어서 매년 5월만 되면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된다.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면 60년이 지난 지금도 뜨거운 눈물로 가슴이 아려온다. 자식이면 나쁜만이 아니라, 누구의 경우이 든 이와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푼 그 사랑은 끝 이 없었기에 자식들이 비로소 철이 들면, 육체가 쇠약해지거나 돌아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들의 아픔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 아 니겠는가.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일 형태로 남긴 유언의 일부다. 그렇다. 조금 넓은 의미에 보면 삶과 죽음은 한 조각이다. 나는 5월 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5월에 돌아가셨다. 그러기에 5월이 오면 나는 희망과 슬픔으로 유년을 보냈던 시골의 정경이 회상으로 되살아난 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허무주의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또 달리 보

면 그 안에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불교의 중도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에 그렇다. 사물과 사상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중도사상은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삶이란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요 죽음이란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태어났으면 살아야 하고 살다 보면 죽음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고 자라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 어머니는 타고난 교사

나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버지는 농한기에는 소장수를 했고, 농번기에는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무척이나 가난한 생활로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큰 형(영희)이 장사를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게 되었다. 우리 집안은 3세대에 5촌 아저씨 부부까지 한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한 부대로 이루어진 대가족이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만 6세나 늦어도 7세에는 당시 국민학교인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나는 만 9세에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입학할 수 있었다. 그해에도 가족회의에서 나보다 3살이나 적은 질녀(선자)만 학교에 보내고 나의 입학은 1년 늦게 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

을 알게 된 나는 어머니를 졸라서 그렇게 원했던 소학교를 그나마 입학하게 되었다. 나의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 이유는 집에서 소를 키우고 잔심부름할 아이가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밋빛 같은 아스라한 내 유년시절을 회상해보면,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항상 나는 어머니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 어머니는 나에게 언제나 지극히 선량하셨고, 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생각하고 또 거의 다 들어주신 자상한 심성을 지니신 분이셨다. 형들과 형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나를 혼내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키지 못하게 하신 막강한 후원자였다. 그리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훈이 담긴 재미있는 옛날얘기도 들려주셨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또 자존감을 상하지 않게 꾸증을 하셨고, “너는 이다음에 아주 큰사람이 될 것이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 또한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가끔은 내가 좋아 하는 떡이나 과자를 던지시 건네주기도 했다.

당시 내가 소학교를 다녔을 때는 성적표에 각 과목성적과 함께 그 반의 석차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지능지수는 보통이었지만, 학교를 늦게 입학했고 또 공부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 반에서 일등을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교에서 일등을 한 것으로 얘기해서,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서는 내가 소학교 전체에서 일등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사실 중학교에 가서는 내 성적이 중간 정도였지만 정식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큰 형을 비롯해서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었다. 이것

은 결과적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형이 나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킨 동기가 되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세 아들에 대한 정성과 희생을 보면 정말 자상하고 어진 내 모친의 다정한 형상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다. 놀랍게도 모든 한국의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식들을 적절하게 교육시키는 재질을 타고난 것 같다. 나는 미국유학을 늦게 와서 그것도 고학을 하였고, 또 정착하는데 바빴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뚜렷한 기억이 없다. 그 같은 정황에서도 나의 아내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눈물겨운 정성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등 모든 문제는 아내가 힘겨운 생활에서도 도맡아 주었는데 아이들은 모두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다. 지금도 부자간의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습관처럼 자기들의 성공은 어머니 덕택이라고 한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한국식 개념으로 판잣집 같은 비좁은 공간에서 살았다. 아이들은 에어컨도 없이 단칸방에서 지냈고 학교에서는 차이니스라는 놀림에 수치감을 느꼈지만 힘겹게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또 학용품조차 충분히 사주지 못해 아이들은 형제간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불평도 많았고 입버릇처럼 자기들은 자라면 아버지처럼 절대로 대학의 교수는 안 하겠다고 저마다 다짐하기도 했다. 내가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아이들이 자랄 때 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곤란했는데 아이들은 교수월급이 적어서 우리가 가난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런데도 아내는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러한 제약의 악조건을 지혜롭게 역이용하여 보다 활달하고 도전정신이 넘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주문처럼 “당분간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항상 좋은 일만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전해오는 우리의 말에 “못 이길 시련은 없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아내는 어린 자식들에게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을 신념처럼 일깨워 주었다. “너희들은 꼭 기억하여라. 희망을 잃으면 절망밖에 없다.” 대체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과 따뜻한 격려로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착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 **비극적인 한국전쟁**

참으로 비극적인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지속된 한국과 북한 간의 전쟁이다. 인류역사상 참으로 불행했던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어언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름 없는 산자락에서 또 바다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죽어간 250만 명이 넘는 국군 및 유엔군과 민간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조국은 한강의 기적을 낳아 놀랍게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최근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의 침몰사건(2010년 3월 26일)이나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11월 23일)은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북한군은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모두 휩쓸고 대구까지 내려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매우 급박한 처지에 있었다. 다행히도 한국군과 유엔군이 마산, 왜관, 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그나마 북한군의 격렬한 침공을 격퇴하고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역사상 동족 간의 비참한 전쟁이 각 가족에게 미친 영향으로 불행을 겪어야 했던 개인적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너무 참혹하여 누구나 할 말을 잇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나에게 있어서 전쟁은 우리 가정을 파괴해서 민족적 비극 이전에 개인적으로 불행을 체험케 하였다. 당시에 나의 둘째 형(병희)과 셋째 형(세목)은 군인으로 참전했다. 더구나 셋째 형은 치열한 전쟁 중에 전사했고, 정부에서 화장해서 보낸 형의 유골은 우리 집안에서 그 당시의 풍습대로 영강에 뿌렸다고 한다. 따라서 마땅히 현충원에 안장되었어야 할 형의 유골이 낯선 강변에서 한줌의 흙으로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케 된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가난과 멸시, 그리고 천대 속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일생을 보낸 한 여인(황계임)의 한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아주머니를 기쁘게 했던 것은 형이 전사했을 때 두 살이었던 아들 기철이었다. 모든 환경으로 봐 기철이는 불량이 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한 기철이는 공부도 잘해서 은행에 취직을 하고 외로운 홀어머니를 잘 모신 이상적인 아들이 되었다. 둘째 형은 돌아가신 지 38년만인 2015년 6월 3일 그의

유골은 6.25 참전 유공자의 자격으로 가족묘지에서 이천에 있는 호국원으로 이장 되었다.

우리 형제들의 돌림자는 ‘희’였는데 셋째 형의 이름에는 왜 이 돌림자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항렬을 나타내는 자(字)를 항렬자 또는 돌림자라고 한다. 항렬(行列)은 같은 씨족 안에서 상하의 차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이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아버지의 형제나 할아버지의 형제는 또 그들대로의 이름자 속에 항렬자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면 촌수에 관계없이 같은 항렬자를 쓴다. 그러나 한국이 서구화되면서 이름에 이 돌림자를 사용하던 관습이 서서히 약해짐에 따라 지금은 이 돌림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철이는 1997년에 현충원을 방문하여, 유해를 수령한 전사자는 국군묘지에 안장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기철이는 아버지가 전사한 지 61년이 지난 2014년 8월 5일에서야 아버지의 묘비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국립묘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전사하신 분의 경우 이미 산골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가 설치되기 이전이므로 위패 봉안이 가능하다.”는 육군사관학교 조교수 김인수 소령의 정보가 형의 묘비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립묘지는 1955년 국군묘지로 처음 만들어졌다가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형은 국립묘지가 설치되기 전인 1953년 6월 12일에 전사했기 때문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된 모양이다. 국군묘지에 위패봉안이 되었지만,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유족들이 우리 형의 경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유족들을 찾아 주길 기대해 본다.

김 소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잇달아 발표한 재원이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 소령은 육군사관학교 조교수들에게 영어논문 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하도록 초청해주어서 난생처음으로 육사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있다는 전교생 사열식도 참관했다. 특히 그날은 은퇴하는 교수의 환송을 겸한 사열식이어서 교수인 나에게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큰형과 담임선생의 반대로 고3 때 육사에 진학하려던 꿈을 접고 한때 몹시 실망했던 기억이 내 머리를 스쳐 갔다.

60여 년 전에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목사 밑에서 부친은 장로로 그리고 자신(장인)은 집사로 시무한 경험이 있고 또 지주였던 장인(김경진)은 공산당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온 가족이 한국전쟁 직전 남하를 하는 바람에 평양에서 태어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우리 가족은 몇 개월간 공산당의 통치하에 살면서 큰형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이장 일을 보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할 때, 선발대에 속한 학도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군인)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협조한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들에게 잡혀간 큰형이 처형되는 걸로 알고 온 가족이 공포에 떨었다. 더구나 이때 우리 마을 부근에서 아군과 적군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였고, 멀지 않은 곳에서 대포소리가 밤낮으로 그칠 날이 없었기에 우리 가족은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

다. 우리 가족의 실질적 가장이던 큰형의 신변을 제일 염려한 분은 물론 어머니였다. 밤낮 정화수 한 그릇을 상위에 올려놓고 아침저녁으로 오래 기도를 드리면서도, 가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큰 아버지는 꼭 살아온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모친의 예측이 근거 없는 줄 알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속담처럼 그나마 온 가족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다행히도 큰 형이 심한 고문만 받고 풀려나는 바람에, 뒷날 큰형이 나를 대학공부까지 시키게 되었다. 1969년 미국유학을 위해 받은 신원조회 때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 나의 젊음을 바꾼 근거 없는 소문

우리네 삶의 일상에서 크게는 세상을 바꾼 동기나 작게는 한 개인의 삶을 변형시킨 일화나 현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처음 시작에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생겼을 때나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부모나 스승,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도 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소 성격이 급하고 내성적인 나의 경우, 돌이켜 보면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였을 때도 비교적 주위의 사람들과 상의를 하거나 그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찮은 문제도 몇 년을 끙끙거리며 허비한 적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예상외로 잘 풀려서 내 인생을 크게 바꾼 적도 있다.

## 운명처럼 대구에서 서울유학으로 바뀐다.

원래 우리 집안의 계획은 내가 문경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구로 가서 대학공부를 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게 된 동기는 문경중학교 졸업 몇 달 전인 3학년 2학기 때, 나이가 많으면 대학에 못 간다는 헛소문을 들었던 큰형은 나를 승문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시켰다

내가 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1952년에는 한국의 중학교 입시제도정책은 국가 연합고사제도(1951~53)가 시행되던 시기였다. 나의 국가시험성적은 상당히 좋았으나 문경중학교 입학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다. 나는 나보다 세 살 아래인 질녀와 함께 9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부에서 일정한 나이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초과연령에 따라 점수를 삭감해서 중학교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많은 점수를 깎이고 중학교에 입학한 나의 처지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당사자인 나보다도 형이었다. 내가 1969년 미국유학을 올 때까지 나에게 이 얘기를 가끔 반복하여 들려준 것을 돌이켜보면 당시의 큰형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부 시책은 부당한 처사였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으며, “너는 정부관리가 되거든 그러한 부당한 정책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형은 내 초등학교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조카들보다 동생인 나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헌신하였다. 나이가 많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형의 말이 헛소문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을 돌이

켜보면 다소 이해가 된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울구경 한번 하는 것이 평생소원이었고 서울구경을 한 번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가까운 순천김씨들만 모여 사는 전통적인 씨족부락이었다. 나의 기억으로는 당시에 우리 마을에는 라디오, TV나 전화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신문 보는 사람도 없는 빈촌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재래장터인 5일장에서 들은 화제가 뉴스의 전부였다.

5일장은 농민과 내수공업 자들이 일정한 날짜와 장소를 정해 서로 곡물, 채소, 생활용품 등을 교환하던 농촌의 정기시장 형태로 출발했으며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20세기 초에 절정을 이룬 5일장은 190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 유지됐으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점차 지역마다 쇠퇴일로로 접어들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다. 근간에는 지역마다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5일장을 지역축제 등 관광 상품과 연계시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골에 장이 서는 곳마다 다니면서 잡화상을 하시던 형은 특히 여러 사람한테서 들은 소식을 가끔 식사 때마다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대학에 못 간다는 소문은 수없이 얘기했고, 그 소문을 의심하지 않고 나 자신도 믿게 된 것은 중학교 입학 때 나이가 많아서 많은 점수를 잃은 사실상 피해를 체험한 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헛소문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나로 하여금 대구보다 서울에서 공부하게 만들었고, 큰 꿈을 가지게 하였으며 대학전공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처럼 근거 없는 헛소문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큰 꿈

피가 뜨거운 젊음의 한 때, ‘아주 큰사람이 되어 금의환향하겠다.’고 나 자신이 의지를 불태운 것은 돌이켜보면 짐은 제복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사실 나의 소박한 꿈은 문경 촌놈인 내가 마포에 소재지를 둔 승문고등학교에 편입을 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들려준 형의 말이다. “김석희(金碩熙)라는 한문글자를 해석하면 금이 크게 빛난다는 의미 즉, 큰사람이 된다는 뜻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물론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평상시에 푸념처럼 내뱉던 형의 잔소리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은 말할 나위 없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왔을 때, 서울과 시골의 문화적 충격이 너무 큰데 실망한 것이 형의 부탁을 나의 신념으로 다스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때 내가 난생처음으로 막연했지만 나의 인생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평생 이 꿈을 나의 좌우명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고, 80세나 된 지금도 이것을 내 삶의 좌표로 삼고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내가 생각한 만큼 큰사람이 못되긴 했지만,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내 환경이 허락한 것보다는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 삶의



편력에 결코 후회가 없을뿐더러 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간증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와 영어 같은 인문학 계통의 과목보다 수학과 물리 등의 이학계통 과목의 점수가 월등히 좋아서 대학에서는 이 공계를 전공하게 되었다. 대학입학 시즌이 가까워짐에 따라 고3들은 지방대학과 전공학과에 대해서 담임교사와 일대일로 상담하게 되었다. 내 차례가 와서 2. 3학년 때, 담임하셨던 서원용 선생께 “육사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너는 체격도 작고 지도력이 약해서 육사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의 형과 상의했는데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추천하도록 했다.”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어린 나의 판단으로 육사를 생각했던 것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교가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할 때까지는 몰랐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전기공학을 공부해서는 큰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공부에 점차 의욕을 잃었다.

그 당시에는 이공대학에서 학생들이 출석은 최소한 3분의 2 이상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락을 시키고 또 세 과목 이상 낙제하면 유급을 시키는 제도가 강행되었다. 나는 직장에 출근하다시피 매일 9시에 학교에 가서 5시쯤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출석은 3분의 2에서 두세 번 넘게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소설이나 수필 등의 책을 읽는 데 보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학과장과 교무처장 등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문과계통의 학과로 전과시켜달라고 간청했지만, 끝내 허사여서 마음에 깊은 상

처를 받게 되었다.

사실은 우리 동기생 40명 중 몇 명은 세 과목 이상 낙제를 하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공부를 한 해 더 해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나는 공부도 안 했고 공부의욕도 없었지만 한 과목만 낙제를 하고 전기공학과에서 3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에서 온 강창언이라는 친구의 덕택이었다. 나와 이 친구는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하숙을 했고 강의실 좌석배치는 성의 가나다순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 바로 오른쪽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다. 거의 당일치기로 시험을 준비한 나는 이 친구의 노트와 도움이 없었다면 실제보다 훨씬 나쁜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모교에 돌아와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정보통신처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은퇴한 후 제주대학교로부터 컴퓨터공학과 석좌교수 초빙을 받고 고향에서 후배양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현실적으로 이학을 전공하고도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수없이 많지 않은가? 예를 들어 전공학과는 다르지만, 나의 대학 동기동창인 김우식 교수는 화학을 전공하고도 대학총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교육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따라서 그 당시 이학을 전공해서는 큰사람이 될 수 없다는 나의 고정관념은 세상을 너무 몰랐던 지방학생의 편견일 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전과를 위해서 찾아갔던 학과장, 학장이나 처장이 안 된다며 외면하기보다 그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정성을 지니고 상담에 임해주었으면 나는 아주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

고 전과는 절대 안 된다는 학교의 정책에 원망도 많이 했을뿐더러 나의 적성도 무시하고 전공을 전기공학과로 추천한 형이나 선생에 대한 불신감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더 이상 내 고민을 풀 길이 없어서 결국 1959년 봄, 군에 자원입대하고 말았다. 군에서 제대하고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 교무처장, 학장 및 학과장 등을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서 문과로 전과시켜달라고 졸랐지만 끝내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로 편입하여 전과를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기공학을 공부해서는 큰사람이 될 수 없다는 실로 어리석고 편협한 착각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놀랍게도 큰 인물이 되겠다는 불타는 열정과 집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나의 열망은 젊음의 패기로 더 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은 처녀항로와 같다. 꿈이 있는 사람의 여정은 항해이고 꿈이 없는 사람의 여정은 표류에 해당한다. 항해와 표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목적지와 항로와 방향의 차이이다. 항해는 목적지의 항로를 따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표류는 항로를 이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정확한 항로를 따라가야 한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미리 준비한 좌표를 따라갈 때 우리는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기 인용한 용해원의 시 <꿈>은, 꿈이 있는 사람의 여정이 항해와 같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나는 꿈이 있으므로 행복하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므로 노력한다.  
나는 꿈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말한다.  
나는 꿈이 있기에 활기차게 살아간다.  
내 꿈을 내 품에 안기 위해 도전한다.  
내 꿈을 성취하는 기쁨을 알기에 꿈을 꾸다.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옛 어른의 가르침처럼 어디까지나 성공의 첫걸음은 꿈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인간은 새처럼 무한의 공간으로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꿈을 지녔기에 비상할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꿈을 소유하여야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큰 꿈은 우리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역동성을 부여하기에 일단, 꿈은 클수록 좋다. 비록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는 초등학교생일지라도 훗날 자라서 인류를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환상이나 헛된 꿈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으므로 “어떤 학생이 나는 커서 새처럼 훨훨 공중을 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헛된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통이 따르기에 쉬운 일이라 말할 수는 없어도 실현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생각은 아주 큰 꿈임에 틀림없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역설이나 가수 최희준이 불러 대중의 사랑을 받은 〈하숙생〉의 주제가로 “빙글빙글 도는 의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임자지.”라는 가사가 1960년대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나 역시 이같이 평범한 삶의 가르침에 큰 자극을 받았고, 젊은 날의 큰 꿈을 소유하는 동기가 되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큰 흔적을 남기고 가려면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위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 제2의 생명을 준 송실대학

전기공학과에서 1년 반 남짓 수강하고 그 이상 계속할 의지가 없어 마침내 1958년 봄에 군에 자원입대하고 말았다. 당시 일반인들은 3년 동안 군에 복무하게 되어 있었고 대학생들은 ‘학보’라는 이름으로 18개월만 복무하는 혜택이 있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군복무까지 오래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에서는 학보출신 사병들은 전부 일선에 근무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학보 제2기로 군에 입대한 나의 주위를 살펴보니 높은 사람들의 아들들은 대부분 큰 도시의 후방부대에 배치되었고, 나와 같은 가난한 농촌출신들만 일선에 배치되었다. 이 같은 소식을 친구들로부터 전해 듣고 확인했을 때, 나의 작은 결의는 더욱 굳어졌다. 일 년 반 동안 최전방 경계 근무를 하면서도 항상 나의 마음속에는 온통 큰 꿈을 이루어야 할 것과 부조

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의식을 지배하였다. 결국 제대 몇 개월 전에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고급 공무원이 되기로 나의 꿈을 제법 구체화하였다.

## 잊지 못할 4·19 혁명

나는 4·19혁명이 발생했던 1960년 2월에 제대하고 대학에 복교했다. 대학생들이 주도했다고 해서 4·19학생운동이라고 평가받은 이 혁명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자행한 3·15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나는 1년 반 동안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막 제대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의 절반을 내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한 학기를 휴학하게 되었다. 군복무를 1년이든 2년으로 했으면 등록금 절반을 내고 한 학기 휴학할 필요가 없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러한 혜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과목도 택하지 않는데 등록금 절반을 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매사 부정적 사고를 지닌 나에게 있어 이 당시, 전공 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불만도 많았고 또 시간도 많아서 그해 3월 15일 이후 거행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다. 이때는 대학 총학생회 주관의 반 정부데모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별 부정선거 성토회, 교내시위 등으로 하루도 대학 캠퍼스나 도시의 공간은 조용

한 날이 없었다. 나는 이공대 소속이었지만 모든 단과대학의 반정부 교내외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매일 분주한 날을 보냈다.

화사했던 봄날, 자유당 독재와 3·15부정선거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청와대로 질풍처럼 돌진했던 4·19는 반세기가 넘어 지금은 꿈결처럼 아득한 옛 얘기가 되었다. 오전 11쯤 전교생이 신축한 강당 앞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하고 백양로를 따라 앞으로 거센 물결처럼 도도하게 돌진했다. 내가 데모의 주동자나 된 것처럼 앞장을 서서 구호를 외치며 신촌 로터리로 달려나갔다.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은 노도처럼 밀려오는 성난 군중으로 완전히 막혀서 연세대 데모대는 외각을 한 바퀴 돌아 오후 1시경에 안국동을 거쳐 정부 청사가 있는 중앙청까지 진출했다. 이때 경찰들이 연세대 데모대에 발포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아비규환의 장으로 돌변했다. 얼마 동안은 학생들은 구호와 함성을 질렀고 경찰은 총을 마구 쏘아대는 피아간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총격도 점차 가라앉았고 지칠 대로 지친 학생들도 더는 진출이 불가능해지자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나도 데모대에서 이탈해서 아현동에 있는 하숙집으로 향했다. 모든 교통이 두절되고 하숙집까지 걸어야 했기 때문에 땅거미가 짙어져 어둑어둑할 때야 하숙집에 도착했다. 오는데 얼마나 많은 최루탄 가스를 마셨는지, 며칠 앓아누워야 했다.

그 후 4·19 뒤부터는 데모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학장, 교무처장실을 다시 찾아가면서 전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4·19 전까지만 해도 재학생 신분으로 학장이나 교무처장을 만나는 것이 요즘의 총장을 만



나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4:19 이후에는 그나마 학생들의 발언권이 다소 강해져서 학장과 처장을 만나기 쉬웠고 또 전과는 달리 학교의 학칙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몸을 낮추는 변화의 물결이 점차 밀려왔다.

이른바 4:19 세대인 나에게 4:19는 다른 대학생들처럼 순백의 백합처럼 순수한 결정체는 아니었기에 뒷날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연세대에서는 전과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한 나는 5월부터 여러 대학의 교무처에 면담을 하던 끝에 결국 1960년 가을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로 편입하여 전과를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늦게야 알게 된 형은 동생의 편입전과를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참고 세칭 일류대학을 나왔어야지 타 대학으로 옮기면 너의 장래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며 크게 심려하던 큰형의 모습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내가 연세대학에서 숭실대학에 편입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형뿐이 아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로부터도 왜 좀 더 좋은 대학에 편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았다. 사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이후 그 당시 숭실대학보다 좋다는 대학은 다 가보았지만 금년에는 편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똑같은 대답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숭실대학에 편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대학에 편입했어도 다음에 얘기할 병에 걸렸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수술을 받지 못해 죽었거나 결국 수술에 했다 하더라도 너무 늦어서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 자살

승실대학 경제학과에 편입과 전과를 하고 나서야 대학에 입학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활력이 넘쳐나는 대학시절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공과목을 열심히 이수해서 나의 꿈인 행정고시를 보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큰사람이 되어보겠다는 포부를 나 자신에게 여러 번 다짐하였다. 비교적 첫 학기는 강의도 재미있었고 학업에도 몰두해서 비교적 성적은 좋은 편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에 재학 중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고향에 내려와서 몇 주일씩 지내곤 했었다. 1962년 겨울방학 때도 고향에 내려와서 몇 주일 머물다 상경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몸이 붓고 대변에서 피가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몸 안으로 자라나는 치질에 걸렸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느냐는 형의 질문에 수술을 담당할 의사는 치질수술은 잘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서울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따뜻한 격려도 서슴지 않았다.

그 후에 놀랍게도 상황은 돌변해서 상경한 지 몇 주가 안 되어 대변에서 또다시 피가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개인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치질이 재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몇 주 있다가 또다시 재발했다. 이처럼 3학년 내내 수술, 재발의 악순환을 거듭하였고, 안타깝게도 학교공부도 제대로 못 하는 형편에 처하고 말았다. 치질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이 다행히 나의 치질은 암은 아니라고 했지만, 수술재발의 악순환과 나날이 허약해가는 심신과 점차로 멀어져가는 나의 집념,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적 고뇌로 나는 밤낮을 술

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내 얘기를 자세히 듣고 수술 흉터 등을 검진한 한 의사가 개인병원에서는 완치시킬 수 있는 치질이 아니니, 큰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그 당시 서울역 맞은편에 있었던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상의했더니 치질이 너무 악화되어 수술도 간단하지 않고 몸도 너무 약해져서 얼마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기에 병원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50kg이었던 체중은 1년 사이에 30kg 이하로 줄어들었고 신경성위궤양 증세로 식사 때마다 많은 양의 소화제를 복용해야 했다. 가정의 경제사정이 원래 넉넉하지 못한 농촌이어서, 소와 땅을 팔아서 겨우 공부를 했는데 잘못 선 빚보증 탓에 가정 형편이 심하게 기울어지기 직전이어서 부모님은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고민 끝에 그 사실을 적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학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큰형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큰형은 며칠 후에 한의사와 함께 상경해서 진찰을 하였다. 그 한의사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불치병-죽음?' 절망감에 사로잡힌 우리 형제는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팔자소관이라고 체념을 한 뒤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몸에서 피고름은 계속 흘러나오고, 수술할 돈은 없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심신에 그저 눈앞은 캄캄해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럴 때면 기숙사 뒤편의 산자락에 올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몇 번인가 자살을 떠올리기도 하였지만, 불현듯 6남매의 막내인 나를 띄어나 사랑해주셨던 어머니의 유언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며 떠올라 감정

을 절제하였다.

운명하기 며칠 전에 내 손을 힘없이 잡고 “내가 저 세상에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꼭 큰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유언의 전부이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은 3대가 함께 살아서 대가족이었지만 막상 어머니 임종을 지켜본 것은 불행하게도 어린 나였다. 그 당시 어머니의 임종을 앞에 둔 나의 비통함은 온통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다.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나의 친척 어른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나를 만나면 가끔 그때의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이나, 명예, 권력 등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부모가 주신 생명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지대한 불효다. 더욱이 종교계에서 자살을 죄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빌려준 것이기에 별처럼 존귀한 자존감을 포기한 자살은 교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자살은 단순히 한 인간에게 국한한 죄악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 사람들에게 사회나 국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면 자살률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명예와 자존심을 깎아내려 자살로 내모는 비정한 사회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를 정신병 환자로 보지 말고 나도 언젠가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걸릴 수 있

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 평생의 직업을 탄생시킨 세브란스병원

그 당시 형은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친구의 빚을 대신 갚는 처지에서 가정형편은 심히 어려웠기에, 내가 고학을 하든지 아니면 휴학을 해야 할 처지였다. 까닭에 내 사정을 형에게 얘기할 용기도 없었고 해보야 병원비를 지불할 형편이 못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무료로 수술을 간청하기 위해 송실대학 기숙사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 수없이 찾아갔다. 그러나 병원 앞에서 수없이 줄담배만 피우고 망설이며 막상 한 번도 딱한 사정을 호소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

그 당시 나는 송실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규정상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술과 담배를 마시거나 피우지를 못하게 되어있었다. 일 년 동안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 치질 외에도 신경쇠약과 위궤양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까닭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다. 유일한 낙인 술과 담배를 규정을 어겨가면서 기숙사의 실내에서 여러 번 했다. 사감목사한테 적발되어 꾸중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퇴사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해의 쌀쌀한 초겨울 한낮에 텅 빈 기숙사에서 혼자 술과 담배를 즐기고 있는데 사감목사가 와서 “오늘 당장 퇴사하라.”고 하기에 “나

는 당신이나 퇴사하라.”고 울분이 섞인 음성으로 도리어 큰소리를 치면서 격한 감정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결국 사감실에 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의 모든 형편을 조용히 들던 목사는 성직자답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서 “참고 기다려 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다. 정말 놀랍게도 나에게는 며칠 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송실대 교목실을 통해서 세브란스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주기로 했으니 입원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겨울방학 직전에 받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나의 일생 중 가장 기뻐던 순간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난생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랑의 주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뒷날에 알게 되었지만 사감목사, 송실대 교목과 세브란스병원 교목 이렇게 세 분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나를 세브란스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났을 당시에 수술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펍이나 놀랐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로는 나의 치질은 독특한 것이어서 의과대학생과 인턴들이 함께 견학했다는 것이다. 일단 나는 수술이 끝나고 입원실에 며칠 있다가 재활원으로 옮겨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다.

이 재활원은 1953년에 절단재활을 위하여 의수족부가 세브란스병원에 설치되어 기독교세계봉사회에서 운영을 시작한 곳이다. 내가 물리치료를 받으며 머문 숙소는 군대의 막사와 같은 곳으로 이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약 15명의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전

부 최소한 팔다리 하나가 절단된 20대와 30대의 청년들로서 수술은 끝났지만, 물리치료와 퇴원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시계수리나 구두수선과 같은 간단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그중에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야 겨우 가능한 사람도 있었으나 팔다리가 온전한 사람은 나뉘어 없었다. 주로 이곳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로써 교회나 기독교단체의 추천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치료, 자립기술 습득을 할 때까지 병원의 모든 비용은 미국장로교선교부에서 부담하였다. 한 달쯤 지난 무렵의 어느 날 담당의사가 수술과 회복이 잘되어 재발할 우려가 없으니 한 일주일 더 있다가 퇴원해도 좋다고 알려 주었다.

사실 나는 한 달간의 재활원생활을 통해서 '사람은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성숙한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비록 함께 치료를 받는 재활원원생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고 장애인들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함께 우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행위임을 알게 되면서 깊은 신앙과 형제 이상의 협동정신을 실천하며 나눔의 삶을 보여주는 그들의 행위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나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행복감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가난한 내 나라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미국장로교선교부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봄 학기가 시작될 무렵까지는 한 달 남짓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갈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내가 대학 1학년 때 가정교사를 하며 가르쳤던 봉원사

의 박영상(전 봉원사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요양도 하고 겨울방학을 편하게 지날 수 있었다. 1년이 넘도록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며 병마에 시달리느라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잘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나에게 세심한 배려로 식사도 잘 챙겨주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개강이 될 때까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따뜻한 정성으로 보살펴준 박영상의 부모님 은혜는 너무 감사하여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박영상의 가정교사로 나를 소개해준 친구인 백종화는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그는 당시에 이대 입구에서 주먹세계의 두목으로 통했지만, 의리와 의협심이 강한 사나이였다. 그는 유년시절 초등학교 때만 생각하고 항상 나를 공부벌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소박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 후에 치질은 완치가 되었으나 그때 얻은 신경성 위장병은 지금도 나를 종종 괴롭히고 있다. 병원에 있을 때나 요양을 하면서도 큰사람이 되겠다는 꿈은 내 머릿속에서 항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현실 상황이지만, 점차 건강이 회복되자 내면에 잠재된 꿈과 이상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고급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삶의 좌표를 수정하고 대학교수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이 결정을 한 것은 4학년 봄학기 직전이었다. 그 후에도 전공은 몇 번 바꾸었지만,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신념을 결코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시 말해 병원생활이 내 일생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준 셈이다. 한때나마 용서의 큰 철학을 실천한 넬슨 만델라는 “세계를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부라.”



고 언급한 적이 있듯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공부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다.

## 공부의 비법

내 직업이 교수이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공부의 비법이 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 편이다. 나 자신이나, 나의 아이들이나, 나의 학생들이나 공부비법에 대한 서적을 통해서 보면 공부의 비법은 의욕뿐이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송실대학에 가서 내 성적을 열람한 적이 있다. 3학년 2학기 때 10과목을 택했는데 그 중 C가 6개, D가 2개, A와 B가 각각 1개였다. 그동안 전공에 대한 불만과 병, 전과와 편입 등으로 내 대학성적은 전체적으로 평점 4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한 달간 입원했다 퇴원한 4학년 초부터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과 농협협동조합 취직시험에 합격했다. 직장 취직시험 과목과 대학원 입학시험 과목에 차이가 있었는데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두 곳에 다 합격한 원인은 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라는 결론 때문이었다. 요약하면 나의 공부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1년 공부해서 두 곳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실 8년간에 걸친 대학원 고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농협에 몇 개월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과 조교 및 가정교사를 한 덕택으로 형의 도움 없이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학비를 스스로 벌

어서 고생하며 배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했다. 난 생처음으로 부모·형제들의 도움 없이 학비뿐만 아니라 의식주까지 나 자신이 해결했다는 것이 신통하기도 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같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 학생이 성적은 우수하고,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이 성적은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많다. 부모의 반강요로 의욕 없이 온종일 책상에 앉아 봐야 성적이 올라갈 턱이 없다. 공부의욕이 강하면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있다. 미래를 꿈꾸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같이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다. 바로 의욕이다. 의욕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시험결과나 성적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부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하려면 빛과 소금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빛과 소금의 삶이란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소중한 꿈은 대학교수

내가 유년시절이던 1950년대의 고향인 반곡은 석기시대와 농경시대가 공존하던 무렵이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서울 구경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일생의 꿈이었고 또 서울과 시골은 그렇게 밤과 낮처럼 환경적인 차이가 컸다. 1954년 문경중학교를 졸업하고 승문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하기 위해 난생처음으로 서울 상경을 서둘렀다. 예상은 했지만 찬란하고 호화로운 도시의 정경에 너무 겁이 나서 서울 구경을 할 용기마저 없어 며칠은 하숙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봄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고향에 내려온 나는 시골과 서울의 차기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에도 까닭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꼭 성공해서 금의환향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어린 마음의 결심이기도 하지만 내가 평생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는 놀라운 동기가 되었다.

비교적 구체적인 나의 꿈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내 꿈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육군 장교-발명가-재무부 공무원-은행원-대학교수'란 여러 단계에 걸쳐 변화·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운명처럼 나의 생업이 된 대학교수를 내 꿈의 결과로 확정 짓기에는 약 7년의 세월이 걸렸다. 평생 마음에 와 닿는 좋은 할 일을 찾는 데는 누구나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기에 나에게 있어서도 이 과정은 예외일 수 없었다. 숭실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교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 취업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 임시 도피할 하나의 변명으로 막연히 선택한 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래도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은 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교수는 다소 소극적인 나의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일생동안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그다지 지루

한 줄 모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인내하며 지내왔다. 물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내기까지는 전공을 세 번(전기공학-경제학-금융론)이나 바꾸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하였다. 애초에는 단지 유명한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아쉬움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금융론을 전공한 교수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평생 좋아할 일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체험한 바로는 자신이 평생 좋아할 일을 찾기만 하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로드맵, 즉 이정표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는 것이다.

더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해 미국유학을 해야 한다는 일념에 대학 졸업 후 농협직원,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등을 했지만, 이 모든 직업은 임시직장으로 생각하고 미국유학 준비에만 몰두했다. 영어실력, 학비문제, 대학성적은 어느 하나도 유학을 해결하는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나 미국유학 준비에 무려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걸렸지만, 한 번도 미래에 대한 집념을 포기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사실이 7년 동안에 미국유학의 기회가 몇 번은 있었지만, 학교성적과 영어실력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명언을 뼈저리게 절감하여 보기도 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못내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당시 문교부에서 유학생에게 허락한 100달러와 암시장에서 매입한 100달러만을 가지고 1969년 말 무모하게도 미국유학을 시도한 일이다. 그 같은 연유

로 오로지 고학에 의존하여 마침내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교수가 되었을 때, 깊은 감동 속에서도 잠시나마 꿈을 이루게 된 주요 원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먼저 한순간 머릿속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나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는 삶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내가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집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담당할 적도 없고 또 독실한 교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에는 인간의 꿈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좋은 진리의 말씀이 삶의 잠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 진정한 스승과 제자

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은 “선생과 학생은 있어도 스승과 제자는 없다.”라고 강도 높게 교육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생, 즉 멘토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이란 주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반면 새삼스런 이론의 접근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멘토로서의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삶의 보호자이며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선생한테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 하고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다.

##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보낸 인생의 약 4분의 1세기를 학생으로 보낸 내 삶에는 수많은 선생이 있다. 언제부터라고 꼬집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나의 영혼을 흔들어 움직인 교사나 교수들을 은사라고 부르는 습관이 생겼다. 그중에서도 내가 대학 4학년 때 “훌륭한 교수가 되려면 연구업적이 좋아야 한다.”는 전응렬 은사의 말씀은 내 일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내가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된 후에도 전응렬 은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제간의 두터운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지금 돌이켜 보면 그저 감사할 일이다.

내 삶의 로드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전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셨던 박기혁 은사이시다. 그분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1963년 봄에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그 무렵에 정신적으로 큰 스승이셨던 은사는 경제학과 학과장이셨고, 나는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이었다. 은사는 농업경제학을 전공했고 나는 농촌출신으로 농협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1964년 일 년 동안 은사의 각별한 배려로 그 밑에서 경제학과 조교 일을 담당했고, 졸업 후에도 상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서 1년 반 동안 풀타임 연구조교를 하였다. 더욱이 1967년 은사의 소개로 관동대학의 전임강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1968년에는 은사의 사모님 소개로 운명처럼 당신 누님의 딸과 결혼까지 하는 행운마저 얻게 되었다.

대학교 부근에 있던 은사의 집에는 항상 많은 대학원생이 드나들었다. 이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선생은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했

기 때문에 한국말이 다소 서툴러서, 원고를 정리할 학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다. 나는 대학원 졸업을 전후해서 3개월 동안 은사 댁에서 숙식하면서 당신의 첫 저서인 『농업경제원론』 원고를 정리해 드렸다. 책을 출판한 후에 은사는 나에게 경찰관의 월급에 해당한다며 두둑한 돈봉투를 건네주시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된 후에도 은사가 타계하실 때까지 끈끈한 사제간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또 필요할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부탁도 서슴지 않고 하였으며, 그렇게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은사는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되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잠언과 교수의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일깨워주었다. 이처럼 인생의 진정한 멘토로,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던 은사는 내가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모범적인 지식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늘 깨우침을 허락하신 분이셨다. 그분의 교훈 중에 제일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서의 황금률이었다. 나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노력하려고 애쓰고 땀 흘린 결과로 나의 잠재능력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선생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서로가 하나같이 분명한 삶으로 인하여 나와 은사와의 끈끈한 사제간의 친밀한 관계는 다소 농도가 약아지기는 했지만, 그분의 딸 박에스터(샌마코스 캘리포니아주립대 강은철 재무관리 교수의 부인)와 그분의 아들인 박폴(크라이슬러 근무)과 박용석(연세대 경영학



교수)과의 소중한 인연이 맺어져 지금도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에스터와 폴(한국이름 성석)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도 미국 이름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살아온 전형적인 1.5세대이다. 막내 용석은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이름도 한국명이고 또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엄격하게 가족관계를 따지면 나는 이들의 4촌 매부가 되지만, 그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지금도 나를 석희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지내고 있다.

## 바둑과 근본

나는 대학원 무렵, 모든 일에서 성공의 열쇠는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바둑을 통해서 배웠다. 대학원의 동기동창인 김황조(전 연세대 경제학과교수)는 강의가 있는 날이면 연세대 앞에 있던 내 하숙집에서 나와 바둑을 두기 위해 출근하다시피 했다. 처음 바둑을 둘 때는 이 친구가 흑을 잡고 20개 정도 놓고 두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우리의 바둑실력은 내가 흑을 쥐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 원인은 간단했다. 나는 시골에서 기초 없이 어른들이 두는 바둑을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나의 바둑 실력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한 뒤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김황조는 바둑책과 기원에서 지도를 받은 덕택으로 기초실력이 튼튼해서 바둑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었다. 나도 나중에 몇 개월 동안 서적과 기원에서 기본실력을 배워가며 도전해보았지만, 바둑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끝내 포기

하고 말았다. 옛말에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골프의 황제라고 일컫는 타이거 우즈도 가끔은 슬럼프에 빠져 그의 골프성적이 엉망일 때가 종종 있다. 한번은 골프 저널로부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조언을 해보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다. 이처럼 인위적이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슬럼프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기초로 돌아가고, 기본 틀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는 이어서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근본 혹은 기초실력의 점검이다.”라고 하였다. 골프 황제로 불리는 그도 항상 개인코치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언급하면 그것이 운동이든 공부든 반드시 기초실력이 있으면 발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이다. 내가 7년 동안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문교부 유학영어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고 떨어진 이유는, 어디까지나 영어기초실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내 평생의 친구인 김황조는 만날 때마다 나하고 바둑을 두자고 하지만, 질 것이 뻔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가능한 이 친구하고는 바둑을 안 두게 되었다.

### **금전과 관계된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3가지 비결**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삼촌(김인구)이다. 그는 우리 집안의 다른 어른들처럼 가난했고 못 배웠으며 노동과 소상인

으로 일생을 마친 분이다. 그러나 내가 외롭거나 쓸쓸한 날에 내 기억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돌아가신 삼촌이다. 그러기에 나는 삼촌이 평택에서 허리를 구부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움막집에서 가난하게 사실 때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4년, 한번은 삼촌의 부름을 받고 평택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희의 고등학교 진학을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무희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재력이 없었던 삼촌은 졸업하고 취직될 수 있는 고등학교 원서를 구입해서 보내라는 부탁이었다. 나도 나의 장래진로문제로 무척이나 고민할 때였고 또 대학원생인 관계로 거절하면서 무희의 학교에 가서 교사들과 상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삼촌은 내가 누구와 상의하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하던 졸업하고 취직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원서를 사서 보내라는 부탁만 되풀이하셨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들과 상의한 후에 수도공고입학원서를 구입해서 평택으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갔었다. 그러나 보내기 직전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공과를 내 사촌 동생에게 추천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수도공고입학원서는 버리고 선린상고 원서를 사 보내는 바람에 무희의 일생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다. 무려 반세기 동안 단 한 회사의 금고지기를 하면서도 살아남은 무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한 회사에서 거의 50년을 근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놀랍게도 그의 겸손, 성실, 정직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일생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임을 늘 자

부해왔지만, 나를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나에게 금고 열쇠를 맡긴다면 돈을 슬금슬금 빼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무회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책임지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심성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여기에 나의 둘째 형 둘째 딸인 진선이도 무회 못지않게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것은 한국에서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심부름을 항상 선한 심성의 소유자로 겸손, 성실, 정직함으로 수십 년 동안 불평이나 얼굴 붉히지 않고 항상 도와준 사람이 바로 진선이기 때문이다.

‘겸손, 성실, 정직’은 금전과 관계된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세 단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고, 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는 성의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정직이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솔직한 것, 즉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결코 속이지 않는 심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겸손, 성실, 정직 때문에 한 중소기업체에서 50여 년 동안 근무하고 2013년 3월에 정년퇴직했다.

## **서양은 거래중심의 사회이고, 동양은 관계중심의 사회**

내가 참으로 어렵게 미국에서 공부할 무렵, 경영학과교수가 “서양은 거래중심의 사회이고, 동양은 관계중심의 사회”라는 말을 종종

들려주었는데 아직도 그 일깨움은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미국은 원래 사제시간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거래중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 어떤 강의 과목은 종강하고 나면 사제간의 관계도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 특히 선생과 제자 간의 관계는 관계중심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된다. 점차 한국도 세계화의 물결에 휘말려 서양화되면서 사제시간의 관계가 옛날만큼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나누듯 두텁지 못하고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사회에서 볼 때는 신기하리만큼 아직도 한국에서는 사제시간의 관계가 친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나에게 배운 학생들을 대충 머릿속에서 헤아려 보았더니 통계적으로는 수천 명에 이른다. 물론 내가 가르친 대부분의 학생은 미국인이다. 취직이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나의 추천서를 받아간 사람도 거의 모두 내 과목을 택했던 미국 사람들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에서 교직 생활을 40년 남짓 하는 동안에 미국학생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나, 그 흔한 크리스마스카드 한 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처럼 어디까지나 미국은 거래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다.

문화적인 차별화에서 오는 현상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디에서나 내 과목을 택한 한국 사람들은 가끔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또 수십년이 지난 뒤에 정말 우연한 만남에서도 예기치 못할 정도의 과분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서도 임광토건의 전 대표이사인 임

재원 사장과와의 인간적인 친근한 관계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사제지간의 관계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는 따뜻한 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1980년도 우리 학교 경영학 석사과정을 거쳐 간 한국학생이 30여 명쯤 되는데 임재원 사장도 그중의 한 명이다. 나와 그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택해야 하는 전공필수과목으로 내가 담당한 <기업금융론>을 선택했고,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내 연구실에 찾아와 한두 번 상담한 것이 전부이다. 사실 임재원 사장이 학생으로 강의를 받는 동안에 내가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고 또 그에게 특별히 기억할 만큼의 보상이나 우대를 받은 적도 없는 그저 교수와 제자 간의 단순한 관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속적인 사제지간의 관계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풍을 가로지르며 바람 속을 질주해온 내 삶을 반추하는 시간대에서 지나쳐온 삶을 잠시 뒤돌아보다 가끔 그와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나마 계속되는가를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을 일이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존경받는 선생이라면, 학생들의 사상을 바꾸거나 그들의 맑은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내가 임 사장의 발상을 전환시켰거나 또 그의 사상과 영혼을 움직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교사들은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미래의 꿈인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지도교수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끔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만날 때마다 임재원 사장은 우리 학교에서 보낸 3년 동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반면, 또 외로웠던 시기라고 독백처럼 되뇌고 있다. 그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 땅에서 같은 피가 흐르는 조선인의 혼이 간직된 한국교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스승으로 대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하간 나는 그와 같이 신뢰성이 깊은 좋은 제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이고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좋은 사제지간이란 오랜 포도주와 같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맛과 향기를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광토건은 국내 건설면허 1호 업체로 시공능력 40위의 중견 건설사이다. 임광토건은 1927년 5월 창업주 임헌록 씨가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설립한 임공무소를 모태로 한 유서 깊은 회사다. 임씨의 아들 임광수(송곡) 명예회장이 물려받아 1956년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바꾸고 도로, 항만, 지하철 등 공공 토목공사 위주로 사업을 해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3세 경영자인 임재원 대표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해왔다. 임광토건은 창업 이래 90여 년간을 끊임없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기업역량을 키워왔으며, 건설한 성장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건설역사를 선도해왔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혁신전략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의 연구개발 및 녹색성장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개인사업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송곡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송곡은 모교 서울공대 기계공학과 동창회장(1976~1985)을 시작으로 공대 동창회장(1998~2002)을 거쳐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총동창회회장을 맡아 거의 40년 동안 동창회 일에 봉사했다. 2011년에는 새 동창회관(장학빌딩)을 세워 동창회 보유재산 1천억 시대를 구축, 서울대 동창회 중흥의 원년을 열었다. 특히 세간에 떠들썩했던 서울대 폐지론을 무산시켰고, 역사기념관 건립, 120사 편찬, 장학연구지원사업 등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임광수 명예회장이야말로 서울대를 위해 태어났고 서울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동문들의 후원금을 모아 마포에 지은 장학빌딩은 서울대의 장학연구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 생기는 연 40억 중 25억 원은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15억 원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임광토건은 2011년에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2012년에 기업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임광토건이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감에 따라 임재원 사장은 자연히 사장을 사임하고 법원에서 기존 공동대표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상호도 임광토건 주식회사에서 글로웨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몹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재원 사장은 임광토건에서 물러났지만 새로 설립한 임광개발 주식회사를 통해서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 참된 스승의 의미와 접근

이처럼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학교에 있을 때만 일시적인 관계로 맺어지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래간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생과 스승의 차이와 학생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끌어올리는 정성스런 강의를 하면 선생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영혼까지 움직이면 스승이다.” 이처럼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면 학생이고 그 영혼을 움직이면 제자이다. 이 점에서 존 러스킨의 “무관심은 죄악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죄악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지적처럼 무관심이야말로 비인간성의 핵심이다. 바로 이 같은 지적은 이 땅의 스승이라면 반드시 기억에 담아두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6세에서부터 22세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나 자신도 학생 때는 몰랐어도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며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선생을 한두 명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많은 학생을 줄곧 가르치다 보면 몇 명의 학생한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는 많지만,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는 말과 빗대어져서 ‘선생과 학생은 많지만, 스승과 제자는 실로 드물다.’라는 말이 보편적인 말로 그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예전과 같은 사제지간의 끈끈한 관계가 사라진 지금, 그나마 의식이 깨어있는 극소수의 이들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을 무의미하고도 하찮은 독백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 관계중심의 사례

만약 내가 사회학과 교수였다면 관계중심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2012년 여름에 있었다. 40년 동안 단절되었던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모처럼 4박 5일간 미국 서부지역을 관광하였다. 그것도 모든 준비와 비용을 미국과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 부담했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 팀 선교회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관동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와 학생들이다. 초청받은 교수들은 김택용(신학), 이무용(영문학), 최길순(법학), 김석희(경제학), Ross Beach(선교사)와 John Rathbun(선교사) 등이다. 마지막 날 재상봉을 할 때 두 선교사는 무척 감동한 것 같았다. 서양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재상봉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이들이 감동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재상봉 이후에도 나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전인철, 염일부, 강덕병이다. 전인철 목사는 관동대학 성문과를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생명의말씀사'라는 성서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염일부는 관동대학 상학과를 나왔지만, 목사가 되어 지금 '서울강북교회'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나이로 치면 염목사의 조카쯤 되는 강덕병은 강릉출신이지만 관동대학 출신은 아니다. 그는 한때 관동대학교를 운영했던 TEAM(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선교회에서 세운 '서울중앙복음교회' 담임목사이다. 나는 서울에만 가면 몸은 지치고 피곤하여 자꾸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참고 일어나 두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진다.

재상봉 때 내가 만난 40여 명 가운데 왜 이 세 사람과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고 유명한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보다 규모도 적고 이름 없는 목사가 시무하는 강북교회나 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면 왜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생각해보았다. 위 세 사람은 전형적인 ‘감자바우 촌놈’ 같고 나는 전형적인 ‘문경 촌놈’ 같기 때문인 것 같다. 감자바우는 “감자바위”라는 경상도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물론 감자바우는 강원도 사람들을 일컫는 속어이다. 감자바우는 감자 먹고 자란 사람에서 나온 말로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다. 문경 촌놈이란 내가 대학 때 동기들이 지어준 별명이나 내가 전형적인 촌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신나는 노릇이다. 천성이 촌놈이라서 그런지 촌놈의 천성을 가진 이들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하다. 누군가와 서로 공감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깊어질 수 있다. 깔끔한 인간은 깔끔한 인간과 사귀고 촌놈 같은 인간은 촌놈 같은 인간과 사귀다. 그것은 우선 마음이 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사람들이라고 해서 인맥이나 학연을 경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맥이나 학연은 거래의 중요성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임시관계에 불과하다. 하나의 실례지만 성우회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같은 학교 출신으로 인해 맺어진 학연은 영구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제지간의 재상봉행사는 1973년에 성문과를 졸업한 전인철의 주선으로 그때의 관동대학졸업생들이 2009년 조직한 성우회라는 동문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동문 간의 우의뿐만 아니라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모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졸업생들의 스승에 대한 배려는 유별나다. 학교의 졸업생들이 졸업하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사은회라는 모임을 가진다. 대신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교직원과 가족들의 앞에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가진 학생들을 인정하는 시상식을 가진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스승을 위해 하는 행사가 없다는 것이다. 조금 혹독하게 말하면 졸업으로 선생과 학생 간에 지식의 판매와 구매가 끝나기 때문에 사제지간의 관계는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 준비 소홀로 놓쳐버린 기회

비록 나는 관동대학에서 4년간만 근무했지만, 내 일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때였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쯤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다. 까닭에 오마르 이븐은 우리 인생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를 “뺏어버린 말, 놓쳐버린 기회, 흘려버린 시간, 쏘아버린 화살”로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나에게도 장학금으로 미국유학을 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탓에 다 놓쳤고, 그나마 관동대학에서 4년 동안 미국유학 준비를 한 관계로 고학이긴 하지만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

1965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박기혁 교수와 한기춘 교수, 두 분

이 미국 AID로부터 한국농지개혁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 받았다. 상경대학부속의 산업경영연구소 장소가 협소해서 서울역 앞에 사무소를 따로 얻어야 했을 정도였고, 여러 명의 직원과 조교를 채용해야 했다. 일 년 반 동안 계속된 이 연구에 연구조교로 참가한 나에게 이 연구 작업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 이유는 내가 농촌출신이었고 대학원 전공도 농업경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농업경제를 공부해서 한국농촌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1965년 봄부터 1966년 가을까지 1년 반 동안의 이 연구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연구조교로 일할 때, 전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할 기회가 두 번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성적도 좋지 않았고 영어 실력이 약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첫 번째 기회는 1960년대 중엽 경제개발 도상국가들의 고등교육 육성사업의 하나로 미국 AID에서 후진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미국에서 공부시킬 때였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장학금을 주고 그 조건으로 공부가 끝난 후에는 추천해준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따랐다. 이때 연세대학교에는 4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장학생 선발은 박기혁 교수와 한기춘 교수가 주축이 되었기에 나는 개인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었다. 다행히 나도 이 장학금의 해당자로 원래 추천 군에는 포함되었으나 영어실력이 약하여 탈락하고 말았다.

또 두 번째 기회는 농지개혁연구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AID로부터 나온 연구자금이었기 때문에 박 교수와 한 교수는 AID한국

지부의 미국직원들과 자주 접촉을 했고 연구보고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박 교수는 연구가 끝날 무렵 “장학금으로 미국유학 갈 기회가 생겨서 주선했으니 잘 준비해서 AID한국지부장과 직접 만나보라.”고 했다. 그때까지 나는 미국인과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영어실력이 좋지 않았는데 듣기와 말하기가 특히 부족했다. 며칠 동안 예상 질문과 해답을 만들어서 열심히 암기해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이름과 전공 등 몇 가지만 알아듣고 대답했을 뿐 다른 질문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알아들을 수 없었던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그 지부장의 질문은 무시하고 내가 사전에 준비한 것을 하나씩 답할 수밖에 없었다. 지부장과 내가 인터뷰하는 것을 가까운 곳에서 타자하며 우리의 얘기를 엿들은 한국 아가씨가 멋쩍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부장의 질문에 대답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핀잔까지 주었다. 결국, 그 아가씨의 통역으로 몇 분은 더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 예상대로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할 좋은 기회마저 그렇게 놓치고 말았다.

농지개혁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날 무렵인 1966년 여름, 한기춘 교수는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 전임강사로, 박기혁 교수는 관동대학 경제학 전임강사로 나를 추천해주었다. 이때만 해도 교수들은 공개 채용보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추천으로 신입교수들을 채용했기에 나는 어느 대학이든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다. 전북대학은 관동대학에 비해 모든 조건이 좋아서 주위의 사람들이 전북대학에 가라고 권했으며 또 모두들 그렇게 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전북대

학이든 관동대학이든 오래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미국에 갈 때까지만 근무할 임시직장으로 생각했기에 미국유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관동대학을 선택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 영어공부에 인생을 걸다

1966년 관동대학에 재직하면서 나는 영어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당시 강릉은 거주 인구도 적었고 그 부근에는 미국 선교사들 외에도 미군들과 미국 평화봉사단원 등으로 비교적 많은 미국사람이 살고 있어서 영어공부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미국 선교사들이 영어로 강의하고 한국 사람이 통역하는 통역강의에 내가 출석한 시간은 내 강의 시간보다 많았다. 저녁에는 미군들과 평화봉사단이 자주 드나들던 다방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가끔은 유학정보도 수집했다. 주말에는 선교사들과 평화봉사단원들이 무료로 주민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회화강습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경제원론 강의는 한국말로 했지만, 교과서는 영어 책을 채택했으며 다른 교수가 가르치던 상업영어도 자청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관동대학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것은 생활수단이나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미국 갈 유학의 준비기간이었다고 하는 게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다방에서 자주 만난 평화봉사단원 얘기로는 한국에서도 곧 사양 산업이 될 농업분야의 공부보다는 경영학을 공부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리고 돈도 없고 실력도 별로 없다는 나의 얘기를 들은 그들은 고학하기 좋고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몇 개 대학들을 소개해주었다. 마침 이때쯤 조교수로 승진되어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들에게 부여한 문교부 유학시험은 면제를 받았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때는 모든 유학에 필요한 시험이 서울에서만 시행되었다. 따라서 문교부 유학영어시험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 요구한 TOFL(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 대학원 적성검사시험 등을 보느라 서울을 너무 자주 왕래하여, 당시 결혼 초기인 아내로부터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그마저도 대부분을 철도청에 갖다 준다는 핀잔을 종종 듣기도 하였다.

### **인연이 없었던 동보 아가씨와 훌쭉이 총각의 로맨스**

내가 송실대학 3학년 겨울 방학 때 세브란스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교수가 되기를 소망했고, 또 그 와중에 미국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때는 결혼은 미국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대학원 다닐 때나 연구조교 때 그룹데이트는 몇 번 했지만, 연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교부 유학시험과 미국대학으로부터의 입학허가문제 때문에 나의 유학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볼수록 고학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를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처럼 고학으로 미국유학의 꿈을 지니고 있던 미혼 남자들은 미국에서 직장을 얻기가 쉬웠던 여성들로 약사, 간호사와 의사를 선호했다.

대학 3·4학년 때 생긴 위장병과 공부, 조교, 가정교사 및 유학준비 등으로 무척 바빴던 대학원생활로 나의 몸무게는 35kg밖에 안 되었다. 무엇보다 웃지 못할 일은 나는 그 당시 뚱뚱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날씬한 여자들은 전부 몸이 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대상에서 제외했다. 버스 안에서 가끔 뚱뚱한 젊은 여자를 보게 되면 호기심을 갖고 그 여자가 내리는 정류장에서 내려 뒤를 쫓아간 적도 몇 번 있었을 정도였다.

나는 신촌 부근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10여 년 동안 하숙생활을 했다. 하숙을 전문으로 하다시피 한 가정에서는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연세대생과 이대생을 섞어 하숙과 자취방을 세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학원 재학시절의 하숙집에는 연세대 남학생 6명이 하숙을 했고 이대 약대와 의과대학에 다니던 대구에서 온 자매가 자취를 하고 있었다. 둘 다 뚱뚱했지만, 그 당시 약대 4학년이었던 언니는 그때까지 내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였다. 아마 이 아가씨의 몸무게가 100kg쯤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연세대 하숙생 가운데 군복무도 마치고 대학원에 다니는 나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20대 초반인 학부생들이었다. 깃꿎은 학생들은 공공연하게 뚱보아가씨를 탱크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이 아가씨는 내가 결혼 상대로 원하는 모든 이상 조건-건강, 적당한 키 및 전공-을 소유하고 있었다.

결국, 서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름방학 직전 하숙집 가까운 다방에서 몇 번을 만났고 내가 미국유학을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상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모두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아가씨도 학교가 늦어져서 다른 동급생보다는 나이도 많고 부모의 재촉으로 결혼상대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며칠 후에 대구의 집으로 내려가는데 함께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내심 기뻐다. 그러나 자기는 영어는 잘하지도 못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란 말을 듣고는 다소 실망을 했지만, 겸손의 말로 생각하고 그 점은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며칠 후에 대구로 함께 가기를 약속은 했지만 우선 입고 갈 옷이 없어서 큰 걱정이 되었다. 고학할 때라 입을만한 옷도 별반 없었고 남대문시장에 가서 중고품을 사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나한테는 살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할 수 없이 친구의 양복을 빌려 입고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키와 체격이 나보다 너무 커서 친구의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본 나와 그 친구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친구는 그 당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고바우라는 만화에 나오는 사람 같으니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가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배우자로서 최고 이상형의 아가씨 집에 가는데 양복을 안 입을 수도 없었다.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었는데도 이 똥보아가씨는 몹시 즐거운 표정을 해서 나의 여행은 무척이나 고무적이었다.

아가씨의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 그녀의 부모들은 여러 가지 고문형식의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하기가 젊은 사람

이 키 165cm에 몸무게가 35kg밖에 안 되었으니 무슨 중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내가 머물고 있던 친척집으로 오면서 들려준 그녀의 말은, 자기는 나를 좋아하는데 부모들이 너무 반대해서 부모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별의 전언이었다.

큰 낙심을 하고 대구를 거쳐 고향인 문경에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자매는 다른 집으로 서둘러 이사를 했고, 하숙집의 식구들과 하숙생들은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똥보와 흘쭍이의 결혼은 불발로 끝났고 그 충격으로 나는 너무 억울해 며칠을 두고 소리 내어 울었다. 아마 중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이나 그렇게 울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같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결혼은 하지 않기로 내심 굳게 결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만약 그녀 집에서만 좋아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렸어도 나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써는 나의 일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여자였기 때문이다.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무조건 똥똥하면 건강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뒤였다. 나는 지금까지 '영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관계가 있는 똥보와 결혼했으면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가끔은 지녀보았다.

누구나 젊은 한 때,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한두 가지 틀린 선

입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의도 않고 조급하게 결정하면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은 이 탱크 아가씨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직도 병약한 나에 대한 인상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똥보 아가씨와 흘쭙이 총각은 처음부터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다. 흘쭙이 총각은 몸이 똥똥할수록 건강한 것으로 착각했고 똥보 아가씨는 몸이 날씬할수록 허약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30이 넘은 데다 미국에 가는 것도 계속 늦어지자, 결국은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기로 작정하고 결혼할 아가씨를 물색하게 되었다. 1966년 겨울 방학 때 박기혁 은사의 사모님(이창희) 소개로 현재의 아내와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농업을 전공한 박 은사와의 소중한 인연은 내가 농협에서 몇 개월 근무하고 대학원에 복귀했던 1963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경제학과의 학과장인 박 교수는 나를 경제학과 조교로 채용했고 이때부터 몇 년 동안은 그의 모든 원고를 내가 손질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고등학교에 다녔고 대학과 대학원 공부는 미국에서 했기에, 교수 생활 초기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나의 도움이 다소 필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 교수의 첫 번째 교과서 『농업경제원론』 원고를 정리하던 1965년 초에 나는 박 교수 댁에서 3개월 동안 숙식을 함께하면서 도와드렸기에 나에 대한 모든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내 아내는 박 교수 누님의 따님이었기에 급속도로 진전되어 결혼은 소

개받고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큰아이는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이름은 기강이다. ‘기’자는 우리 집안의 돌림자이고 ‘강’은 강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 무렵 박 교수는 새문안교회 장로로 시무하였고, 영어도 잘하고 또 연세대 경제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그를 관동대학 이사로 영입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한동안 관동대학 경제학 교수들은 나를 비롯해서 전부 박 교수의 제자들이었다. 물론 내가 관동대학에 취직한 것과 결혼을 한 것도 전부 박 교수가 주선한 것이었다. 그는 1969년 11월에 관동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나는 유학 준비관계로 취임식에 참석을 못한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걸린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 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그동안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 전공을 바꾸게 한 미 평화봉사 단원

1960년대 후반 영동지방의 소도시인 강릉에는 미국 선교사, 평화봉사단원과 공군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 그 당시 강릉에 선교사들이 많았던 이유는 미 선교단체인 팀 선교회가 이 지역 유일의 사학인 관동대학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미 공군의 최전방 전투비행단이던 강릉공군기지(일명 강릉비행장)는 미 5공군 1993부대가 내가 관동대학에 재직하던 1960년 말까지 주둔하고 있었기에 많은 공군 병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강릉은 신라 당시

하슬라로 일컬어진 고도였지만, 지정학적으로 강릉은 산간벽지와 인접해있어서 당시에 미 평화봉사단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당시 영동지역의 수도 격인 강릉에는 주말이면 미 평화봉사단원들과 공군 병사들이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서로 만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자유스러운 일상이었다. 특히 강릉에서 제일 크다는 돌체다방에는 주말이면 미 평화봉사단원과 공군들이 유난히 많이 들락거렸다. 나는 영어 중에서 제일 약했던 듣기와 말하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이 다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혼자 있는 미국사람만 있으면 용기를 내어 무조건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루는 약속한 친구가 안 나와서 혼자 있던 평화봉사단원과 오랜 시간을 대화할 수 있었다. 나의 미국유학에 관한 고충을 얘기했더니 이 봉사단원의 얘기로는 미국에는 농업은 이미 사양 산업이어서 대학과 정부에서 농업경제학 부문의 지원을 줄이고 학생입학수도 줄이는 중이기에 외국학생으로서의 입학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그때까지 고지식한 나는 몇 년 동안을 농업경제학 석박사 과정이 있는 미국 대학에만 응시했고, 그 결과 나의 응시는 보기 좋게 거부당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내가 미국유학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심정이어서 농업경제를 포기하려고 내심 마음먹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다방에서 만난 봉사단원이 경영학은 앞으로 유망한 전공 분야일 뿐 아니라 입학하기도 쉽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는 즉석에서 전공을 농업경제학에서 경영학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처럼 미국의 대학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때여서, 봉사단원에게 내

가 고학을 할 수 있게끔 큰 도시에 있는 대학들의 정보를 다음 주말에 알려달라는 간청을 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 주말에 친절한 그 봉사단원은 큰 도시에 있고 경영학이 있는 대학 몇 개를 소개해주어서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뒷날에 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와 가족들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KAL YS-11여객기 납북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관동대학에서 사임하고 대한항공기 편으로 상경했다. 정말 재수가 없었다면 나와 가족들이 납치된 대한항공기를 탈 수도 있었기에 사람의 운명이란 경우에 따라 밤낮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관동대학에 근무했던 1960년 후반기 강릉 부근에는 북한의 대마대한 군사적 도발로 위기가 도사린 현상이었다. 이때의 체험이 40년 지난 후에 북한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미국은 대규모 군사, 경제, 기술원조와 선교활동을 통해서 가난한 한국에 평화와 경제개발을 지원하였고, 북한은 비인도적으로 대규모 대남도발사건을 일으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살펴보면 마치 전쟁영화를 수없이 되풀이해서 보는 것 같다.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도발사건을 60년 이상을 계속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기의 고비마다 한미 양국은 무력시위, 경제제재 및 강력한 경고로 북한에 대응했다. 이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도발사건에 한미



양국이 보복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은 어디까지나 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하나의 나무로 보기보다는 숲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라는 발언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단초가 남북관계 개선이든 북한의 격변 상황이든 간에 중국은 남북의 통일과정을 관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어찌 되었건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의 통일을 경계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정세를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우려가 북한의 계속된 만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체제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다. 까닭에 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도발사건으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는 있지만, 남북이 대치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 같은 약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과감한 대남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을 불가피한 국제정치의 흐름이며 추세로 유추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통일 한국은 미·중·러·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될 수 있는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사전에 아무런 조정 없이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북한지역에 진입하면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꿈이 이루어지다

내가 1963년부터 그렇게 원했던 미국유학의 꿈이 결국 이루어져서 1969년 12월 28일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수중에는 단돈 200달러를 들고 미국에 와서 6년 동안 고학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생을 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석사학위는 미국사람들도 위험해서 싫어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사고가 제일 많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경비생활로 마칠 수 있었다. 박사학위는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마칠 수 있었다.

1998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 때 강릉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가 전세로 살던 집 근처에 가긴 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 변해서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관동대학을 방문했을 때에도, 내가 근무할 때 있었던 조그마한 두 건물은 전부 없어졌고 큰 건물들이 여기저기 건립되어서 학교가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무처에 들어서 내가 1960년대 말에 관동대학에서 가르쳤다고 하고 그 당시에 혹시 근무한 직원이나 졸업생을 한두 명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직원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그 옆에서 조용히 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이 그 당시 교수 한 분은 아직 강릉에 살고 계시고, 졸업생 한 명이 지금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안 되어 결국 만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관동대학에 근무할 당시에 성문과를 졸업하고 관동대학 교수가 된 엄창섭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그는 이 책을 자신의 책처럼 수정해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 방향기를 상실한 난파선에 승선하다

5:16 군사 정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와 일부 장교들이 장면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이유로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박정희는 이때부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되었던 1979년 10월 26일까지 18년 동안 한국을 통치했다. 이 18년 기간 중 1인당 연평균 소득이 매년 6%씩 증가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한국이 이 정도나마 살 수 있는 것은 박정희의 개발독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비평가들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사는 것이 바로 박정희의 개발독재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박정권을 평가할 자격도 없고 또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60년대 군사정권이 시대의 정신을 잘 인식하고 그들의 목표(반공과 경제개발)를 일방적으로 정해 하향식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였던 1960년대가 저물어 가던 1969년 12월에 뜨거운 가슴에 청운의 꿈을 간직하고 나는 유학생으로 마침내 '기회의 땅' 미국에 도착하였다. 1960년대는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의 숙원과 반면에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적인 압제의 그림자가 공존했던 아픔의 시대다. 이때 한국경제정책은 국가, 은행 그리고 재벌의 긴밀한 제휴에 기인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된 행위자였다. 또한, 억압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값싼 인력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여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을 이루던 시기였다.

이 땅의 정객이나 위정자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반공의 구실로

독재정치를 정당화했고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데모를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현실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과 정부 관리들이 함께 추진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 및 서방세계의 경제나 기술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컸던 때였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직장이나 공부를 위해서 외국으로 가기를 원했고 정부에서도 외화벌이와 고등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이들의 외국진출을 적극 권장했다.

특히 1960년대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시기였기에, 몇몇 권력자나 극소수의 재벌은 예외였으나 대중은 하나같이 춥고 험벗고 가난으로 얼룩진 궁핍한 생활에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자비나 정부장학금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나처럼 고학으로 미국유학에 도전했다. 그와 같은 까닭에 고통을 감내하며 저마다 어려운 결심을 하였으나 많은 유학생이 경제사정 때문에 꿈과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공부를 포기하였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의 경우도 학교성적이나 영어실력, 그리고 금전 등 유학에 필요한 어느 조건도 그렇게 여유 있게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주위의 여건에 비춰볼 때 유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심 있는 젊은이들이여! 조국이 필요한 외화벌이와 선진 지식 습득을 위해 외국으로 가자.'라는 열풍이 젊은이들을 자극하여 취업이민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미국유학을 원했다. 이러한 사회의 풍조에 마치 프랑스의 박물학자 자크 마르탱이 "현대인은 방향기를 상실한 난파선 같다."는 지적처럼 삶의 좌표나 내일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 나도 물결에 밀리듯 그렇게 미국에 왔다.

장학재단의 도움이나 학비보조도 없이 고학으로 유학하는 것을 알게 된 관동대학의 선교사들이나 가까운 동료들은 공부를 마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휴직계를 내라고 권유했지만, 나는 사표를 내고 말했다. 나는 걱정해주는 주위의 고마운 분들에게 유학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한국에 안 돌아올 것이고, 공부를 마치면 귀국해서 돈을 많이 받고 서울에서 교수생활을 할 결심이기 때문에 관동대학에 휴직계를 낼 필요가 없어서 사표를 낸다고 하였다.

이 무렵 갓 결혼을 하였기에 집안의 어른들이나 처가에서 모든 살림도구는 두고 유학을 다녀오라고 했다. 그러나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내의 결혼반지를 포함해서 전부 팔았고 팔 수 없는 물건들은 전부 어려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 때 처가에서 해준 이불과 식기 등의 살림도구는 차마 팔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었다. 내가 이렇게 배수진을 친 이유는 관동대학에 사표를 낸 이유와 비슷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준 아내와 돌도 안 된 큰 아이 캔은 처가에 남겨두고, 1969년 말 미국행 서북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마치 『파랑새』의 저자인 마테를링크의 “운명아, 내가 간다. 저리 비켜라.” 는 말처럼 그렇게 무모할 정도의 도전을 시도하였다.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고학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바로 나만의 결단에 의한 배수진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아 목동아

온종일 양을 돌보던 소년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이리가 나타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몇 번 그런 거짓말로 동네 사람들을 속인 뒤 진짜 이리가 나타나 구원을 청했으나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결국 소년은 이리에게 물려갔다는 우화(寓話)가 있다.

나는 겨우 철이 들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약 15년 동안 소치는 소년이었다. 내가 소학교 입학 몇 년 전 우리 집에는 어미 소와 송아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어미 소는 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했고, 송아지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 키웠다. 어미 소와 송아지를 이산 저산으로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돌보는 것이 내 임무였다. 이렇게 소를 돌보는 일은 방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온종일 양을 돌보던 소년이 너무 지루해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동네 사람들을 여러 번 속였다는 우화를 실

화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온종일 혼자 있자니 심심해서 나와 순한 송아지는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맞대고 밀고 당기는 장난을 했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리에 쇠버짐이 생겼고 집에서 만든 약을 사용했지만, 더욱 악화되었다. 쇠버짐이 온 머리로 감염되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을 받고 난 후 한동안은 머리가 전부 빠졌고 나중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는 했지만, 꽤 큰 8자형의 대머리가 생기고 말았다. 그 이유는 쇠버짐이 심한 곳에는 고름을 흡수하도록 8자형의 심지를 사용했는데 그곳의 머리카락 뿌리가 죽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 8자형의 대머리 때문에 중학교 때는 내 이름보다는 ‘뼈꺼진놈’으로, 고등학교 때는 ‘썩은 2세’로 더 잘 알려졌다. 양치기 소년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소치기 소년은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송아지와 장난하다 8자형의 대머리를 얻었다.

그 시절 아버지와 형들은 농사를 하셨고, 나는 산과 들 그리고 강변에서 소치는 소년이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수들은 양계를 하신다고 앞마당에 닭을 키우셨다. 그리고 뒤뜰에는 부추, 호박, 고추를 심으셨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과 보리밥을 먹으며 철없이 뛰어놀던 이때가 나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야말로 꿈같은 향토냄새 속에서 무공해 시대에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이었다.

몇 년 전 내가 고향을 찾았을 때 혼자서 앞산으로 올라가 야생화를 따기도 하고 산등성이에 앉아서 영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낭만이 넘치던 고향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변했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변해서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라디오 한 대 없었던 동네에 TV, 수도, 컴퓨터 등 최신문명의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을이 되었다. 영강변의 백사장은 논과 밭으로 변했고 만인의 방목장이었던 산과 들은 출입금지구역으로 변했다. 도로와 마을 사이의 오솔길은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넓은 길로 확장되었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다. 버스로 한 시간 걸려 넘던 문경새재는 이제 터널을 통해서 3분이면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동네 주변의 산들, 언덕들, 강과 들판을 통해서 나에게 낭만과 꿈을 주었던 자연환경은 내 마음속에만 남은 유물이 되고 말았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요즘처럼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 과거의 추억을 더듬어보게 되나 보다. 요즘 날로 발전해가는 산업의 다양화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오염'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자동차의 움직임, 또 수많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각종 폐기물과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들, 그리고 곳곳에 함부로 버려진 각종 폐품들, 우리 주변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찬다는 생각이 앞선다. 어디를 가나 쓰레기더미, 폐차장, 폐기물 창고, 각종 오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불행스럽다.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토양은 중금속에 죽어가고 있고, 대기의 환경도 열악하여 호흡기 질환의 발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공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연을 변화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다. 발달한 건축·토목기술로 많은 인공 구조물로 포화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선호하고



있다. 자연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광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감상하며 즐기는 시대가 되면서 도시 내에서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도심 내에 공원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술을 앞세워 개발하다 보니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환경을 분리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연결된 관계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현대에 있어 자연환경과 인간은 이러한 관계이다. 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건의 묘수를 찾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찾은 고향을 허전한 마음으로 떠나면서 내가 방목장으로 사용했던 도로 옆 산을 지날 때 <아목동아>라는 노래의 가사가 내 머리를 스쳐갔다. 이 노래는 나에게 어린 시절 동무처럼 친근한 노래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언제 들어도 반갑고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노래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겨울에 도달하면서 들으면 더 슬프고 애달파지는 노래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 노래의 가사를 조용히 음미해보면 언젠가는 그리운 모습들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따뜻한 소망이 눈물처럼 가슴 속으로 밀려온다.

## 아 목동아

1.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짜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산골짜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 목동아 목동아 내 사랑아.

2.

그 고운 꽃은 떨어져서 죽고 나 또한 죽어 땅에 묻히면  
나 자는 곳을 돌아보아 주며 거룩하다고 불러 주세요.  
네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 내 묻힌 무덤 따뜻하리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여 주면 네가 올 때까지 내가 잘 자리라.

제2장

경비, 청소부에서 박사, 교수까지

나는 1960년대의 대부분을 미국유학준비에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드디어 그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페퍼다인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1969년 12월 말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환송을 받으며 희망찬 마음으로 미국행 서북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탑승한 지 몇 시간 후부터는 감회보다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내가 직면한 어려움은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처럼 말이다.

첫 번째 어려움은, 12월 중순에 도미하려던 계획을 예기치 못했던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12월 말로 연기시킨 탓에, 우연히 해결되었다. 대학의 개강은 1970년 1월 초로 되었기에 몇 주일 일찍 이곳에 도착했다면 갖고 온 얼마 안 되는 돈을 전부 쓰고 빈털터리로 미국에서 첫 학기를 시작했을 뻔했다.

또 두 번째 어려움은 교통수단과 숙소 등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페퍼다인 대학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개학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의 교통이나 숙소의 문제 등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마침 삼촌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며칠을 휴식하다 뉴욕으로 가게 된 한국 유학생의 옆자리에 앉게 된 인연으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참으로 우연이지만, 고마운 유학생과 그의 삼촌의 도움으로 개강 때까지 교통, 숙소와 그 외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다.



## 경비와 경영학 석사

무엇보다 세 번째 위기는 첫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 그리고 책값 등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조달이었다. 일주일 동안 학교 밖에서 거처 했기에 막상 개강 무렵 내 지갑에는 내가 한국에 갖고 온 200달러의 절반인 100달러밖에 없었다. 내 지갑에 남은 100달러와 한 과목 등록금에 해당하는 예치금만으로 견딜 것을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걱정은 태산이었다. 예고된 결과이지만 도미준비에 필요한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결혼반지까지 팔아야 했고 고학 외에는 다른 곳에서 학자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향학열에 불탄 나머지 미국유학을 무모하게 시작하였다.

미국대학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등록과 기숙사 입사는 먼저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나중에 청구서를 받아서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 내 주머니에 남은 돈은 책과 학용품을 사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9학점을 신청하고 기숙사에 입사는 했지만 당장 필요한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그저 막막한 상태였다.

일단, 대학등록을 끝내고 기숙사에 입사하자마자 외국학생상담소 직원들과 등록 때 알게 된 한국 유학생들과 만나서 교내 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문제를 상의해보았다. 그러나 나의 처지로는 그 누구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 이 같은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 번째 감당기 어려운 위기는 세브란스의대를 나와 세인트루이스 대학병원의 인턴으로 있던 나의 윗동서(박득재)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 **잇을 수 없는 1970년, 그해 여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겨울방학이 긴 데 비해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다. 동서의 도움으로 봄 학기를 무사히 마친 나는 여름방학 4개월 동안(5월부터 8월까지) 가을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첫 직장은 1970년 4월 말 여름학기 시작과 함께 페퍼다인 대학에서 첫 학기 때 함께 공부했던 연세대 정외과의 출신인 유천근의 소개로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하였다. 일주일에 5일 동안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씩 노동을 하는 정규직장인데 고용계약 때 2주마다 나오는 임금의 액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무척이나 놀랐다.

여름방학 4개월 내내 이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축할 돈을

계산해보았더니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학비는 고학생의 신분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했다. 나와 파트너가 하는 일은 플라스틱 두루마리가 조립대에서 나오면 그것을 들어서 받아서 하급 파트너가 달리(손수레)로 그 두루마리를 지정된 장소에 옮기는 단순 작업이었다. 내 파트너는 체격이 나의 2배나 되는 흑인이었는데, 아무리 두루마리가 커도 한 손으로 자기 쪽 두루마리를 가볍게 들어 올렸지만, 체격이 허약한 나로서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 동원해도 매우 힘겨운 일이었다. 더구나 달리로 롤을 옮기는 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는 했지만, 막상 나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겨운 육체노동이었다. 내 파트너는 다음 롤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쉴 수 있어도 나는 단 1초도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었다.

마침 첫 주 4일 동안은 작은 롤이 나와서 큰 탈 없이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너무 힘에 겨워 계속할 것 같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은 걱정하던 큰 롤이 나왔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여서 달리로 플라스틱 롤을 무리하게 옮기다 플라스틱을 실은 달리와 함께 앞으로 쓰러졌고 발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나의 상관이 응급치료를 해주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나는 내심 해고될까 봐 걱정이 되어 별것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날 남은 시간은 내 파트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일을 마쳤다.

발등에 피는 별로 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붓고 상처 입은 부위가 아팠다.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을 사다가 치료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고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끝내 심한 통증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을 시작한 지 한 시간도 못

되어서 물을 옮기다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다. 이번에는 돌같이 단단한 플라스틱 롤이 가슴에 부딪히는 바람에 숨쉬기가 힘들어 정도로 가슴이 아팠지만, 모두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목욕도 하지 못한 상태로 피곤함에 지쳐 12시간 남짓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매일 밤 12시에 버스를 타고 하숙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몸 전체가 먼지투성이고 코에 들어간 먼지를 씻어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화요일에 출근은 했으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내 상관은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가보라고 했다. X-ray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 물리치료를 해주고 가급적 매일 치료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은 후에 다시 회사로 갔다. 회사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고 완전히 나은 후에 회사로 출근하라는 권고와 함께 무엇보다 나의 건강을 걱정하여 주었다.

뒷날에 거의 50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골프를 치다가 스윙을 잘 못한 탓에 가슴을 다쳐 미시간 대학병원 통증 전문치료의원에서 진찰하는 중에 과거에 갈빗대가 부러졌었는데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고 의아하게 전문의가 물어왔다. 그 당시 내가 플라스틱공장에서 작업 중에 가슴을 다쳤을 때 그 누구도 갈빗대가 부러졌다고 얘기해주지 않았고 나 또한 그 당시에 갈빗대가 골절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의 사고로 골절된 갈빗대는 수술을 앓고도 저절로 나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 인체의 오묘한 치유 기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주를 치료하고 회사로 돌아갔더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는 전보다 쉬운 일을 맡겨 주었다. 플라스틱 롤을 만들다 떨어져 나온 조각들을 큰 가위로 적당히 잘라서 기계에 넣으면 가루가 되어 나왔는데 이 가루는 플라스틱 롤을 재생산하는 데 다시 사용되었다.

사회학에서는 문명의 발전단계를 석기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 및 지혜시대로 구분지어 연구한다. 첨단기술의 선구지인 미국에서도 정보시대는 1980년 중엽에 시작했으니, 내가 미국에서 고학하던 1970년대는 산업시대의 절정기로 조립대에서는 기계가 노동자의 노동속도를 조절했고 다른 곳에서는 할당제를 통해서 노동속도를 조절했다. 하루에 플라스틱 가루를 6드럼씩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나의 동료는 쉬어가면서 해도 8시간 안에 자기 할당을 다 마치고 환담을 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쉬었다. 반대로 나는 식사시간과 공식적으로 쉬는 휴식시간도 줄여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저 4드럼 정도밖에 못 해서 감독자로부터는 거의 매일 꾸중을 듣는 실정이었다.

할당량을 못 채울 것 같으면 해고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식사시간, 공식휴식시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루는 너무 피곤에 지친 탓으로 플라스틱 자르는 큰 가위, 자르던 플라스틱 조각과 나의 몸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위기를 겪었다. 다행히도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가위와 플라스틱 조각을 함께 놓아 목숨은 구했지만 큰 가위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비싼 기계를 망치게 되었다.

퇴근할 때까지 몇 시간 남은 시간에는 청소를 하고 time card을 찍고 퇴근하려는데 감독이 자기 사무실로 나를 부르더니 “I will let

you go.”라고 하지 않는가? 무슨 뜻인지는 짐작했지만 나를 해고한다는 얘기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했다. 이 말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모든 이빨이 흔들리는데도 그동안 미루어온 내 잇몸수술을 한 후 치과 의사가 했던 “your remaining tooth will outlive you.”라는 말과 함께 내 일생에서 잊지 못할 두 가지 영어 문장이 되고 말았다. 비록 해고는 당했지만 나의 감독이었던 이 멕시코계 미국인의 기지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별로 큰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의 얼굴은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만약 해고한다는 직설법을 사용했다면 틀림없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내 치과 의사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머지 이를 간수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나머지 이는 나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한 그의 기지를 이해하는 데 몇 초가 걸렸다. 죽을 때라는 표현보다는 오래 산다는 표현이 듣기에 훨씬 좋지 않은가? 이때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내 머리를 스쳐 갔다. 이 속담 자체는 말을 잘해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지만 보통 말을 잘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 수없는 해고의 연속

플라스틱 공장에서 해고당한 후 보수가 좋은 공장에 취직을 몇 번 했지만 내 할당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1~2주 일하고 해고를 당하곤 했다. 나는 체격이 작고 어릴 때부터 무수한 잔병을 앓았기 때문

에 약한 체질이어서, 미국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공장의 노동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을 이때처럼 안타까워한 적은 없다. 주로 직장은 학교 직업소개소와 신문광고 및 첫 학기 학교에 함께 다녔던 한국학생들을 통해서 구했는데, 밤낮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직장을 구하는 데는 비교적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 뒤에도 여름방학 때 한 일은 식당 설거지 및 청소, 주유소 기름 넣어주기, 정원사 조수, 경비 및 광고지 돌리기 등의 일을 닦치는 대로 했다. 물론 자동차도 없었고 또 아무리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을 했지만 생각한 만큼의 돈을 저축할 수는 없었다. 주말이고 주중이고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쉴 새 없이 했기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해고를 여러 번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한두 달 일을 하고 저축한 돈을 계산해보았더니 한 과목을 택할 등록금밖에 모이지 않아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크게 상심하게 되었다.

## 아는 것이 힘이다

자동차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처지에 무모한 짓이라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6월 말쯤 아내와 큰 아이 캔을 미국에 초청하는 서류를 한국에 보냈다. 이때 필요한 아내초청 서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재정보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 학기만 공부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온 연세대 전기공학과 동기동

창인 최명수가 두말없이 보증을 서주는 덕택에 이 일은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

우리는 한 학기만 같이 공부했고 그것도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아내 초청에 필요한 재정보증을 선뜻 허락해 준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사실 우리네 삶에 있어 타인에게 재정보증을 서준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내가 송실대학 재학 중에 큰형이 남의 재정보증을 썼다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던 기억은 지금도 가슴에 늘 자리해 있다.

그해 7월 말쯤, 가을학기 등록도 알아보고 교내직장도 알아볼 겸 학교에 갔다가 경비실에서 일하는 첫 학기의 룸메이트를 우연히 만났다. 그 당시 내가 있었던 기숙사에는 한방에 두 명씩 있었고 방과 방 중간에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었기에 4명이 함께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입생 3명과 나를 포함해서 4명이 한 학기를 보냈다. 그들은 나이로 치면 자기들 삼촌쯤이나 되는 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그들은 학교 내에서 나를 위해 적당한 직장을 찾고 있었다. 경비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내 룸메이트는 경비실에서 지금 한 명을 채용하려고 광고를 냈기에 경비실장에게 이미 나를 추천해놓았다고 전해주었다. 그날은 첫 학기와 마찬가지로 3과목의 등록과 부부기숙사 입사신청을 마치고 또 경비직 인터뷰 날짜까지 잡아놓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경비실 간부 몇 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영어는 그만하면 되

었는데 이곳이 위험한 지역이라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군대를 갔다 왔고 또 태권도를 잘해서 흥기만 쓰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했더니 태권도 솜씨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시골서 공부하러 서울 온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 2학년 때, 동기들한테 빵 안 사준다고 몇 대를 맞고 화가 나서 태권도 도장에서 몇 개월 동안 체형을 익혀서 기본 동작을 알고 있었다. 몇 가지 동작을 해 보였더니, 모두가 웃고 박수를 치면서 자기들이 태권도 시범 때, 사범들이 한 것과 비슷한데 태권도를 몇 년 배웠으며 몇 단이냐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조금 계면쩍지만 과장해서 대답했더니 즉석에서 채용되었다. 그때 로스앤젤레스의 육체노동자 세계에서는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 사람이면 중국인의 쿵푸처럼 누구나 태권도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무렵이었다. 인터뷰를 가기 전에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고학한 한국학생들의 충고로는 인터뷰 중 적당한 기회를 보아 태권도를 잘한다고 하면 경비 취직은 쉽게 될 것이라는 사전 지식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경비는 정규직이어서 월급과 건강보험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전액면제를 받았다. 사실 내가 경비로 취직되었을 때까지 미국대학에서 풀타임 교직원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정보를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석사학위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도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보의 덕택으로 풀타임 교직원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세인트루이스 대학을 택해서 박사

학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불과 두 달 전에 초청했던 아내와 겨우 한 돌이 조금 지난 큰아이가 8월 15일에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 세 식구는 내 공부 끝났던 71년 1월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부부기숙사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자동차도 없고 공부할 학비도 없는 처지에 가족을 미국에 초청한 용기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 청소부와 박사학위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의 부부기숙사에는 빈 아파트가 없었고 또 자동차도 없어서 버스로 통학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얻었다. 개학 몇 주 전에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한 나는 학교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교내직장을 구하는 한편 신문광고를 보고 교외직장도 함께 찾고 있는 딱한 형편이었다. 몇 주 동안 작성한 직업신청서와 페퍼다인 대학에서 공부할 때 경비실장이 써준 추천서를 남겨둔 곳이 수없이 많았지만, 인터뷰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때, 대학은 새 학기 등록을 시작하였다. 개학을 며칠 앞두고 등록이 시작되어 3과목을 신청해놓기는 했지만, 이때쯤 미국의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이것으로 공부하는 끝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우리 속담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감에 싸여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개학 직전

에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청소과에 빈자리가 있으니 와서 인터뷰하라는 연락이 왔다. 다소 긴장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인터뷰에 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취업이 되어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게 되었고, 보험 및 생활비에 큰 걱정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나중에 들어서 뒤늦게 알았지만, 청소과 임원들 사이에서 아무리 외국학생이라 해도 박사학위과정에 있기에 청소부를 오래 할 것 같지 않으니 채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진 간부가 강력히 나를 추천해서 채용됐다는 것이다. 보수도 적고 고된 청소부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청소부를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오래 일할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내가 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다른 한국인들이 득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만난 미래 한국의 지도자들

1970년대 초반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앞으로 한국의 종교계와 학계 및 재계에 큰 영향을 남길 세 사람을 만났다. 이 세 사람은 박홍 신부, 김기영 교수 허창수 회장이다. 뒷날에 서강대학교 총장직에 10년이나 재임한 박홍 신부와 대학 캠퍼스에서 자주 지나치며 눈길을 마주하게 되었다. 박홍 신부와 우리 가족은 같은 기숙사에서 일 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내가 청소를 담당하던 건물에 있던 교목실에



자주 드나들던 박홍 신부와 자연스럽게 대면도 하게 되었다. 나는 박 신부의 덕택으로 이 건물에서 근무하던 교목실과 평화연구소의 직원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접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살던 부부기숙사 2층은 신부들 전용이었고 그곳에는 신부들의 출입이 허용된 생활필수품 창고가 있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청소하면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던 박 신부는 나를 이 창고에 몇 번 데리고 가서 원하는 물건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도 했다. 풀타임으로 공부했고 또 풀타임 청소부로 일했던 이때가 나의 일생 중에 제일 정신없이 바빴고 또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나를 청소부가 아닌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 대해준 그의 따뜻한 인간애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또 한 사람, 김기영은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내가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고학할 때 이 친구는 같은 도시의 워싱턴대학에서 장학금 수혜자로 수학하고 있었다.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초기에 명성 있는 강의와 빛나는 연구업적으로 한국의 경영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부총장과 광운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학계의 재원이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가시적 업적은 LG의 구자경 명예회장으로부터 100억 원의 기부를 받아 건립한 상남경영원일 것이다. 최신교육시설을 갖춘 상남경영원은 중견간부들의 단기경영교육을 위해 지금도 사용해오고 있다.

나와 허창수 회장의 순수한 인간적인 만남은 세인트루이스 대학에 유학생으로 만났던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농부의

아들로 청소부 고학생이었고, 허 회장은 대기업 총수의 아들로 자비 유학생이었다. 지나온 환경이나 앞으로의 진로가 밤과 낮처럼 상이 하지만, 우리의 변치 않는 우정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75년 8월, 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1천 km쯤 떨어진 곳에 직장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세인트루이스를 떠나게 되었다. 그때 세인트루이스 대학에는 20여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지만, 내가 떠날 때 나를 전송해준 고마운 친구는 오직 지금의 허 회장뿐이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던 그의 모습이 선하다.



## 모범 기업인 허창수

허창수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기업인 중 한 사람이다. 2004년부터 GS그룹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11년 2월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그 외의 막중한 역할로는 FC서울 구단주로 재임하면서도 유별난 축구 사랑으로도 이름이 자자하다. 현재 GS그룹은 기업규모로 재계 7위(공기업과 민영화된 공기업 제외)의 기업집단이다.

내가 보기에는 허창수를 모범기업인으로 평가하려면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큰 꿈을 가진 기업가이며, 둘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셋째는 누구보다 자선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지표로 삼고 모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기업인이 되었다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다.

## 총수의 꿈

어디까지나 LG의 제2인자로 만족했던 부친과는 달리 허창수는 LG전선 회장이나 LG의 부회장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를 꽤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의 성품이 조용하고 과묵한 편이어서 그가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보겠다는 불타는 꿈을 가졌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녔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 수도 있다. 자신이 원대한 꿈과 열정을 지니고 10년 남짓 LG에서 재벌경영의 수업을 받았고, 50대 중반에 GS의 창설과 이 그룹의 총수가 된 것을 응당 땀 흘린 결과로 인식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탄탄한 동업자 정신을 보였던 허씨와 구씨의 양 가문은 2000년대에 들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분리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21세기 경영구조를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주력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새로운 지배구조에 부합하도록 새 틀의 경영을 갖추기 위해서 복잡하게 연결된 출자 및 지분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주주들의 합의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구상 아래 대주주 간 계열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주회사 전환의 대미는 구씨·허씨 가문의 결별과 GS그룹의 공식 출범으로 놀라운 변형을 시도하게 되었다.

GS그룹은 LG그룹의 에너지, 유통, 건설을 분리 독립하여 이루어진 기업으로 2005년 3월 31일에 허창수를 초대회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따라서 외유내강형인 허창수는 2005년 3월 1일은 그 자신의

삶에 있어 평생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이다. 그룹 출범 당시 LG의 제2인자로 머물던 허씨 가문이 GS를 잘 이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의 공동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GS가 분리, 독립한다는 것은 그 당시 한국 경제계에서는 위험한 도전으로 공론화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허창수는 제2인자로 10년간 구본무 회장과 함께 LG그룹을 원만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허씨 일가의 대표로서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였다. 다시 말해 GS그룹의 사실상 창설자인 허창수가 LG전선 회장에 취임 이후, 2005년에 그룹의 분리 때까지 10년 동안 재계에서 ‘은둔의 경영자’, ‘얼굴 없는 경영자’로 알려졌다. 그 자신은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기에 그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는 것도 당시의 구조상 무리는 아니었지만, 허씨 가문을 대표해 ‘안정, 성장’이라는 기업 모토로 분리, 독립한 이후 사업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2배 가까이 기업을 성장시켰기에 이러한 우려는 말끔히 씻겨지게 되었다.

## 정직과 성실성

허창수가 GS그룹의 회장에 오르고, 전경련 회장에 추대된 것도, 또 그룹이 분리 후에 LG의 구씨 가문과 GS의 허씨 가문이 한가죽처럼 지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의 정직과 성실 그리고 근면과 인내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지녔다 하더라도 만약 정

직하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에 결코 추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 같은 지위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그 자리를 유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허씨와 구씨 가문은 친인척 간에 갈등이 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재물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증해준 기업인들이다.

2005년에 GS가 LG에서 정식으로 계열 분리됐다. 기업의 분리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잡음은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57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활동했던 두 가문이 각자의 길을 간지도 어느덧 십수 년이 흘렀다. 한국기업사에서 가장 성공한 파트너 관계로 평가받는 두 가문은 기업의 분리 후에도 건강하고 생산적인 창조경영으로 밀월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다. 형제는커녕 성까지 다른 LG와 GS의 대주주 가문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봉사정신

허창수의 부친인 남촌이 중심이 되어 1969년 12월 27일 고 LG초대 구인회 회장의 아호를 딴 연암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고인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농촌사업을 비롯해 장학육성사업, 연구비지급 사업, 기술개발사업,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펼치며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허창수는 약 70억 원 규모의 GS건설 개인보유주식을 출연해서 남

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그룹계열사의 자금을 출연하는 일반적 인 기업기부 활동과는 달리 오로지 순수한 자선봉사를 위해 사재로 개인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사실상 이 재단은 2007년 4월에 허창수를 비롯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이사회를 열고 재단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남촌복지재단은 저소득 소외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소외계층의 의료 사업,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장학지원 사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지원과 무료병원 의료기 지원사업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허창수는 매년 주식출연을 늘려 재단을 500억 원 규모로 키워갈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촌복지재단은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고 허준구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다시 말해 그의 부친인 고 허준구 명예회장의 아호인 남촌으로 재단을 설립한 만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을 재단의 사업목적으로 한 것은 효자로 널리 일컬어진 허창수 주위의 많은 지인들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허 회장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 아마도 내가 인간적으로 무척이나 고독하고 외롭고 지쳐있을 때 있었던 일이기에 심정적으로 조금은 더 그럴 것이다.



## 건망증

건망증은 기억을 잃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건망증이라는 말은 가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나 가벼운 기억상실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하며, 심한 기억상실(기억장애)은 건망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기억장애나 심한 기억상실은 뇌 손상이나, 질병, 약물 사용 등으로 생기며 알츠하이머병(치매)의 증상이기도 하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건망증이 조금 많아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 나의 건망증 에피소드 1

박사학위 과정은 대체로 과목이수, 종합필기시험, 논문 그리고 구



두시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과목이수를 마치고 종합필기시험과 논문준비를 시작한 1974년 가을부터 재무관리과 조교로 채용되어 그동안 몸담았던 청소부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대학 박사학위과정에서 조교를 하면 등록금은 전액 면제해주고 최소한도의 생활비까지 보조를 받는다. 논문을 제외한 그 지긋지긋한 학업도 끝났고 또 장래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육체노동도 끝났기에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조교로서 나의 임무는 6명의 재무관리 교수들이 요구한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시험감독, 채점 등이었다. 이러한 잡다한 업무들은 전부 나의 장래 교수 생활과 연계성이 있는 일이었기에 흥미를 갖고 충실하게 하였다.

내가 조교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키 크고, 잘 생기고, 마음씨 좋은 프렛 예이그라는 교수가 학회에 참석하는 동안 있을 시험을 대리 감독하는 일이었다. 이 임무를 받고 나서 내가 교수나 된 것처럼 솔직히 신바람도 났고 우쭐해서 저절로 나오는 웃음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청소부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학생들의 시험감독과 시험지를 채점하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한 일임이 틀림없었다.

경영대학은 내가 살던 부부아파트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시험이 그날 오전 10시에 시행되는 것을 오후 2시로 착각하고 지정된 강의실에 갔을 때는 다른 교수가 강의하고 있었다. 과장 비서와 학장 비서를 찾아가서야 내가 시험 감독을 오전 10시에 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시험 감독할 사람이 제시간에 안 나타나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학회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이그 교수는 나를 심하게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 도리어 “네가 건망증이 있는 것을 보니까 교수는 너의 천직인 것 같다.”는 농담으로 나를 위로해주었다. 이 실수 때문에 그 이후 지금까지 담당했던 수많은 대리 시험감독이나 내 과목 시험감독을 잊고 지나친 적이 없다.

## 나의 건망증 에피소드 2

한미경제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년마다 서울에서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한국경제학회의 연례학술대회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20~30여 명의 한미경제학회 회원들이 참석하기에 한미 양국의 경제교수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학술대회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급관리나 기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한국의 경제 현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 활동을 직접 설명하는 관계로 뉴스미디어의 각광도 받는 편이다.

한미경제학회의 경우, 회장은 주로 예산의 확보를 위한 모금 등 자금관리를 도맡고 부회장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 그간의 관례이다.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던 1994년 나는 이 학회의 부회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 학술대회에 발표할 한미경제학회 회원들의 논문수집, 심사 및 논문선택 등을 해서 한국경제학회에 넘겼다. 이 학술대회의 합리적이고

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내가 참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였다.

나는 학술대회 하루 전에 서울에 도착할 항공권을 사두고 좌석의 배정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서울행 서북 항공기 탑승권을 요구했을 때야 내가 구입한 항공권은 이미 하루가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다. 항공사 직원들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하루 뒤에 서울에 갔지만 이미 이때는 2일간의 학술대회를 모두 끝낸 뒤였다. 이 학술대회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의존했던 변종수 회장(미 멤피스주립대 재무관리교수)은 내가 나타나지 않아서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회장인 변종수 교수와는 나이도 비슷하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재무관리교수가 된 원로그룹에 속한 탓에 미국에서 나름대로 친분이 두텁고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미국에 돌아와서 변 교수에게 깊이 사과를 했지만, 그는 한동안 나의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상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도 했다.

## 학장의 건망증으로 연기된 나의 은퇴

미국은 대학교수들의 법정퇴직 연령이 70세였던 것을 1994년에 폐지를 했다. 그 이후에 연구, 강의, 봉사를 게을리하는 노교수들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골치를 썩이고 있다. 그 같은 연유로 우리 대학을 비롯해 일부 대학에서

는 노교수들을 은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단계적 은퇴(phase-out retirement)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의 경우 근무를 오래 한 노교수들이 단계적 은퇴를 신청하면 강의는 3분의 2, 또는 절반만 해도 연봉은 강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계적 은퇴를 신청하면 5년 이내에 은퇴해야 한다는 조건이 첨가되었다. 나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2001년에 아내와도 상의 없이 단계적 은퇴신청서를 작성해서 학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은퇴기념으로 연세대학교 국제하계 대학에 장학금을 서둘러 만들어놓기까지 하였다. 마감 일자가 지난 2002년 초에 갑자기 허망한 생각이 들고 북한연구를 하고 싶은 강한 의욕이 생겨 단계적 은퇴를 신청한 것을 뒤늦게나마 후회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설명서에 의하면 학사담당 부총장으로부터 내 신청서에 대한 회답 일자는 이미 지난 상태였다. 학장의 건망증으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내 서류는 학장의 서랍 속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었으니 대학 측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턱이 없었다. 물론 그 서류를 학장한테 반납을 받아 연유야 어떠하든 찢어버리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만약 학장의 행정적인 조치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70세가 되는 2007년에 교수직을 은퇴했을 것이고, 북한연구는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 대학교수들과 건망증

미국에서 교수들이 어떤 약속을 잊어버릴 때, “You are an absent-minded professor”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사실 이 말은 일종의 잘 알려진 속담이지만, 건망증이 있는 교수 또는 멍 때리는 교수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교육문제에 너무 집중한 결과 자신의 주변이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교수를 일컫는다. 이 말은 자신의 세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일들을 망각하는 사실을 표현할 때도 즐겨 사용된다. 교수들은 연구에 너무나 주의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 이 관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전기 작가 디오게네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밤에 하늘만 보고 걷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이작 뉴턴, 아담 스미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대학자들도 동시대의 건망증이 심한 학자로 간주되었다.

나는 유년시절부터 건망증이 다소 심한 편이었다. 6남매의 막내로 자랄 때 집안의 모든 잔심부름은 내 몫이었다. 특히 사소한 집안일이 많은 농사철에는 어른들의 주요한 심부름을 무시하거나 가끔 잊어버려 꾸중을 자주 듣기도 했다. 나의 건망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 아직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몇 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나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는지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지만 너무 어

처구니없는 체험을 통해 치매를 의심할 정도까지 되었다. 나름대로 모든 약속이나 계획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메모 작성을 습관화한 탓으로 내 건망증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주지 않게 되었다.

## 건망증과 치매

간혹 무엇인가를 자주 잊고 지나칠 때 '건망증'이란 말을 떠올린다. 건망증은 의학적 증상은 아니며 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려 무의식적으로 수행한 일이 뇌에 저장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주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비교적 뇌가 건강한 상태이다. 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기억장애라고 한다. 특히 다른 사람 대부분이 기억하는 일을 본인만이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 건망증보다는 기억장애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치매는 기억장애 외에 다른 기능장애(시공간파악 능력 장애, 판단 능력 장애, 언어장애, 계산 장애 등)를 동반하여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를 뜻한다. 건망증을 일으키는 6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주의력 부족, 2) 스트레스, 3) 우울증, 4) 적은 사회적 접촉, 5) 질병 및 약물복용, 6) 영양결핍이나 지나친 피로 등이다.

한 번쯤 유념할 건망증에서 탈출하는 10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메모를 습관화한다. 2) 여러 번 되풀이하여 기억한다. 3) 오감을 동

원한다. 4) 연상해서 기억한다. 5) 소리 내어 말한다. 6) 운동을 한다. 7) 전망증을 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충분히 잔다. 9) 일을 겹쳐서 하지 않는다. 10)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한다.

한편, 현재 치매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을뿐더러 또 치매의 치료 방법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있다면 치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5가지 요소도 여기에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1) 나이, 2) 유전, 3) 머리 외상, 4) 심장혈관 질환과 5) 당뇨병 등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논의된 치매를 예방하는 7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다. 1) 평소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고 운동을 하라, 2) 두 가지 언어를 말하라, 3) 커큐민(curcumin)을 먹어라, 4) 생선과 견과류를 먹어라, 5) 녹차를 마셔라, 6) 퍼즐 놀이를 하라 7) 많이 걸어라 등이다.



##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제아무리 타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혈통관계인 부모와 형제자매만큼은 못하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혈육의 정은 깊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가지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 남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과 살과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재미동포도 언제나 고국을 그리워하며 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왜 그럴까?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재미동포들은 모두 단군의 자손으로 대륙의 심장과 겨레의 얼을 지닌 관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해서 자기 나라의 해외동포들을 돕고 있는 것도 사실은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다.

### 단군의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나는 1969년 미국에 온 이후 지금까지 미국대학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공부했고 또 미국 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줄곧 가르쳐왔다. 그러나 교회는 한인교회에 나갔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대부분 재미한인들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재미한인들 외에 미국인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는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미국에 몸담은 이후 한인들에게 크게 의존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인 교수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내가 공부하던 1970년대 전반만 하더라도 한인 교수들은 극히 드문 때였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던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경영대학에는 김승희(재무관리), 궤노균(경영과학)과 권익환(통계학) 이렇게 세 명의 한인 교수가 재임하고 있었다. 물론 이 세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특히 김승희 교수와는 전공이 같기에 졸업 후에 책도 공동집필했고 또 내가 창간한 국제경영학 저널의 편집을 그만둘 때 많은 사람이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김 교수에게 인계를 했다. 물론 나는 교회도 한인교회에 나갔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도 한국말로 했다. 그리고 내가 다니고 근무한 미국대학보다는 나같이 단군의 혈통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송실대학과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동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도움

내 일생 동안 나에게 제일 화끈한 도움을 준 사람은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헨리 게디스 교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않던 조교가 되었고, 졸업도 예상보다 일찍 하게 되었으며, 이사할 때는 이사비까지 혜택을 받았다. 그와의 인연은 1972년 봄학기에 내가 그의 기업금융론을 수강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기업금융론 시험이나 과제 등으로 몇 번 만나는 동안 나는 그가 한국전쟁 중에 미군으로 참전했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무척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만남과 접촉은 1974년 여름까지 잠복기에 들어갔다.

나는 청소부로서 남녀 공용기숙사와 교목실이 있는 건물을 담당하고 있었다. 1974년 봄학기 어느 토요일에 경영대학 건물을 청소하게 되었다. 내가 2년 동안 청소부를 하면서 나의 담당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청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 그날 무슨 일로 연구실에 우연히 들린 게디스 교수와 마주치게 되어 우리는 한 시간

정도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청소부를 하면서 고학하는 것을 몰랐던 그는 “내가 가을부터 재무관리과 과장을 하는 데 너를 도와줄 길을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헤어졌다. 그의 놀라운 도움은 그 같은 우연히 건넌 몇 마디 인사가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덕택으로 그해 가을학기에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무학과 조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과목을 이수한 뒤에 했던 재무관리 종합필기시험,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에 특혜를 줘서 공부는 최소한 1년 먼저 마치게 되었다.

내가 미국에 왔던 1969년부터 1975년 6월까지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한국에 돌아갈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 사실은 한국에 직장을 구할 생각도 못 했고 또 한국에 정착할 자금은 고사하고 한국에 돌아가 차비도 없는 절박한 처지였다. 따라서 몇 년 동안 한국에 나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가을학기가 1~2개월 남은 입장에서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내 딱한 얘기를 전해 들은 게디스 교수는 방학 중인데도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와서 내 직장 구하는 일을 도와준 덕택으로 마침내 캔자스주에 있는 포트헤이스 주립대학에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나의 조교생활은 1975년 4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이사를 하던 8월에는 수중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다. 이 사실을 눈치챈 그는 내가 외출 중일 때, 내 아파트에 상당한 돈을 눈치채지 못하게 남겨두고 가서 이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다.

##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내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1960년대 초반, 한때나마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라는 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코미디언이던 서영춘 씨가 즐겨 사용하던 이 말이, 참으로 우연하게도 약 30년간의 학교공부를 끝냈던 1975년에 새삼 내 머리를 스쳐 갔다. 학생 신분으로 공부했던 것은 23년이고 나머지 7년간은 학교 공부 중간 중간에 군복무도 마치고 몇 가지 직장생활을 하였다. 이 7년간도 말이 직장생활이지 유학준비에 몰두했기 때문에 정식학교 공부를 30년 했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다. 그것도 대학 4년간은 반 고학을 했고 대학원 8년 동안은 전부 고학이었기에 나의 학창 생활은 그만큼 힘들었다. 그러나 한 번도 공부를 포기하거나,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싫증을 낸 적은 없었다.

그 같은 이유는 피가 뜨거운 젊음의 한 때, “아주 큰 사람이 되어 금의환향하겠다.”는 꿈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공부뿐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로지 나에게서는 반드시 꽃피워야 할 꿈이 있었기에 그렇게 모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잘 참아낼 수 있었다. 교수가 된 후에, 대학의 강의실에서 꿈도 없고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왜 열정을 다해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주위환경-심지어 부유한 가정환경, 화목한 가정, 좋은 직장과 사업, 명예, 많은 친구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이나 좋은 습관 등은 변

치도 않고 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시기이든 어려운 시기이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최대의 재산은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해둔 지식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학기 초마다 이러한 식으로 강의를 시작해서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자극했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전문가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던 지식·정보사회는 서서히 쇠퇴해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야말로 정보사회에서 살아남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지혜 시대가 오고 있기에 저마다 소유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고와 선택을 하느냐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의 승패를 좌우한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정보에 접속하는 능력만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사고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지식을 많이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는 시대가 된 탓이다. 그보다 상위의 지식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듯이, 기초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보다 전문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울러 현대인들이 하나같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창의력과 사고력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익히는 기초지식이 바탕이 될 때보다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그 하나의 보기가 대중 독자가 경제신문을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용어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언급하면 머릿속에 최소한의 기초지식이 들어있어야 더 상위의 개념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초지식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무작정 창의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요약하면 창의력과 사고 및 응용능력 등은 결국 기초지식의 틀 위에서 비롯되기에 일단 학교공부에 전념하여야 비로소 기회를 얻고 뜻을 이룰 수 있다.

## 재생의 힘

인간에게는 스스로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향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모름지기 우리가 시행착오로 쓰러지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전(부활)의 힘'이 인간의 내면의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은 종종 실수와 실패를 범하고 또 운명적으로 시련과 고통을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성공한 이들은 스스로 재생의 힘을 발동시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끝내 어려움을 이겨낸다. 하지만 실패자들은 자기 안에 내재된 재생의 힘을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해답을 찾으려다 마침내 실패하거나 좌절한다. 간혹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로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은 크게 인식하지 않고 헛된 변명을 늘어놓는 행위는 더없이 어리석은 뿐이다. 그런데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저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할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잘못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에 어떻게 자신이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여야 한다. 누구에게나 역전을 위한 재생의 힘은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역전의 동력을 움직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풀뿌리 같은 근성(발명가의 정신), 그리고 도전정신이라는 에너지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목적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발명가의 근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역동성을 팽팽하게 가동시키면 결국 인간은 시련도 성공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를 주저한다. 왜 그럴까? 어디까지나 변화는 새로 시작하여야 발전으로 이행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커져간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변화의 결과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동물적인 외형의 성장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숙의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가치의 추구를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어디까지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극적인 기회는 위기에서 비롯된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잃을 것이 적은 패기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까닭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주어진 운명에 도전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연속이기보다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이 같은 시행착오도 조금 더 일찍 겪으면 그 빈도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해야 할 오류를

바로 잡는 생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젊다 해도 세월은 강물이나 바람처럼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두려움이나 염려로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도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주저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심과 두려움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로 인간존재의 일부가 되었다.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근심은 어디까지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감정이다.

중세로부터 전해지는 설화 중에,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에서 공포와 전염병을 만난다. 그들은 만 명을 죽이기 위해 런던으로 가는 길이었다. 나그네는 전염병에게 정말 모두 죽일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염병은 “그렇지 않소. 나는 단지 100명을 죽일 것이요. 대신 내 친구 공포가 나머지들을 죽일 것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공포와 염려 때문에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희망은 별로 의미가 없다. 역설적이지만 이 설화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토머스 에디슨의 말과는 대치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지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발전이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희망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까닭에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와 노력으로 새로운 기회에 당당히 도전하면 시련은 장애가 아니라, 진정 넘쳐나는 활력이 된다는 것을 항시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교육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없다

큰 꿈을 가진 대학생들의 기본이 되는 철학은 일단, 자기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희망은 그만큼 한결 멀고 무거워진다. 우리는 건강을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귀한 삶에 있어 이 모두는 필요요소이다. 그중의 기본은 육체적 건강이겠지만 정신적 건강과 영적 건강 없이 육체적 건강만으로는 큰 꿈을 이루기란 진실로 어렵다. 그것이 어떤 건강이든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젊은 대학 시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꿈의 성공도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 또한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직도 한국은 학벌 위주의 사회라고 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력은 세계적으로 인재 평가의 기준이 된다. 여전히 첫 직장을 잡을 때부터 학벌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과 성적은 과거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고 보수가 많은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학벌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고용주들이 학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성공의 시작이 평탄치 못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시작이 절반'이란 속담을 명심하고 학력과 학벌의 축적에 몰두하고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주요기능은 교육, 연구, 봉사로 집약된다. 특히 이러한 기능수행에 있어서 대학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념, 올바른

실천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대학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란 점에서 그 어느 사회단체보다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인격도야의 장이다. 특히 교육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기에 대학에서 도덕성은 모든 교육의 근간이며 관습과 법처럼 증시되어야 하는 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생들도 철저한 자기건강관리와 지식획득 외에 학교 당국의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덕망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기에 미래사회를 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다.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정한 가치는 대학캠퍼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성의 회복이란 인맥을 뜻한다. 높은 학력과 뛰어난 직업윤리만으로 좋은 직장을 얻거나 고속승진을 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필연적인 세 가지의 만남을 혹자는 ‘스승, 책, 우정’이라고 언급했다. 폭넓고 다양한 인맥은 일생을 통해서 구축할 수도 있지만, 대학의 캠퍼스나 기숙사, 그리고 강의실에서 서로 의견을 허물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이해 관계없이 우정을 확인한 인맥은 순수하고 변치 않는다. 그 같은 연고로 뛰어난 노동자가 되고 또 여기에 인맥이 있으면 꿈의 성공은 훨씬 쉬워진다는 것도 한 번쯤 기억에 담아두어야 한다.

인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험과 같아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대학에 ‘미국독

립선언문'을 기초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교육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없다고 했다. 대학교육은 성장, 기회와 일자리의 발판이다. 또한, 교육은 현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학학위가 중요한 이유는 경험, 채용정보, 기술, 승진의 발판, 일반정보, 가족의 긍지, 친구, 희망, 경쟁 및 개인 만족 등 성공에 필요한 10가지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신체건강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뇌 건강에 대해서는 유독 둔하다. 뇌 건강의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 방관하기 일쑤다. 뇌가 건강하면 건망증이나 치매,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가 건강하면 뇌의 기억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도 좋아지게 마련이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다. 1) 연결시켜 기억하라, 2) 양손을 사용하라, 3) 잠자기 전에 공부하라, 4)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 5) 오래 사귄수록 나쁜 게 TV다, 6) 일상적인 것에 반대하라, 7) 여행하라, 8) 새로운 것을 먹어라, 9) 도전하고 배워라, 그리고 10) 남을 따라 하지 말라.



제3장

꿈 너머 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횃불

나는 미국유학을 와서 정착한 재미교포이지만,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영화, 소설, 수필 등을 대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려 온다. 무작정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젊음 하나만 믿고 다소 무모할 정도의 도전정신 하나로 1969년 말 미국에 왔고, 고학생으로 온갖 고생 끝에 학업을 마쳤다. 나는 김포공항을 떠날 때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꼭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몇 번인가 굳게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공부가 끝난 후 몇 년간 한국에서 정착할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마련하려고 시작한 미국의 교수생활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훌쩍 반세기가 흐르고 말았다.



##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교

내가 1977년에 와서 은퇴할 때까지 몸담은 직장은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이다. 이 대학은 1990년 디트로이트 대학과 머시 대학이 통합으로 형성된 종합대학교이다. 디트로이트 대학은 1877년 신부들에 의해서 창립되었고 머시 대학은 1941년 수녀들에 의해 설립된 여자대학이다. 치대, 법대, 공대, 건축대, 경영대, 간호대 및 문과대학으로 구성된 이 대학은 약 5,000명의 재학생을 구성원으로 한 가톨릭계통의 사립대학이다. 대학의 설립이념은 학생들의 '지적, 영적, 윤리적, 사회적 계발'을 촉진하는 데 있다.

## 포트헤이스 주립대학

몇 년간 한국에 정착할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시작한 직장은 포트헤이스 주립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캔자스 시와 덴버 시 중간에 있는 헤이스라는 농촌도시에 위치한다. 내가 이 대학에 근무했던 1975년에는 헤이스의 인구가 1만여 명이었는데 2014년에 2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포트헤이스 주립대학의 재학생 수는 5,000명에서 13,500명으로 증가하였다. 내가 재직했을 당시는 학교 이전 학교 부근의 도시이전 소수민족은 거의 없었고 주로 옥수수 농업에 종사하는 백인 농부들과 그들의 자녀이었다.

1975년에는 이 대학의 외국학생 수가 그저 10여 명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3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수가 4,500명에 이른다. 지금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975년과 마찬가지로 5,000명에 불과하지만 8,500명이 온라인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외국학생 4,500명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한 농촌 대학의 변화와 발전 상태를 미루어 보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학의 변화 속도감은 세계화의 물결과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지금은 세계가 한 지구촌으로 변했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은 외국에 가서 유학하지 않고 외국 대학의 학위를 획득하는 학생 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이제는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포트헤이스 대학에서 한 1년간을 재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몇 년간의 직장생활로 한국에 정착할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월급



이 무척이나 적다는 사실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1년을 지내고 난 후에야, 한국인이 무척이나 그림다는 사실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람도 있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마침내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으로 옮긴 이유다.

##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 시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 시는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4대 도시 중의 한 곳이었다.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1950년 190만 명에서 2013년 70만 명으로 급감했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한때 세계시장을 석권한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한 당연한 결과였다. 디트로이트는 이 같은 쇠퇴 과정에서 시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마침내 2013년 7월 18일에는 법원에 재정 파산 보호신청을 제출하게 되었다. 미국의 다른 큰 도시처럼 디트로이트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시의 파산에 직면한 디트로이트는 세계 언론이 온통 시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이미지는 땅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시가 2014년 12월 11일 15개월 만에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 파산 사태 기록을 남긴 디트로이트 시의 마이크 더건 시장은 장기부채 180억 달러 중 약 70억 달러를 탕감하고, 향후 10년에 걸쳐 17억 달러를 투자해 행정서

비스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듯이 법원의 관리 아래 재건 계획이 체계적으로 완료됨으로 디트로이트는 이전의 화려한 영광의 일부를 재현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미국-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로서,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미시간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지역, 금융, 문화교통의 중심지이다.

둘째로는 5대호를 연결하는 디트로이트 강으로 인하여 미국의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항구도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디트로이트는 강의 수운을 이용한 물자의 집산지로서 5대호의 수운과 철도의 요충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디트로이트 강으로 분리된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와 인구 20만을 가진 캐나다 윈저 시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로 디트로이트의 메트로폴리탄 공항(일명 메트로 공항)은 미국의 최대 항공사인 델타의 중심지이다. 델타는 매일 한국직행 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메트로 공항은 중서부지역의 많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즐겨 애용하는 공항이다.

다섯째 디트로이트는 미시간 주의 거의 모든 프로스포츠, 즉 야구, 미식축구, 하키 등의 경기가 열리는 도시이다.

여섯째로 세계에서 제일 큰 모터쇼는 매년 1월에 디트로이트에 개최되며 이 쇼에는 보통 100만여 명의 내방객과 5,000명 이상의 자동차 업계 대표 및 경영진, 미디어 분석가가 다녀간다.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의 재건 없이는 미시간의 번영은 그만큼 어

려워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진영을 망라한 정치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대기업 및 자선가들이 디트로이트의 도시 활성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구의 80%가 흑인인 디트로이트에서 수십 년 만에 그것도 압도적으로 백인을 시장으로 뽑은 디트로이트의 시민들의 결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나의 저술활동을 뒤흔든 논문

학위논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별개의 논문으로 수정·보완해서 우수한 저널 중의 하나인 『Financial Management』에 투고한 적이 있다. 나는 “자본예산법 실천이 대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저널의 편집장과 심사위원들의 요청으로 3년간에 걸쳐서 5번이나 수정하였다. 심사위원 3명 중에서 2명은 내 논문을 수락하였으나 나머지 1인은 계속 수정을 요청했기에, 편집장도 나의 논문 수록을 끝내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나의 저술활동을 거의 180도로 바꾼 계기를 마련했다.

## 험한 산을 비켜가다

그때나 지금이나 논문을 5번이나 수정을 요청하게 하고 게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는 혼자서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자료수집, 계산 및 수정을 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자존심에도 깊은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막상 거부당한 직후에는 너무 실망해서 몇 달 동안은 아무 일에도 전념할 수 없었다.

이 논문을 다른 재무관리 저널에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연히 [베일러 비즈니스 리뷰]라는 저널의 편집장을 만났다. 그는 학회에서 발표한 내 논문을 보고 자기들의 저널에 의뢰하면 즉시 출판해주겠다고 나서 나에게 의사를 타진해 왔다. 사실상 나이가 많고 테뉴어(대학교수의 종신재직권)가 매우 급한 처지여서, 나는 그 당시에도 지명도가 낮았고 지금은 폐간된 이 저널에서 출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상 이 논문이 출판된 1979년 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문을 각종 저널에 출판했지만, 언제나 누가 나의 가장 중요한 논문을 요청하면 이 논문을 제출하는 편이다. 나의 저술활동을 뒤흔든 이 논문이 그렇게 우수한 논문이 된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이 논문은 논문작성법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박사학위 과정은 연구위원 양성소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은 논문작성법의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운동이든 공부든 빠른 성장을 하려면 기본 골격이 튼튼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데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

또 하나는 학계의 전문가들 즉 심사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논문

을 수차 수정보완했다는 점이다. 물론 수정을 할 때 온갖 정신적 고통이 따랐지만 고칠 때마다 수정된 논문은 그전의 논문보다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완되어 보다 학술논문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의 경우, 주위의 누가 저서를 집필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때 조언을 요구하면 10번을 수정하면 9번을 수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정에 일체의 거부감을 갖지 말라고 권고한다.

## 김치 냄새가 나는 영어

한국정부가 한국전쟁이 발생했을 때, 외신기자들을 위한 통역관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사람을 고용했다. 이 통역관은 북한군의 남침을 “북한 군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했다고 한다. 내가 관동대학에 재직할 때, 어느 날 한가하게 대학 캠퍼스를 거닐고 있던 미국 선교사와 마주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이 선교사는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나의 질문에 “지금 체육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예는 그저 웃어넘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실례라고 생각한다.

논문심사는 블라인드 심사, 즉 심사위원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알 턱이 없었던 한 심사위원이 내 논문의 문장이 외국출신 교수가 쓴 것 같다고 지적을 하였다. 이 때부터 내가 쓴 모든 책이나 논문은 교정담당자를 시켜서 교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비록 교정담당자가 수정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교정 전후 글의 흐름을 비교 분석해보면 나의 문장이나 문체는 김치 냄새가 나고 교정된 글은 버터 냄새가 난다는 것을 나 자신도 금방 인식할 수가 있었다. 인생의 첫 33년 동안 김치만 먹고 자란 내가 아무리 영어로 글을 잘 쓴다고 한들 버터만 먹고 자란 미국인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나친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논문, 교과서 및 심지어는 좀 긴 편지까지도 교정담당자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사용하였다. 내가 가끔 동료들이나 출판사로부터 문장이 매끈하다는 칭찬을 받는 건 어디까지나 교정담당자의 덕택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같은 실패로 인생의 쓴 경험을 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대학에서 F 학점이 나와서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한 적도 몇 번은 있었고, 미국유학에 필요한 시험에도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유학이 7년 썩이나 늦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주어진 현실에 도전했다는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나는 패배를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신념을 만들고, 또 이러한 신념은 성공을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 소중한다는 교훈을 절감하게 되었다.

미국 인디언의 라카타 족은 기우제를 지내면 100%가 비가 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정성의 부족으로 간주하고 그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기우제를 올렸다. 전구를 만들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한 발명왕 에디슨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2,00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듯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즐겨 사용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도 그의 절절한 체험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앨 뉴하스가 1982년 「USA Today」라는 전국 일간지를 창간했을 때,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 신문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라 장담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일간지가 되었다. 발행인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모두들 40세가 되기 전에 최소한 한번은 크게 실패해야 한다.”고 술회하였다. 또 그는 “실패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언도 아끼지 않았다.

## 종합연구원

나는 내 논문을 평판이 좋은 재무관리 저널에 출판해서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으로 옮기겠다는 꿈은 40세 때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에 남아 종합연구원이 되어 용의 꼬리 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길을 택하고 스스로 자위했다. 결국, 나는



미국의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교과서 출판, 저널의 창간 및 논문 출판 등으로 종합연구원이 되었다. 그동안 60여 편의 논문을 각종 저널에 출판했고 두 개의 학술지를 창간·편집했다.

특히 첫 교과서를 출판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를 체험하였다. 나는 첫 교과서의 원고를 북미와 유럽에 있는 모든 출판사에 보냈지만, 출판은커녕 어떤 심사위원들로부터는 조롱 섞인 평가를 받고는 자괴감에 빠져 참담한 심정에 가슴앓이도 하였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괴로웠던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며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강한 인내심과 도전정신을 배웠다. 첫 교과서가 출판되었을 때, 짜릿하게 맞본 역전의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활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덕택으로 수정판까지 합쳐서 20여 권의 교과서를 간행했고 지금도 내가 가르치는 과목은 모두 내가 쓴 저서로 강의하며 책의 인세로 돈을 빌리지 않고 세 아이들이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범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하여 지레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실패한 이유를 꼼꼼히 분석해서 이를 성공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적인 가르침일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일부러 실패한 기업에 몸담은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즐겨 채용하였다. 한 인생의 소중한 삶에서 실패한 경험이야말로 그 사람이 난관에 직면할 때, 끝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원동력에 해당한다. 기

실 이 세상에서 실패나 좌절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패를 줄이려면 역설적으로 실패, 그중에서도 40세 전에 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의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실패의 이면에는 성공으로 가는 지혜가 담겨있어서 두려워할 이유는 결코 없다. 진짜로 우리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도 전조차 하지 못하는 나약함이다.

실패를 감수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까닭에 도전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국가도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이윤과는 관계가 없지만, 기업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분야는 실패를 감수해야만 성공으로 가는 첩경임을 인식할 일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오늘, 비정한 시장경제가 지배적인 국제사회의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더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축적된 삶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비록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자신만이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그렇게 곧바로 쉽게 변화·발전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된 삶의 여정은 갈지자로 가기도 하고 역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거친 격랑의 세월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도 결국엔 바다에 합류하듯이 인간의 성숙한 삶은 그렇게 변형되며 발전해가는 것이다.

성공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추출된 인간의 지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보다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생산물이다.

아무리 실패와 좌절하게 된다 해도 다시 일어서는 한국의 오뚝이 정신을 나타내는 '7전 8기'라는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속담은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선다는 말이다.



## 위기와 기회

1986년 나의 연봉이 갑자기 오르고 학술저널을 창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대학의 경영대학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꼭 이때 나에게 적용됐던 일화 같아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의 세 가지 역할은 강의와 연구 및 봉사이다. 미국에서도 대학교수들 간에 강의와 봉사는 개별 차가 없기 때문에 교수들의 승진이나 월급인상 및 그 대학의 대외명성은 주로 교수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좌우된다.

##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우리 학교와 같은 평범한 경영대학이 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난관은 부족한 교수들의 연구업적이다. 우리 경영대학은 1980년대 후반기 몇 년 동안 교수들의 연구부족으로 이 협의회가 인증을 유보한 적이 있었다. 경영대학 교수들 약 40명 중에 연구업적이 가장 우수했던 나를 이때처럼 필요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 월급은 내 손을 통해서 채용한 조교수들보다 훨씬 적었을 때였다.

지금은 각 경영대학의 학사/석사/박사과정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지만 1980년대는 이러한 차이가 없었기에 학사, 석사 중심의 우리 경영대학은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많은 박사학위과정중심 대학에 비해 AACSB의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힘든 시기였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는 미국의 타 대학에 견주어 비교적 교수들의 노동조합이 강해서 교수들의 월급은 누구나 똑같이 인상되는 편으로 1년에 1~3% 정도의 인상에 머무는 편이었다. 미국의 대 경기후퇴(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가 발생했을 때까지 미국에서 재무관리교수들의 부족으로 신입 조교수들의 월급이 무척이나 상승한 연봉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새로 채용된 경영대학 조교수들이 정교수나 부교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오는 경우가 허다한 실상이었다. 이 같은 연고로 1985년 내 손을 통해서 채용된 신입교수들이 나보다 연구업적이나 경력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급여는 나보다 훨씬 많았다.

## 준비와 기회의 교차로

우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는 놓쳐버린 기회다. 인생에 게 신이 허락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의 삶에 있어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간혹 어떤 사람은 그중한 번의 기회만 잡더라도 성공적이라고 말한다. 사실 지나고 보면 기회를 놓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회가 왔음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기회가 왔음을 알고도 손을 내밀어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회가 왔음을 알고도 놓치는 대개의 이유는 그 자신에게 용기가 없거나,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망설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오는 교차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라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것이다. 그게 바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조이다.

나는 내 이름만으로 논문과 저서를 지속적으로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과 함께 논문의 공동 집필을 자주 했다. 결국, 이러한 업적을 고려해서 학교에서는 1987년 내 월급도 올려주었고 또 몇 년 후에는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MBR」라는 저널을 창간·편집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국제경영학회 한국지부장을 역임한 고려대학교 어윤대 국제금융론 교수와 연세대학교 정구현 국제경영학 교수가 이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수고했다.

그 무렵은 1978년에 구입한 판잣집 같은 비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죽이 에어컨도 없이 지내고 있을 때인데 연봉을 더 받게 된 까닭에

1988년 집터를 사서 새집을 건축하고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사하고 난 후에 세 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거처할 방을 제공했더니, 예전에는 에어컨도 없이 한방에서 생활한 탓으로 하루가 멀다고 서로 다투던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넓은 뒷마당에서 소프트볼을 하거나 겨울철에는 미식축구를 하면서 3형제가 전에 없이 정답게 지내는 것을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던 일은 지금도 못내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내는 뒷마당에 작은 숲이 있어서 눈이 많이 날리는 겨울에는 대학 재학 중에 영화에서 본 ‘산장의 여인 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누군가 “가난이 원수”라고도 했는데 나의 연봉이 오르고 나서야 주로 돈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가족끼리 다투고 불평하던 일상은 사라졌다.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는 아이들의 학업마저 끝나게 되어 비로소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2002년에는 책임 편집하던 이 저널을 은사인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김승희 교수한테 넘기고 나는 나름대로의 뜻을 세우고 북한연구를 시작했다. 이 저널은 2003년에서 2009년까지 김승희 교수가 출판·편집을 했으나, 2010년부터는 영국의 정보회사인 Emerald에서 출판하고, 영국의 리딩 대학교수들이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내가 출자한 일부의 예산과 모금한 자금으로 북한 관련 전문저널을 창간·편집하게 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 재미교포 1세와 자녀교육의 난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1990년부터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고학파 연구 및 미국생활의 정착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온 탓에, 부끄럽게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장남인 캔이 대학졸업(1990년)을 전후해서 방황할 때야 나도 크게 당황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들의 교육과 장래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정신적 유산이다.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돈이나 물질에 절대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정신적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부모에게 단순히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



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영적 유산은 자녀들의 인생에 위대한 능력이 되어 위대한 삶과 성공의 놀라운 요인이 되는 것이다.

### 자녀들의 실제 교육과 체험적 담론

나는 아들만 셋을 둔 가장이다. 첫째는 캐네스(한국이름 기강), 둘째는 캐븐(한국이름 기원), 그리고 셋째는 키드(한국이름 기드)인데 우리 식구끼리는 캔, 캡 그리고 키라는 애칭을 쓰고 있다. 친척들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들의 이름이 전부 K자로 시작된 것을 매우 궁금해했다. 그것은 순천 김씨의 향렬에 따는 돌림자 '기'에 맞추기 위해서 K자로 시작한 미국 이름만을 찾아서 지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때 세조의 철퇴에 맞아 죽은 순천 김씨 김종서 장군 때부터,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내려온 돌림자(향렬)를 따라 이름을 지어온 한국인의 전통은, 최소한 내 후손들의 경우는 내 아이들대로 끝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별것 아니겠지만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첫 아이인 캔을 키울 때 아내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칭찬과 사랑으로 대한 반면에, 나는 그 아이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려고 해서 가끔은 충돌이 있었다. 아내처럼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과 인내로 대하면 비록 어리지만 아이 스스로 철이 들면서 저절로 자존감을 키우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모든 것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대학교수라서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별다른 충돌 없이 성장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저 부끄러운 심정이다.

이민 1세대들은 눈물겹게도 때로는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또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오로지 학업에 열중하기만을 소망하는 것은 어느 부모의 경우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도 예외일 수는 없다. 까닭에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문화적 차이로 부자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나와 큰 아이 캔과는 캔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일 때까지 잦은 의견충돌이 있었고, 때로는 부자간의 갈등이 감정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물론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부부간의 다툼이나 대립도 수없이 체험했다.

이 같은 충돌은 캔이 심지어 나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왜 욕으로만 훈계하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이때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깝스로 참았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아이들의 생각을 일체의 배려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던 인식을 버리도록 노력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종전과 달리 칭찬과 따뜻한 격려로 훈계를 대신하면서 부자간의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회복되었다. 다행스럽게 캔도 스스로 깨닫고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가장 중요한 재산은 교육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지론처럼 캔을 키울 때 아내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칭찬과 사랑으로 대했다. 반면에 나는 상대적으로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려 해서 많은 다툼을 종종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충돌과 고정관념에서 오는 잘못된 행위였다. 비록 자라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사랑과 인내로 대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철이 들 것인데도 조금은 천천히 지켜보지 못했다. 그들도 이성으로 주어진 현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제력을 지니고 있기에 어디까지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기다림은 더없이 필요한 것이다.

캔과 키드의 경우는, 경제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당시 취직이 안 되고 또 공부에 지친 탓으로 그들은 잠시라도 가정에 머물며 한동안 쉬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나는 어느 회사든지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현재 직장을 갖고 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선호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이 점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나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긴장감이 풀려 머리에 녹이 생기는데 어느 회사가 녹이 생긴 사람들을 채용하겠느냐?”라며 공부를 계속하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요구했다.

지난날처럼 항상 명령하듯이 아이들을 훈계하던 모양새를 달리하고 조금은 더 친밀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대화와 설득으로 대학원 진학에 뜻을 모으게 하였다. 덕택으로 우리 가족이 온갖 고생을 했지만 세 아이가 모두 27년 동안을 대학공부에 전념토록 하는데 성

공을 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한자성어처럼 이 제는 아이들의 장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물고기(재산)를 전해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지혜)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이다.

기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번 해놓은 공부는 기록뿐만 아니라,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기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의존할 수 있는 최선의 자산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안 된다고 집에서 치밀한 계획 없이 놀아서는 안 되고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제로라도 들려주고 싶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 때문이다.

다행히 캔은 석사와 박사과정에 있을 때 학문연구에도 열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심성마저 너무 겸손해져서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환경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지 않습니까?”라는 그의 반문을 받은 뒤, 나 자신은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그렇다. 명언은 유명한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뼈저린 경험을 하면 보통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항상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진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조급하고 무모하게 빨리 고치려고 명령과 욕으로 훈계하기보다는 항상 칭찬과 사랑으로 훈계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이들을 바꾸는 지름길이 된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씨눈이 싹트기를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듯이 그 같은 자연의 순리를 바탕으로 한 체험을 통해 얻은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작은 내 삶의 교시(敎示)이다.

무엇보다 캔은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도 취직이 안 되어 공부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대학교수가 되었다. 또 막내인 키는 시력이 나빠서 공부하는데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고도 취직이 안 되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덕택으로 직장을 구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취업을 하였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우리네 속담은 캔과 키의 경우에 더없이 합당한 말이 된 것 같다. 아마도 대학졸업 후 고통 없이 취업이 되었으면, 두 아이의 인생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자만심에 빠져서 지금처럼 겸손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우리 집 세 아들의 지능지수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둘째 캡의 고등학교와 대학성적은 유난히 좋았다. 중학교 때 의과대학교수가 되기로 결심한 캡은 밤낮없이 공부를 열심히 한 반면, 첫째 캔과 셋째 키는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공부를 적당히 해서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취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나의 세 아이들만 놓고 보아도 학문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고,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천재는 99퍼센트의 노력과 1퍼센트의 재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토머스 에디슨의 지적은 단순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의 체험을 통해 나왔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여야 한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그린필드 빌리지 박물관에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사용한 실험실과 기록물이 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에디슨이 2,000번의 실험을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전구

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임에 틀림이 없다. 미합중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하여도 사회의 구도가 세계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간혹 미국은 용광로로 빗대어지기도 한다.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들은 선구자와 같은 입장을 지니기에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첫째는 문화, 언어, 풍속이 다른 미국에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둘째 이민 1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욕망을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찰과 시행착오가 종종 주어진다. 재미한국교포들은 이와 같은 큰 두 가지의 현실적 문제를 결코 외면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

나는 1969년에 미국에 건너온 이후, 재미교포 1세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생존에 실패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나 교포 1세의 자녀들 중에서는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하지 못해서 크게 상심하는 부모들을 가끔 보았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여러 가지 변명이 주어지겠지만, 유교문화의 교포 1세대들과 서양문화의 교포 자녀들이 두 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들은 부자, 부녀, 모자, 그리고 모녀의 네 가지 관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으나, 여기서 나의 의중은 갈등이 제일 많은 부자관계에 중점을 두고 그 나름의 견해를 펴려해보려고 한다.

## 한미 양국 문화의 특이성

미국사회의 구성은 기독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기에 보편적으로 개인 가치에 기초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은 유교, 독재정치와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발전했기에 공동체 가치에 기초한 문화가 형성되어 대조를 이룬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미국문화의 특징은 개인권리중심, 동등한 관계, 개인주장 및 개인의 표현, 개인적 능력과 성취, 적극적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특징은 책임과 의무, 권위존중과 순종, 개인의 희생과 집단의 성공 및 관찰과 소극적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어떤 의식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문화적 차이는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의 결혼식에 가보면 부모들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는 반면, 미국인들의 결혼식에서는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먼저 소개하고 부모는 다음에 소개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차를 타게 될 때, 미국인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앞에 태우지만, 한국인들은 부모 중 한 분을 앞에 태우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공동체 문화에 기초한 한국식 가치관과 개인적 문화에 기초한 미국식 문화의 양립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부자간의 관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소 흥미롭고 신비함을 더해준다. 어떤 때는 심각한 갈등으로 어떤 때는 깊고 큰 사랑의 지킴표로, 또 어떤 때는 종속과 상하관계로, 어떤 때는 동등함과 평등한 관계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렇듯 부자의 관계는 종잡을 수 없

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동양에 있어서는 유교문화에 길들여져 있어 부자지간의 관계는 주로 전통에 의한 종속과 상하관계이다. 이 같은 상하관계는 윤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런 관계를 깨트리거나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과 징계가 내려졌다.

비록 기독교와 서양문화가 한국에 들어온 지 1세기가 지났고 지금은 세계화와 통신·정보의 발달로 동서 문화의 차이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부자지간의 종속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녀는 이러한 종속관계를 당연하게 천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평등, 자유, 정의와 같은 가치이념의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종속관계를 거부하기에 부모와의 갈등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성세대의 문화가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매도하는가 하면 기성세대 또한 젊은 세대의 정신문화는 예의가 없고 자유분방한 가치관에 근거한다고 부정하거나 거부한다.

이처럼 동양의 문화에 익숙한 부모와 서양문화의 풍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자간에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게 마련이다. 이런 걱정들은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결방법을 찾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인 아버지들이 젊은 자식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심적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일일이 눈에 거슬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고칠 것을 간섭하다 보니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져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중문화와 자녀교육의 연계성

한국 내에서도 세대 간, 이성 간, 계층 간의 문화갈등이 점차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미국에서 재미교포 1세와 2세대들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이 술, 마약 등에 중독된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환자들에게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환자들이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리치료는 시간과 돈의 낭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한 뒤에 꾸짖거나 책망하기에 앞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언젠가는 부모의 기대에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사회에서 세대 간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미국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부자간의 갈등을 종속관계의 처지에서 아이들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처지, 눈높이의 평등한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것이 한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지름길이다.

이민 1세대들 중에는 이질적인 두 문화에 속하면서 어느 쪽에도 충분히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국적은 미국,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공식을 터득해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민 1세대들이 눈, 귀, 가슴을 열고 미국의 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져온 한국문화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피어난 문화도 소중하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부모들 자신이 문을 활짝 열고 이중문화를 수용하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2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머지않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에 그들이 부모와 같이 있는 동안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생활습관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부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 간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며, 또 난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체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두 개의 문화 속에서 혹시 방황하더라도 부모는 애정과 관심을 지니고 그들을 지탱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순탄치 못한 그들의 청소년기에 희망과 꿈의 나무를 심어주고 항상 푸르게 '더불어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함께 가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에는 권력과 재산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지혜, 올바른 행동과 습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고기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주기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고기 잡는 방법인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유산이다.

재미교포 1세 부모와 2세인 자녀들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분야는 공부에 관한 사항이다. 학교성적은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

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모의 욕심으로 인한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므로 학교성적에 얽매이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혹시 학교성적이 조금 뒤쳐진다고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심하게 꾸짖는 행위는 비효과적이고 비교육적인 까닭에 그보다는 따뜻하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화가인 벤저민 웨스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의 모친은 벤저민한테 어린 누이동생을 맡기면서 “누이동생과 집을 잘 보고 있으라.” 말하고 잠시 외출을 하였다. 벤저민은 집과 어린 동생은 돌보지 않고 혼자서 물감을 가지고 동생의 초상화를 그렸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벤저민에게 한마디의 꾸중도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림을 들고 “이것은 틀림없는 네 동생이구나.”라고 칭찬하며 벤저민의 볼에 키스를 해주었다. 뒷날에 벤저민은 그때 어머니의 키스가 자기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들었다고 고백하였다.

다시 말해 벤저민 웨스트가 유명한 화가가 된 동기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잠재성을 인정한 데서 싹이 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 선발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잠재력이다. 각 대학의 독특한 문화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수업을 무리 없이 소화해 졸업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전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살핀다. 고교 졸업성적이 높고 SAT등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

었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성이나 리더십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선발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반대로 비록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성적 이외의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나 경력이 있으면 선발되기도 하는 것이 미국의 입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잠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점수 이상이면 일단 일차 관문은 통과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성적은 합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 정신적 유산과 물질적 유산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대부분 교육, 근면, 성실 같은 정신적 유산이었다.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돈이나 물질에 절대 가치를 두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정신적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들은 부모에게 돈이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가 아니라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었다.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영적 유산은 자녀들의 인생에 위대한 능력이 되어 마침내 존귀한 삶에 있어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에서 재산과 근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죽음을 앞둔 농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합심하여 내가 포도밭에 숨겨놓은 것을 찾아야 한다. 내가 물려줄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단다.” 아버지가 운명을 한 뒤에 아들들은 아버지가 포도밭에 보물을 감춰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형제들은 포도밭을 구석구석 파보았지만, 어디에도 보물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제들이 포도밭을 샅샅이 판 덕분에 그해는 평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 형제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남겨준 유언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훌륭한 농부가 되었다. 근면과 성실, 그리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형제간의 화목은 물질적 유산보다 더욱 위대하고 값지다. 물질적인 유산은 생각이 선하고 올바르게 않으면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정신적 유산은 적어도 자신을 지킬 줄은 알게 하기에, 결국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방법이었다.



## 영구귀국의 마지막 기회

1977년에 미시간에 와서 자리가 잡혔던 1980년 말까지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영구귀국이 다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1992년 봄 학기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에서 가르칠 기회를 마련한 것은 영구귀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있었다. 한국에 한 학기 있는 동안 풀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 나의 동기동창과 선후배, 일가친척 및 그 외의 지인들로부터 난생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을 때부터 강의가 끝날 때까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파행적으로 연속되어서 부득이 영구귀국은 영원히 포기하기로 했다.

## 폴브라이트 장학금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안, 추천서 및 이력서를 미국에서 폴브라이트 재단에서 의뢰한 사계의 전문가가 심사를 담당한다. 첫째 관문을 통과하면 신청자가 지정한 현지대학의 수락 여부를 현지 폴브라이트 교육재단에서 타진하게 되어 있다. 나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 다시 말해 처음 두 번은 첫 관문을 통과하는데 실패하였다. 세 번째 폴브라이트 장학금 신청을 거의 포기하기로 했을 때 참을 인(忍)자 세 번이란 말이 나의 뇌리를 스쳐 갔다. 그리고 일단,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영원히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예부터 참을 인자 셋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에는 어진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화가 나는 순간에 깊은 심호흡을 세 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화가 가라앉고 마음은 평정을 얻게 된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순간적으로 촉진되었던 교감신경 자극 호르몬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지속된다면 화를 내는 것이 내 인생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질이 급한 나는 나쁜 소식, 상대하기 힘든 사람, 실망스러운 일과 마주칠 때 과잉반응을 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과잉반응을 일으키면 더 깊은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는 한문으로 참을 인자를 세 번 써서(忍忍忍) 나의 사무실 벽과 집의 공부방 벽에 붙

여놓고 과잉반응을 자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상하면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면서 큰 소리로 “김석희 참아, 참아, 참아” 하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찾고 문제를 대하면 느긋하게 대응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마치 위급하고 대단한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삶 속에 마주치는 난관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습관을 터득하려면 웨인 다이어라는 작가가 말한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나는 원래 1991년 말까지 나의 세 번째 제안의 수락 여부를 통고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미교육위원단에서는 1992년 1월에야 제일의 관문은 그나마 통과했지만 내가 지정한 서울대학에서 거절했다는 통고를 받게 되었다. 이 무렵에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우리 학교의 강의를 시작하고 풀브라이트 장학금과는 결별했다. 미국의 겨울 휴가는 2주밖에 없고 봄 학기 또는 제2학기 시작은 매년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다. 반대로 여름방학은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이고, 가을학기 또는 제1학기의 개강은 보통 8월 말이나 9월 둘째 주부터이다. 한국의 제도는 이러한 미국의 제도와 정반대인데 그 이유를 몇 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과 상의도 해보았지만, 속 시원한 해답은 구할 수가 없다.

나의 연세대학원 동기동창이고 또 그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있었던 김황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갑자기 나의 부탁을 받은 그는 연세대학에서 나를 초청하도록 설득하



는데 몇 주일이 걸려 비로소 2월 중순쯤에야 결정이 되었다. 처음부터 그 당시 내 친구들과 은사 및 선후배들이 많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현지 대학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야 후회하게 되었다. 김황조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모교에 돌아와 경제학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상경대학부설 산업경영연구소 소장과 상경대학장을 역임했다. 노동경제가 전공인 이 친구는 대외적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 노사관계학회 회장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연세대학교 봄 학기 개강 1주일 전쯤, 귀국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탈장이 발생했다. 집 근처의 병원 몇 군데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서둘러 수술을 요청했지만 예약한 수술환자들이 많아 최소한 몇 주간을 기다려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결국은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던 조열하 장로(서울의대 출신)와 김시영 집사(세브란스의대 출신)가 서둘러 수술을 해준 덕택에 개강 이틀 전에 한국에 갈 수 있었다. 물론 두 한인의사도 빈 수술실이 없어서 나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병원이 문을 열기 전인 이른 새벽에 수술을 해주었다. 이처럼 한국은 관계중심의 사회인 까닭에, 단군의 혈통을 받은 후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연의 소중함으로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혼동

내가 강의를 담당했던 '국제금융론과 기업금융론 강의'는 한국말로 했다. 강의준비는 충분히 해도 수업시간에 한국말 학술용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서 강의를 몇 초씩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한 시간의 강의 중에 몇 번씩 발생했다. 수술 후유증으로 심신이 불편한데 강의까지 매끈하지 못해서 나 자신은 드러내놓고 표현은 할 수 없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다.

1969년부터 1992년까지 거의 25년 동안을 나는 연구와 강의를 영어로만 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전공과목도 경제학에서 재무관리로 바꾸었다. 그동안 한국을 두세 번밖에 방문하지 못했고, 그것도 고작 며칠 정도만 한국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런 관계로 사실 나의 한국말 강의는 매끈할 수가 없었다. 상경대학 교수들은 영어로 하거나 한국말과 영어로 섞어가며 강의를 해도 좋다고 했지만, 그것도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국제교육의 상징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서 경쟁적으로 선택된 미국시민으로 가졌던 자부심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영구귀국을 타진해 보려던 생각은 안타깝게도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도 못되어 포기하게 되었다.

## 매경과의 인연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4월에 같은 대학의 송윤근 교수(경제학 전공)와 내 은사요 매일경제신문사의 고문이었던 최호진 교수의 소개로 매경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경에 논문을 몇 번 투고해서 맺은 소중한 그때의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후에도 매경에 가끔은 논문을 투고한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나의 북한연구지원(2003), 매경-KAEA Economist Award 제정(2005) 세계지식포럼 중 북한세션조직(2008)과 100인 경제·경영 설문조사에도 참여를 했다. 2003년에 북한연구를 시작하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매경 간부들과 만나서 재정적인 지원과 나의 북한연구 소개 등을 요청하자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승낙해주었다. 내가 한미 경제학회 회장으로 피선된 2005년에 제정하고 2006년부터 실시한 '매경-KAEA Economist Award'는 지금까지 매경의 한결같은 지원에 힘입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된 매경지식포럼 중 북한세션을 내가 조직했고 또 연사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하였다. 매년 말 동아시아연구원, 한미경제연구소와 매경은 경제·경영 100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매경에 발표하는데 나는 이 설문조사에 여러 번 참여했다.



## 지혜부족으로 생긴 난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경험론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은 틀린 말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지식 그 자체는 힘이 아니고 힘의 원천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사용은 힘이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정보를 선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가 힘이다. 이것은 나의 체험에서 얻은 작은 결론이기에, 나는 이 말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에 시작된 지식·정보화시대가 끝나고 지혜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신

속하게 공유해서 실행에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방할 수 있었던 난청과 이명이 지혜의 부족으로 1994년에 생기는 바람에 나는 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다.

## 문명세계의 다섯 단계

스티븐 코비는 [8가지 습관]이란 저서에서 전인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전인교육을 이해하려면 피터 드러커가 제기한 문명세계의 다섯 단계, 즉 석기시대(수렵·채취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지식·정보시대 및 새로 나타나고 있는 지혜시대에 대한 일차적 이해가 주어져야 한다. 석기시대의 기술은 활과 창, 농경시대의 기술은 농기구, 산업시대의 기술은 공장을 위주로 행하여졌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로 손과 육체를 사용해서 그들의 생산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보·지식시대이기에 생산 활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따라서 능률적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전인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 문명의 다섯 단계는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당대의 평균노동자는 전 단계의 평균노동자보다 50배나 더 많은 생산품을 생산하게 되어 있다. 둘째 다음 시대는 그 전시대의 대부분의 직장을 파괴한다.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산업시대의 직장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은 정부정책이나 자유무역협정과 별개로 큰 상관은 없다. 대다수의 경제 형태는 산업시대에서 정보·산업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자

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당근과 스틱으로 노동자를 유도했던 산업시대를 통과하여 정보·지식화시대가 시작되던 1980년대 초기부터 전 인간교육으로 노동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차 확장되었다. 이처럼 정보시대가 그 절정기에 도달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식은 누구나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 다양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지식을 얻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단적으로 언급하면 지혜는 정보의 사용 즉 방향설정 이기에, 기본적으로 ‘초점’과 ‘실행’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간단한 해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초점과 실행을 두고 하는 경우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다. 누구도 지혜를 빼앗을 수 없으며, 지혜는 목숨을 잃지 않는 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양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 무형 재산이다.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나 귀금속이나 심지어는 지식보다 더 중시할 것은 지혜이다.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모아 두드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워 지식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기초일 뿐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배운 지식을 사용해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지식은 힘의 원천에 불과하지만 지혜는 그 자체가 힘이다. 요약하면 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열쇠는 지혜라는 말이다.

## 네 가지 귀(耳) 문제

오감(五感, five senses)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을 통틀어 말하며 감각을 수용하는 수용기관에 따라 분류한다. 시각은 눈이며, 청각은 귀이고, 후각은 코이며, 미각은 입안의 혀이며, 그리고 촉각은 피부이다. 인간에서 외부 자극의 인지는 이 오감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 오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완전하지 못하면 삶의 질은 크게 감소한다. 나는 이 다섯 가지 오감 중에 50대 중반에 발생한 청각장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왔다.

나는 난청(볼륨과 정확성 장애), 이명 및 청각과민증 등 4가지 귀의 질병으로 고생한 것이 거의 25년 남짓 되었다. 난청은 볼륨과 정확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보청기는 소리의 볼륨을 올려주기에 이 문제는 보청기의 사용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정확성 장애는 대화할 때 말소리는 들리나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청기가 그다지도 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나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1994년부터 미시간에서 유명하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전문 청각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때마다 전문의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같이 “나는 너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좋은 소식은 내 귀 문제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고 증상이라고 한다. 반면 나쁜 소식은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그냥 두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증상이 점차 악화되기에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어 때로는 의욕마저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중한 존엄한 삶에 있어 내가 가슴 아

파하는 것은 지혜가 있었다면 이 귀의 질병 문제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1994년 8월 어느 날, 나는 뒷마당의 잔디를 깎고 있었다. 그때 내가 사용했던 잔디 깎는 기계는 기어가 3개 있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그 기계는 빨리 움직일 뿐만 아니라 소리도 속도에 비례해서 고음으로 작동되었다. 나는 40세 때부터 음악 예배, 비행기 소음, 목청을 높여 말하는 강사들의 연설 등 조금만 소리가 높아도 귀에 압력이 가해져서 견디기 힘든 증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말하는 청각과민증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증상을 일반인은 아무렇지 않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인데 비해서 청각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청각과민증 때문에 잔디를 깎을 때 항상 속도도 느리지만 소리도 낮은 기어 1을 사용했다. 피곤하고 날씨가 무더운 날은 기어 1을 사용해도 식은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견디기가 심히 고통스러웠다. 문제가 생긴 그날은 너무 덥고 피곤해서 조금은 빨리 잔디를 깎기 위해 기어 1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3으로 올린 지 몇 분 안 되어 귀속에서 조그마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아내의 음성도 안 들리고 또 귀속에서 전에 듣지 못하던 심한 소리가 났다. 풀 깎던 기계를 던져버리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에 걸쳐 검진을 받았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나의 청각에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하였다.

미시간 주에서 유명하다는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아본 결과 전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듯 들려주었다. 난청의 원인으로는 질병(만성



중이염 등), 사고(고막파열 등), 유전, 소음 및 나이 등이 있다. 일단 질병과 사고로 생긴 난청은 만성중이염과 고막 파열음 등의 문제 때문인데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 유전과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은 약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기에 그냥 인생의 벚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들은 상세한 진단과 검사를 한 뒤에 나의 난청과 이명은 나이나 질병 및 사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와 무지에 의한 큰 소음 한방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 약한 귀와 지혜

약한 청각을 가진 나는 소음으로 평생 고생했으면서도 이때까지 청력보호기구를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하나같이 전문의와 청각의사들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소음성 난청을 알 만한 사람이 무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들 했다. 전문의와 한 번쯤 상의를 했거나, 풀 깎는 사람을 채용했거나 아니면 소음에 노출될 때 청력보호기구를 사용했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내 삶의 질은 기대 이상으로 여유롭고 좋았을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삶에 있어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건강한 청력의 소유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 집에서, 직장에서, 여행 중에, 운동할 때도, 특히 작업장

은 많은 기계와 장비, 차량으로 인해 소음치가 높고,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항상 청력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은 치명적으로 손상된다. 소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로 정의된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소음의 요인으로는 공장 기계, 총기, 자동차, 증폭된 음악, 광고방송 등 생활 주변에 널리 산재해 있다. 소음성 난청의 대상자로서 과거에는 공장의 기계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근자에는 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상업화와 사냥과 같은 레저산업의 발달로 큰 소음이 생활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까닭에 누구나 소음성 난청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활환경의 소음이 증가되었고,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인 소음성 난청이 산업화 사회에서 중요한 장애 중의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에게 발생하는 소음성 청력손실이 개인의 사회적 고립에서 많은 국가적 경제 부담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5번째로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라고 발표하고 있다. 또 하나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흔한 감각장애가 시력 문제였다면(안경, 콘택트렌즈, 라식수술 등으로 해결) 현재로서의 심각한 문제는 난청(청력손실)이다.

현재 미국의 난청인구는 3,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인구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난청 사례 3건 중 1건은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에는 일시적인 난청과 영구적 난청으로

나눌 수 있다. 일시적 난청은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데 청각 세포의 피로 현상으로서 회복에는 약 12~24시간 소요된다. 하지만 일시적 난청이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따른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발생과 진행 정도는 개인적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아직 없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법으로는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작업장 소음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따른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방법은 아직 없으므로 소음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개인용 청력보호기구를 사용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소음 노출 후 가급적 충분한 시간 동안 소음을 피하는 예방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될 뿐이다. 그리고 주기적인 청력검사로 소음성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해야 하며, 소음성난청에 대한 상담과 재활교육은 더 없이 필요하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음성난청 대처법은 '1) 커다란 소리나 소음을 피한다. 2) 혈압을 점검해 고혈압을 다스린다. 3) 염분의 섭취를 줄인다. 4) 커피나 콜라나 담배, 마리화나 등의 신경자극제를 피한다. 5) 적당한 운동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6)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 지혜와 의사전달 방법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기에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고, 사고, 관념, 감정요구, 경험 등을 수시로 교환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평범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까닭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의사전달이다. 의사전달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교육이나,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터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의사전달에는 '읽기, 듣기, 말하기 및 쓰기'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 정도를 이 네 가지 의사전달 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석기시대부터 지혜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유의 실체인 사람들은 이 4가지 의사전달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아이폰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보조기구가 출현하면서 우리들의 의사소통은 훨씬 간편하고 쉬워졌다. 나 또한 이 같은 보완, 대체의사 소통기구로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어쩌면 나는 시청각 보조기구의 혜택으로 80의 고령에도 풀타임교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순서로 의사전달 방법을 배운다. 사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이 순서로 의사전달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많은 비영어권

나라들이 국제어로 되어 있는 영어의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나는 영어를 배울 때, 의사전달 방법의 순서를 거꾸로 배워 미국유학 을 떠나 교수가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애로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나의 영어발음을 애써 콩글리시라고 변명하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쁜 편이다. 핑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영어발음이 나쁜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지리교사로부터 배웠고, 고1의 월반, 다른 대학 편입, 전과, 대학 3학년 때의 투병생활과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한 탓이기도 하다. 뒷날 대학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주로 읽기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단어 외우기에만 주력했기에 다른 3가지 의사전달 방법이 결코 좋을 수가 없었다.

학위과정이 끝나기 몇 년 전에 대학 강단에 설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의 영어발음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난생처음으로 내 영어발음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어학과의 도움으로 한국인들이 구별하기가 곤란한 r과 l, b와 v, g(j)와 z, 그리고 비교적 긴 단어의 악센트 등을 약 6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난 후에야 학생들의 불평이 점차로 줄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 학생들의 평가를 보면 '김 교수의 영어 발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좋지 못한 학점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학습도구로 사용하며 강의를 시작한 이후 이 같은 불평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보기술의 하나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사용하기로 한 지혜

로 내 나쁜 영어발음을 극복할 수 있었다.

혹여 어떤 사람들은 교사와 교수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회의, 각종 학술대회, 학생들의 발표 등에서 수년 동안 사용되어 온 단순한 학습보조기구인 파워포인트를 겨우 2012년에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지혜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첨단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이 급속히 등장했기에 파워포인트와 같은 비교적 쉬운 보완수단도 사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기실 나로서는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이었을뿐더러 이 같은 노력과 학습 변형이 나의 영어발음 때문에 고생하던 학생들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교육의 미래: 온라인 강의와 강의실 수업**

나이가 70세를 지나면서 소음성난청에 노인성난청까지 추가되면서 TV나 라디오, 그리고 소규모 회의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강의시간에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70여 세 무렵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강의시간에 간단한 학생들의 질문도 못 알아들어서 학생들의 불평이 생기면서 나는 교수생활에 점차로 회의를 느끼고 은퇴를 여러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시험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고통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래를 좌우할 성적 평가가 교수의 난청으로 나쁘게 나온다면 내 자신이 학생들에게 죄의식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고통을 안 동료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 사용해온 블랙보드(Blackboard)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온라인강의를 추천했지만, 정보기술의 초보지식밖에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학교의 정보기술학과에서는 이 교육 소프트웨어를 2005년에 구입하고 교직원들을 상대로 그 사용법을 그룹 및 개인지도할 수 없이 했지만, 나는 한 번도 그 같은 교수법연수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물론 학장이나 학생들한테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불평을 받았지만, 곧 은퇴할 터인데 구태여 그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애써가며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아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말았다.

나는 2013년 봄 학기 때까지 내가 온라인 시험을 보거나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험을 실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2013년 봄 학기에 3과목에서 50명의 학생에게 총 일곱 번의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게 했다. 시험은 클래스시험에서 1시간 반하던 것을 온라인 시험에서 2시간으로 했고 한 강의실에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치르던 것을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언제든지 2시간 동안 치르게 하였다. 온라인 시험에서 학생들의 시험성적도 향상되었고 불평하는 학생도 없었고 클래스시험을 요구한 학생도 없었다. 온라인 시험은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여 치를 필요도 없었고 집이든, 기숙사이건, 도서관이건 컴퓨터

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칠 수 있었으니 불평을 할 까닭이 없었다.

기실 나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학교에 출강할 필요도 없었고, 온라인시험은 자동으로 채점이 이루어 지기에 애써 시험문제 하나하나를 채점할 필요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시험 때마다 걱정했던 학생들의 질문 또한 받을 필요도 없게 되어 마치 마음 가벼웠다. 계산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총 350개 (50명x7)의 시험을 채점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고, 또 채점한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최소한 몇 명의 학생과는 시비해야 하는데 그런 고통도 없어졌다.

2013년 가을에 난생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온라인강의와 클래스강의의 절충안)으로 강의를 했다. 모든 것이 예상외로 잘 되어 클래스강의에서 오는 나의 난청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무척 좋았다. 온라인시험이나 강의도 그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의 부족으로 쓸데없는 고생을 너무 오랜 시간 겪은 것에는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 조국을 생각하면 열정이 생긴다

거대한 미국은 최고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기에 세계인은 하나같이 미국을 기회의 나라라고 일컫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인종이나 빈부귀천 등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미국은 기회를 찾아서 세계각처에서 이민을 온 다양한 인종들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흔히 미국을 용광로라고도 말한다. 단일민족의 국가들은 관계중심의 사회인 데 비해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은 거래중심의 사회여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이나 영원한 적도 없다. 그저 여러 가지가 신사협정이나 구두로 이루어지는 단일민족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모든 것을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열정 하나로 시작한 나의 북한연구

최근 내가 시작한 북한전문 학술 저널인 「North Korean Review」가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저널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영문 북한전문 학술저널로서, 지난 2005년 창간호를 발간했다. 세계 각처에서 발행되는 수많은 영어 학술저널이 있지만 왜 북한전문 저널이 없었을까?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북한전문 저널을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만 해도 이 저널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가적 개념으로의 북한은 규모도 작으며 모든 행태가 단조롭기 짝이 없으므로, 학문적 연구의 가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북한전문 학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후원자도 없었고 북한연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계 교수가 혼자 시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한 실력이나 재능 및 재산 등이 없었던 나는 언어와 풍속이 다른 미국에서 나와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바쁜 생활로 일관했다. 하지만 한 번도 심장에 한국인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잇은 적은 없다. 물론 바쁜 미국생활 중에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종종 나 자신을 괴롭혔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항상 한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나 사명감이 없었다. 그리고 세 아이의 공부 끝날 무렵이 되니 현직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말았다

나는 미국에서 술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재미교포 1세로

서의 정체성에 대해 늘 고민해 왔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물음은 거의 반세기 동안 분열과 갈등의 국가, 민족, 고향을 둘러싸고 내 의식의 주위를 맴돌았다. 지난 2001년 북한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체할 수 없이 가슴 뛰던 그 순간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은퇴를 포기하고, 처음으로 안식년을 신청했고, 많은 보수를 받고 편집을 맡고 있던 국제경영학저널도 내려놓았다.

이런 나의 행동에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많은 한-미 북한전문가들의 멸시도, 관련 연구소들의 비협조도 개의치 않고 오직 북한연구를 위한 일에 집중했다. 모금활동을 추진했고, 사재를 출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 결과에 염려하지 않고 북한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북한전문 영어저널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 같은 험난한 과정은 오히려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요약하면 나의 북한연구는 각오와 결의로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민기 교수가 얘기한 가두리 기법과 같다. 이 기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두리를 설치하자.”라는 말이다.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를 쓴 19세기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한때 유희에 빠져 오랜 시간 글을 쓰지 않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한다. 그는 글을 쓸 때면 하인에게 옷을 모두 벗어주고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다 한다.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우

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결심과 약속의 굴레가 필요하며 주변의 압박과 눈치가 조금은 있어야 한다.

2009년 10월 12일, 세계적인 경제정보제공 업체인 톰슨 로이터는 내가 창간한 이 북한저널을 명성이 높은 이 회사의 사회과학 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저널이 창간된 지 3년 만에 이곳에 등록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 미국의 맥팔랜드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이 저널의 편집자인 나는 국제금융론을 전공한 교수이기에 학문 분야로만 보자면 나는 북한전문가는 결코 아닌 셈이다. 게다가 나이도 많고 해서 이 저널의 편집을 2013년 1월 1일부로 연세대학교 김용호 교수에게 위임했다.

편집 인계과정에서 톰슨 로이터에서 이 저널을 그들의 사회과학 인용색인에서 철회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세계 최초의 영문 북한전문 학술저널이 SSCI 등재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것은 3년 만에 끝났다는 얘기다. 이 저널이 창간된 지 3년 만에 SSCI에 등재되고, 등재된 지 3년 만에 SSCI에서 빠지게 된 것을 알았을 때, 문득 삼일천하(三日天下)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이 말은 쿠데타 등의 수단이 성공 후 3일 만에 원상 복귀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제 연세대학교 김용호 교수의 노력으로 3년 후에 SSCI에 다시 등재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호 교수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 북한외교론」, 「외교안보정책과 언론」, 그리고 「세계화 시대 국제관계」 등의 저서와 많은 논문을 저명한

국내외의 저널에 발표한 유명한 학자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용호 박사는 2013년 1월부터 북한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또한 사법시험 외무고시 출제위원과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도 역임하고 있는 인물이다.

### 수난과 각광을 한꺼번에 받다

2002년부터 시작한 나의 북한연구는 저술활동, 세미나 개최, 저널편집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나의 북한 저서 세 권— [North Korea at a Crossroads: 2003], [Economic Sanctions against a Nuclear North Korea: 2007]와 [The Survival of North Korea: 2011]는 전부 맥팔랜드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물론 책 외에 북한에 대한 논문을 써서 저널에도 출판하고 학회에 발표도 하였다. 북한에 대한 무명작가가 쓴 첫 번째 북한 책 『North Korea at a Crossroads』는 2천여 권이나 팔렸다.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제8장에 미국이 북한과 경제 및 외교관계를 맺어야 할 8가지 이유, 즉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한 덕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이 책을 구상했을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기로 했는데 비교적 보수주의자로, 북한을 싫어했던 내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이렇게 비판한 책을 쓴 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때 나의 저서에서 주장한 미국이 북한과 경제 및 외교관계를 맺

어야 할 8가지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적대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성공한 적이 없다.
2. 미국은 기근을 외교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미국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장려해야 한다.
5. 북한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한 것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미국은 일관성 있는 대북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뿐이다.
8.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정책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세계문제에 있어서 다국 참여정책으로 전화해야 한다.

막상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비판과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비슷한 전화와 편지를 받았기에 스트레스가 심했고, 북한연구를 포기할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특히 미국정보원, 천주교단의 인권단체, 무슨 교수협회의 고문이라는 법대 교수,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번은 미 중앙정보국 직원이라는 사람이 내 사무실까지 와서 취조 비슷한 질문을 한 적도 있었다. 내가 학회에서 북한논문을 발표할 때는 정보원 같은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했다. 나는 우연히 이 저널의 초기 구독자들은 전부 미 정보기관, 사관학교 및 미국치안과 관계가 있는

도서관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과 워싱턴에 발생한 테러공격 이후 도청과 감시가 심해진 것을 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미 정보원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정책을 비난하던 것을 전부 중단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감청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전(前)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NSA가 도청하지 않은 나라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4개국뿐이었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폰까지 도청했다는데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나를 감시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국제제의 문제야로 통하는 북한에 대한 종합적 활동-저서, 저널 및 세미나-를 하는 바람에 나는 미국에서 비난과 동시에 각광을 받았다.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것으로 국제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주요일간 신문, 방송국 및 잡지사 등에서 나에게 기고, 강연 및 인터뷰 등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나는 거의 거절을 하였다. 단 말썬이 없을 것 같은 뉴스미디어에서 요청한 이메일 인터뷰와 강연만 몇 번 응했을 뿐이다.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과목도 하나도 없는 우리 학교에 와서 한국학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수없이 받았다. 단,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내가 아는 북한전문가들에게 부탁해서 돕도록 처리를 했다. 평생 경제와 재무관리를 공부한 내가 갑자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북한전문가로 둔갑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정보의 세계화 덕택이었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나의 북한 연구활동

어떤 북한전문가는 세계 북한전문가의 절반은 한국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국인이라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나의 전공이 재무관리이고 또 1998년 한미재무학회 회장을 했기에 재무관리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북한연구를 촉진시키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나 북한연구에 관심이 있는 재무관리 교수나 연구원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내가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미재무학회(Korea America Finance Association: KAFA)는 북미의 대학교와 여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재무 관련 분야의 한인 교수들의 연구, 교육 및 기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함과 아울러 한국 및 글로벌 재무 교육의 증진과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전문 단체다. 내가 회장에 당선되던 1997년에 학회사상 처음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하던 학회운동을 전산화했다. 이때 한국에는 외환위기가 시작되었고 또 학회 자체 자금도 없어서 내 자비로 학회 웹사이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무학회와 한미재무학회 공동학술대회도 내 자비로 참석했었다.

막상 내가 2006년에 한미경제학회(Korea America Economic Association: KAEA) 회장이 되면서 한국에서 나의 북한연구 활동은 점차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경제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 중에는 북한문제 특히 북한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꽤 많았



기 때문이다. 한미경제학회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1985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8월 서울에서 열린다. 2006년에는 이 국제학술대회가 8월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나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 겸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상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이 국제학술대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던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자부한다.

나는 2007년과 2008년에 한미경제학회, 서울대학 그리고 독일 한스 자이델 한국지부와 서울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주선했다. 이 북한 저널에 출판된 고려대 남성욱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와 이달곤 서울대 교수(전 행안부장관) 논문도 이때 발표한 논문이다. 개성공업관리 위원회의 주선으로 2008년 6월 5일에 나는 70여 명의 투자자 및 관광객들과 함께 비무장지대 너머의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때 수집한 자료와 경험은 나의 북한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08년 10월 14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도 다녀왔다. 세계지식포럼의 마지막 날인 10월 16일의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 세션은 내가 조직하고 연사로 참가한 세션이었다. 한편, 나는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경의 글로벌 포커스 난에 북한에 대한 6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한국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내 기억으로는 평생에 200명 이상의 청중 앞에서는 꼭 네 번에 걸쳐 강의했다. 그 첫 번째는 2003년 10월 17일 우리 학교에서 내가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뒤에 전 교직원 앞에서였다. 물론 이때 강의의 내용은 주로 대학 내의 구성원에 관한 것이었다. 나머지 세 번 강연의 주제는 한국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2007년 5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그리고 2008년 5월에는 북한대학원 객원연구원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할 기회를 얻었다. 이 연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여러 번 “한국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었던 연구의 주제였다. 이 제목으로 행한 첫째 강연은 앞에서 이미 얘기한 대로 2008년 10월 16일 매경의 세계지식 포럼 중 북한 세션에서 했다.

1995년부터 미시간 주립대 한국연구위원회에서는 매년 세계 각처에서 한국인들의 복지와 이종문화 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글로벌 한국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나는 2008년 10월 11일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 상을 수상했는데 물론 내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나의 북한연구 때문이었다.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3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약 30분간 수상수락 연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때도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숙명안보학연구소는 2011년 5월 29일에 대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숙명여

대 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망과 대비책’을 주제로 대북안보정책 세미나에는 서울에 있는 전 대학학군단 후보생들이 참석한 큰 행사였다. 다른 북한전문가들과 이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나는 물론 북핵문제만 해결된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 **왜, 북한은 동북아에 있어서 전략적인 존재인가?**

나는 “동북아 중심지 한반도” 또는 “북한: 미국과 동북아시아 관계의 와일드카드?”라는 주제로 미국에서는 10여 번 정도의 강의를 했다. 주로 이 강연 내용은 정보의 세계화로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효과를 얻었다. 이 내용이 북한에 관심이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식 정도밖에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재미교포나 미국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감명을 준 교육적인 논문이 되었다. 이 내용을 한국어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국제법 및 유엔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개량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의 종식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국에 대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반응은 매우 미미했다. 그들은 경고, 합동군사훈련, 제한된 경제제재와 군사력의 시위 등이 고작이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장관이었을 때 어느 한국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나무보다는 숲의 입장에서 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 보복보다는 왜 미온적으로 대응했느냐?” 는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변이었다.

북한 문제를 하나의 나무로 빗대어 보면 미국이 포격만으로 북한을 봉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강대국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전례를 한 번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북한은 이념이 다른 초강대국들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숲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 문제를 숲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1. 북한의 전략적 위치, 2.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 3.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과 협력, 4. 경제협력 등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북한의 전략적 위치란,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륙강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 대양강국인 일본 및 미국 간의 문화교류와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교두보는 파괴되었다.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은 이 지역의 안보, 에너지 및 경제문제 등의 이유로 이 교두보의 복구를 원하고 있다. 이 교두보가 복구된다면 한일 간의 해저터널 건설과 아시아횡단철도의 개발을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이 교두보가 연장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을 통과하는 육로가 개통된다면 도쿄와 런던을 기차뿐만 아니라 트럭 및 승용차 등으로 왕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분석가들은 한국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중동보다 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동북아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들, 단시일 내에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

들, 그리고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냉전 이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주 묘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최대 에너지 소비국에 속하는 중국, 일본 및 한국은 국내생산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에너지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대로 세계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막대한 양의 기름과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국들과 생산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서로 협력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의 평화적 해결이 그러한 협력을 위한 정치적 신뢰와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동북아국가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이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잠재성은 더욱 지대하기에 대결보다는 화해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풍부한 러시아의 자연자원, 중국의 자본과 노동력, 일본의 경영지식과 첨단기술 및 한국인들의 직업윤리 등 이처럼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역블록의 형성에 필요한 모든 생산요소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동북아 사이의 무역 및 투자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외채에 허덕이는 미국경제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국가들은 미국에 수출 없이는 경제위기와 사회혼란에 처할 것이고 미국도 동북아의 자본 없이는 인플레이가 증가하고 기업들의 이윤과 투자소득이 격감할 것이다.

북한이 생존을 위한 해법으로 1995년 국가의 정책을 주체에서 선군으로 바꾸고 외부의 경제원조에 의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1. 외국의 인도적 도움을 받았고, 2. 핵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그 우방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았으며, 3.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같은 경제특구를 설치했고, 4. 무기수출 및 위조지폐사용 등 불법이거나 수상한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했고, 5. 2002년부터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과 미국 및 그 우방 국가들의 경제제재와 감시가 더욱 심해져서 어느 하나 잘되어 가는 것이 없어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또다시 북한붕괴설이 나도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 만큼 도와줄 것이고 북한이 붕괴될 처지에 놓이면 중국이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는 게 국제적 시각이다. 그와 같은 연유로 미국과 동북아국가들은 자국의 안전, 에너지공급, 및 경제적 번영을 위해 북한문제에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양한 미국에서 이민 1세대이나 2세대의 성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 이유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단은, 그들에겐 조국이 한국이든 인도이건 또는 독일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큰 꿈을 가지고 기회의 땅 미국에 왔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물음은 국가, 민족, 고향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 평생 그들의 주위에 떠돌며 쉽게 답할 수 없는 물음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대립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기가 하는 일에 비범한 열정과 노력을 집중하게 하고 그 같은 행위와 적극성으로 성공의 문을 두드린다.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일에 열정을 갖게 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발동한다. 욕망은 단순히 쾌락이나 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지르게 하는 힘, 즉 모험심을 유발한다.’ 모험은 한 개인의 역사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된다. 모험은 우리가 불확실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미지의 세계에 대담하게 도전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모험의 어원이 라틴어의 “도착한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다.

## 네 가지 지능

성공적인 인간 관계론의 주자격인 스티븐 코비의 『8번째의 습관』에서도 ‘열정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람의 4가지 중요 부분-감정, 신체, 심장, 영혼-을 각기 다른 부분으로 보기 보다는 하나로 보고 있다. 그는 이 4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4가지 지능, 즉 비전(감정), 규율(신체), 열정(심장), 양심(영혼)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인간의 잠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네 가지의 지능 중에 그 제일은 열정이다. 감정, 신체, 영혼이 마비됐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장의 맥박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 마찬가지로 열정은 에너지, 욕망, 신념의 힘으로 비전실현을 위해 양심과 규율을 지속시키는 추진력이다. 때문에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얘기로 다시 언급하면 곧 열정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을 좋게 변화시킨 대다수 사람은 비전, 규율, 열정, 양심이라는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 이 사람들은 뚜렷한 비전을 가졌고, 그들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했으며,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을 추진했고, 양심을 중시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업적을 남긴 현대 간호학의 어머니 플로렌스 나이트िंग게일,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을 역임한 넬슨 만델라와 조선의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은 모두 이 4가지 지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긍정적 사고와 열정의 교훈

필연적으로 어떤 일에 불타는 욕망, 야망, 집중력을 폭발시킬 열정을 가지려면 ‘더불어 함께’라는 공동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단은 가족, 고향,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정을 항상 기억에 담아 두어야 한다. 그것이 공부든, 예술이든, 운동이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누군가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은 두근거리고 열정은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굳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회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혼자서 역사를 움직이는 가치 있는 일을 절대로 추구할 수 없을뿐더러 또 위대한 업적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저마다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서 자신의 처한 상황, 즉 자존감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혈연(血緣)을 소중히 여긴다. 까닭에 흔히 ‘누구의 자손이며, 어떤 도시의 시민이며, 어떤 국가의 일원인가?’ 등의 연고를 따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빛, 정신적 유산, 그리고 기대 등에 책임과 의무를 물려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내게 해롭지 않고 이로운 것은 이 역할로 맺어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고 이로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공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정체성의 원천인 공동체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눈빛은 놀랍게도 별처럼 빛난다. 자신의 꿈을 세울 때는 공동체의 꿈이라고 크게 생각하면 폭발물의 잠재력에 의해 정신세계에 혼불이 켜진다. 것처럼 불길이 뇌관에 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능력의 에너지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게 될 것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도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시상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의 국가 연주와 함께, '국가를 위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또 올림픽 결승 직전에도 조국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친다고 생각하니 한순간 놀랍게도 열정이 용솨음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었고, 마침내 우승했다.'라는 것이다.



## 대기만성

나는 어느덧 옛날 같으면 수십 년 전에 고려장을 당했을 나이에 도달했다. 고려장이란 늙은 부모를 산속의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으로 오늘날에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낫선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나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지만, 굳이 남에게 과시할 정도로 성공하지 못한 내가 내 삶의 문신처럼 지워버릴 수 없는 인생의 도정(道程)에서 막상 나의 대기만성을 논의하기란 다소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크게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수십 년 동안 가슴이 저리도록 품었던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은퇴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북한에 관한 저서도 세 권이나 출간했고 북한저널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업

적도 쌓았다. 사실은 내가 이룬 업적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연구이다. 한국식으로 내가 65세에 은퇴했다면 나의 북한연구는 전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92세까지 생존하면서 1만6천 개의 회화작품을 남긴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저는 저의 작품을 미완성이라고 여깁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지금까지 나는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온 데 대해서 후회하기에 앞서 허락된 길을 담담하게 걸으며 이름 모를 낯선 항구에 닿을 내릴 때까지 아직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 거북이와 토끼

김난도는 그의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처럼 주위로부터 너무 일찍 각광 받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하고 있다. 실로 위대한 천재는 대개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특출하게 남보다 조숙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명한 것은 일찍 출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일이란, 일찍 출세하면 오만하고 나태해져서 그 이상의 성공이 어렵고 결국은 빠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늦가을에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아름답고 화려하다.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서는 것은 일찍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에 제아무리 총명해도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창시절에 성적이 나쁘고 비교적 두뇌도 좋지 않았던 학생이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천적으로 재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설정한 삶의 좌표를 향해 전력을 기울여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발걸음이 느린 거북이라도 토끼와 같은 월등한 강자를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누구나 열정을 쏟아가며 노력을 한다면 다소 발전이 늦더라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출세는 늦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열쇠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끈기 있는 노력과 일관된 집념의 실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 대기만성의 유래

대기만성이란 한자성어는 오늘날에는 나이 들어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최영은 풍채가 좋은 유명한 장군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그의 사촌 동생인 최림은 그 기골이나 인품이 보잘것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별도 신통치 못해 최영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일가친척들까지도 최영을 대하는 것과는 판판으로 최림에 대해서는 늘 경멸했다. 하지만 사촌 형인 최영은 지혜롭게도 최림의 사람됨을 꿰뚫어보고 그렇게 볼품없이 보아 넘길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작은 그릇이나 좋은 금방 만들어진다. 그러나 큰 종이나 큰 솥은 그렇게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큰 인물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 너도 그와 같으니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여라. 그렇게만 한다면 넌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과연 최영의 말대로 최림은 훗날 천자를 보좌하는 삼공(三公)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천자를 보필하는 대임을 맡아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 대 정치가로 변신하였다.

특히 용서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로널드 레이건과 김대중 대통령의 공통점은 세 사람 모두 70세가 넘어서 자기 국가의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꾼 큰 정치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일상에서 위기를 맞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인동초(忍冬草)처럼 생리적으로 더욱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 세 정치가는 극기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아서도 더욱 그 자신의 집념을 강하게 실천하여 마침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하게 된 삶의 종결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장수의 비결

건강이란 단순히 허약하다거나 질병의 유무로서의 신체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여 정신적, 육체적 및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걸맞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유념하여 실천해야 할

필요한 요소는 1) 적당한 육체적 운동, 2) 원활한 호흡, 3) 균형 있는 영양섭취, 4) 정신적 이완, 5) 충분한 수분섭취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다섯 가지 모두가 조화로워질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면 나이가 많아도 희망의 불씨는 언제나 남아 있다. 따라서 대기만성의 첫 열쇠는 젊을 때부터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세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됐고 150세까지 장수를 누릴 첫 번째 인간이 이미 탄생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공식 출생증명서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오래 생존했던 사람은 1998년 122세로 사망한 프랑스의 여성인 잔 갈망이다. 그녀는 장수의 비결로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미소를 꼽았다. 하지만 병약한 상태로 자신의 육체를 가늠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며 100세를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2007년 10월 7일 소개한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10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적인 운동 : 일주일에 3회 규칙적으로 수영, 산책 등의 운동을 30분씩만 해도 수명을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2. 약간의 스트레스 : 약간의 스트레스는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을 자극할 뿐 아니라 활력을 주고 노화과정을 늦춘다.

3. 좋은 지역에서 살기 : 어느 곳에 사느냐도 장수에 중요하다. 일본 오키나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이 많아 장수촌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에 비해 영국 글래스고처럼 가난하고 오염된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54세에 불과하다.
4. 성공하기 : 재산과 기회가 많고 성공을 거두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더 오래 산다는 연구보고서들이 발표된 바 있다. 아카데미 상을 받은 배우들이 그렇지 못한 배우들보다 장수한다는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다.
5.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 :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성분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들은 노화과정을 지연시켜 장수에 도움이 된다.
6.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기 :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뇌가 자극을 받고, 활동을 하면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우울증부터 치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의 발병이 늦춰질 수 있다.
7. 생활을 즐기기 : 좋은 인간관계는 장수의 비결이다. 기혼남성은 평균 7년, 기혼여성은 평균 2년을 더 장수한다. 초콜릿, 포도주, 웃음도 좋은 장수 약이다.
8. 신 혹은 친구를 찾기 : 종교는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생전에 이미 보상을 해준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평균 7년 더 장수한다는 100여 편의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종교처럼 친구도 행복한 장수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9. 식사량 줄이기 : 섭취 열량을 10~60%쯤 줄이면 대사 작용과 해로운 활성산소의 생산을 낮춤으로써 수명을 늘릴 수 있다.



10. 정기적으로 건강 점검하기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100세를 살 수 있는 방법이다.

### 세 가지를 알면 행복해진다

헤민 스님은 오십 대가 된 어느 봄날, 다음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이다.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세상을 너무

어렵게 살지 않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 얘기한 헤민 스님의 말은 현재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 닿은 대기만성의 교훈으로 삼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꿈꾸는 사람은 서둘지 말고 멀리 보고 또 마지막을 보아야 한다. 작은 나무와 같이 빨리 성장하고 성취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거목처럼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꿈은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꿈을 가슴에 품고 젊은 날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기에 나이 때문에 결코 비굴하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사람들이 종종 “아,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어떤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늙어서”라는 변명이나 “나는 항상 이것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불과 40 내지 50밖에 안된 사람들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생산적이거나 또는 패배감에 연계된 주장을 듣게 될 때에 스스로없이 “당신, 지금 무슨 얘길 하는 거야?”라고 가벼운 핀잔을 주고 부추겨줄 최소한 따뜻한 감성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옮겨도 처음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남을 돕고 또 나의 집념을 빛 되게 하기엔 너무 늦은 경우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심지어 당신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을 상실하지 말

아야 한다. 우리는 일찍 시작하는 사람만이 보람있는 일을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록 우리가 지금 어떤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자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능력, 재능, 또는 꿈의 유효기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을 때에도 자신감을 지니고 당당하여야 한다. 물론 매사에 일찍 시작하고 출발하면 연습할 시간도 많고 빨리 일을 마치거나 목적지에 일찍 도착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뭔가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 성공의 유일한 조건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분야에서 목적을 이루는 데 나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나이에서 오는 좋은 경험은 종종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재능 이상의 재산이기에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아직도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특정 연령 후에 포기하는 것은 고귀한 삶에 있어 때로는 수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누구나 건강에 유념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몸소 실천한다면 성공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2. 확신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3.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삶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5.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6.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한다. 7. 좋은 습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신념만을 지니고 있다면 나이 탓을 할 필요가 결코 없을 것이다.

## 영원한 희망과 행복을 가지려면 꿈 너머 꿈을 가져라

후회 없는 삶: 어느 95세 노인의 일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가 되던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텅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살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 때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도원은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너머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라고 그의 저서 [꿈 너머 꿈]에서 말했다. 사실 내 인생을 결정한 교수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모든 환경으로 보아 불가능한 꿈이

었지만 나는 무척 행복했다. 그리고 나의 북한연구는 나의 정체성 문
 제로 생긴 텅 빈 가슴을 메우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것은 결국 나에게
 꿈 너머 꿈이 된 셈이다. 고도원의 말대로 꿈 너머 꿈이 있어서 내가
 위대해졌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그 가능성은 부인하고 싶지 않다. 오
 갈 데 없는 집 없는 사람에서부터 성공한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누구
 에게나 꿈은 있기 마련이다. 집 없는 사람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
 하는 것이 꿈일 것이고 야심 있는 정치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일
 것이다. 다시 말해 언제나 누구에게나 꿈은 있을 수 있고 꿈이 있으
 면 행복해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의욕이 생길 것
 이다. 위대한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는 사회와 조직의 역사를 “성공만
 큼 큰 실패는 없다.”라는 말로 잘 표현했다. 성공은 도전을 내는 것이
 지만 성공 다음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낡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꿈 너머 꿈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한 새로운 방식으로 대
 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꿈 너머 꿈은 어떤 의미에서 비전과 같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큰 흔적을 남기고 가려면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
 해 노력하겠다는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자신의 욕심이나 명성을 이루기 위해 높은 목표를 세
 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말이다.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
 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라고 한다. 비전은 꿈
 이나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
 인 것이다. 목표와 비전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

문을 해보는 것이다.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끝난다. 그러나 비전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준다. 많은 사람이 목표만 있고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목표만 달성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만다. 따라서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도원의 말대로 위대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인생 80에 절망하는 사람에겐 끝장이지만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겐 출발일 수도 있다. “인생은 80부터”라고 하지 않던가? 내 나이가 80을 넘으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년인사에 꼭 포함되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두 단어가 내 머리를 스쳐 갔다. 그렇다.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도 마음 먹기에 따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복된 한해를 기대할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희망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씨앗이다. 요점은 희망과 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만족한 삶보다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희망은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희망〉

나의 희망,  
어두운 땅속에 묻히면  
황금이 되어  
불같은 손을 기다리고,  
너의 희망,  
깜깜한 하늘에 갇히면  
별이 되어  
먼 언덕 위에서 빛난다.  
너의 희망,  
아득한 바다에 뜨면  
수평선의 기적이 되어  
먼 나라를 저어 가고,  
너의 희망,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의 사랑으로 맞아  
뜨거운 입술이 된다.  
빵 없는 땅에서도 배고프지 않은,  
물 없는 바다에서도  
목마르지 않은  
우리의 희망!  
온 세상에 불이 꺼져 캄캄할 때에도,

내가 찾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 끝으로  
희망에서 불을 붙여 온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때에도  
우리의 무덤마저 빼앗을 때에도  
우릴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희망!  
우리에게 한 번 주어 버린 것을  
오오, 우리의 신(神)도 누우치고 있을  
너와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김현승 시-

〈내가 아는 행복의 열쇠〉

행복은 아름답다.  
밤기차를 타고 가다 만나는 새벽처럼,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저녁노을처럼,  
젖을 문 채 포만감에 만족하며 잠든 아이처럼 아름답다.  
행복은 향기롭다.  
여름밤 열어놓은 창문 가로 스며드는 자스민 향기처럼,  
아무도 걷지 않은 숲 속에 숨겨진 소나무 향내처럼,  
이른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블랙커피처럼 향기롭다.



행복은 넉넉하다.

기름진 하얀 햅쌀 밥 위에 척척 얹어 먹는 김장 김치처럼,

가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처럼,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언제나 넉넉하다.

그래서인가? 행복한 사람은 자유롭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행복한 사람은 호기심에 가득 차 신비를 찾은 아이의 눈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생동감이 넘친다.

행복한 사람은 선택할 줄을 안다.

인생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며 자부심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그래서인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여유가 있다.

규칙적이면서도 모험적인, 성숙하면서도 아이 같은 독특한 자아를 가진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은 더욱 창조적이 되며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도 달다.

그래서인가,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정말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불행하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나 행복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지혜롭다.

그들은 행복의 시작이 '자신'임을 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함을 깨달은 그들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다.

기술을 연마하듯 거듭 연습하면서

노력하는 자에게만 행복의 문은

열리는 것이며

행복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행복한 사람은

그 자신이 알며 행복의 열쇠를 진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좋은 글 중에서-

제4장

지금은 남의 땅: 떠나온 고향으로 가고파

나는 1977년부터 디트로이트 대학(지금은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재직하고 있다. 내가 이 대학에 재직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이 대학은 나 같은 전공과 경력을 갖춘 교수가 필요했고, 또 이 대학은 내가 기대하는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있는 큰 도시의 대학으로 옮기고 싶었던 것도, 작은 도시의 대학에서 이 대학으로 옮긴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물론 내가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이 필요로 하는 교수가 되기 위해 지난 40년간 계속 노력했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할 각오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현실에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앞서 가지 못한다면 냉정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까닭에 나는 우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미국교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한인교회

내가 미시간에 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한인교회였다. 나는 미국에 와서 학업은 한인들이 비교적 많은 로스앤젤레스와 세인트루이스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립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고사하고 소수민족이 전혀 없었던 캔자스 주 농촌도시에서 2년 남짓 거처하면서 조금 정신적 여유가 생기게 되자 나도 모르게 점차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물론 외국에서 그 지역 한인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교회를 찾는 것이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지름길이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1977년 7월 미시간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하나가 한인교회를 찾는 일이었다. 그 당시 디트로이트 대학의 경영대학장은 릭 이토라는 일본사람이었고, 다행스럽게도 그의 부인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토 학장부인이 대학에서 거리가 가깝고 또 담임목사가 연세대 교목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바람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택했고 지금까지 줄곧 적을 두고 있다.

이 교회의 김득렬 담임목사는 그해 9월 개학 전에 우리 집을 일차 방문했고, 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은사인 박기혁 교수와도 잘 아는 사이여서 짧은 시간에 가깝게 친교를 맺게 되었다. 김 목사는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0년 동안 이 교회에 시무를 했고, 1993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 이후 본교회의 담임목사로는 최인순(은퇴), 박원호(서울에서 예배당 없는 교회목사로 시무 중)를 거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유승원 목사가 은혜 중에 시무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는 1967년 5월 28일, 한 미국교회의 지하실에서 목회자 한 분과 몇 명의 한인들이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창립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넓은 예배당과 친교실 뿐만 아니라 교육관과 체육관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립하였으며, 1년 예산만도 200만 달러나 되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 한인 2세들을 위한 영어예배와 한인 1세들을 위한 한국말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을 합치면 1,000여 명에 달한다.

지금은 한국에서 미시간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 미시간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배에 한 번씩 참석하는 명소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 왜 한인교회가 필요했던가?

나는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공부도 끝내고 비교적 한국인이 많은 미시간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기에 다소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미국에 거주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자연스러운 교제도 했고 또 교회에도 규칙적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나의 아들 3명 중에 첫째는 한국인 강릉에서, 둘째는 미주리에서 그리고 셋째는 미시간에서 각기 출생하였다. 당시 생활에 여유가 없었던 나는 단순히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다.'는 우리네의 속담처럼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현실은 결코 그게 아니었다. 이증문 화권 속에서 혼동할 수 있는 자녀의 교육은 학교나 가정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세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매주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교인의 직분인 집사나 장로를 할 생각도 없었고 또 뜨거운 신앙을 가져 본 적도 없는 내가 한인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정직하고 선량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단적으로 선량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과 가정교육도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뿐이다.

이와 같은 교회 교육과 가정교육은 교회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행하여지는 자연 발생적인 교육이다. 교회와 가정교육은 신앙과 정체성 외에 예의범절, 정서, 품위, 도덕 등 인격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은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강조하는 기능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육체적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을 생각할 때,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기능적인 면만을 기대하지 말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바람직하게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주 교회에 가서 한글과 성경을 배웠고, 또 한국친구들과 폭넓은 교제도 할 수 있었기에 더욱 착하고 성실한 재미한인 2세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의 교회봉사활동

나는 1977년부터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교회봉사는 정우현 목사가 초대교육 담임 부목사로 취임한 1979년 초부터다. 나와 정 목사는 같은 연세대 동문이었고 내가 교수인 까닭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필요한 관계에 있었기에, 교회의 교육봉사에 자연스럽게 뜻을 함께하게 되었다. 정 목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한국문화학교 설립, 청년회 조직 및 장학회 설립 등이었다. 정 목사의 권고로 장학회 위원으로 몇 년간 열심히 봉



사했다.

김득렬 원로목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기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 수가 500명이었고 그중 200명은 청소년들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교회에 청년회라는 조직이 없었다. 정 목사는 주로 대학생들을 모아 청년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일단 회장을 선출하고, 나를 비롯한 몇몇 교우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청년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청년부의 모임이 있을 때 나와 정 목사 그리고 회장만 참석하는 정도에 그쳐 청년부 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정 목사가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청년부 활동에 진전이 없어서 당회에서 장로부인들이 청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면서 청년부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몇 년간 자문위원으로 청년부 활동에 참여했지만, 나 자신이 신앙생활에 소극적이었고, 성경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년회가 잘 되어가는 바람에 청년부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그 당시 청년부의 핵심 멤버였던 김기모는 내가 청년부 자문위원을 사퇴한 것이 못내 섭섭하다고 했던 것을 가끔 기억에 떠올리기도 한다. 신앙심이 투철하고 동정심이 강한 그는, 한때 경영학석사를 공부하던 것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나와서 수십 년 동안 디트로이트와 인근의 불우한 흑인들을 돕기에 헌신하고 있다. 그의 이 같은 헌신적인 나눔과 베품의 실천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았고, 2012년 12월에는 데이브 덩 디트로이트 시장으로부터, 불우한 이웃돕기에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로운 “George Irwin Award”를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문화학교가 설립된 1980년부터 몇 년 동안은 거의 매주일 한글과 한 학기 몇 번만 있는 한국역사를 가르쳤다. 그 당시에는 한글수업과 예배가 겹쳐서 둘 중의 하나만 할 수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한글교사는 몇 년 하다가 그만두었다. 한국문화와 역사는 계속 가르친 덕택으로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주 한국학교 협의회 연례회의 때 25년 근속상을 받고 한글학교도 그만두었다.



## 한인사회 봉사

미 증서부에서 한인 수가 둘째로 많은 미시간 주에는 3만여 명의 재미동포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미시간에는 한인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식품점 및 여행사 등 다양한 업소들이 있다. 이들 한인 단체 중에서 태극 마을, 세종학교, 한미장학재단과 남 한국학연구소를 여기에 소개해 본다. 내가 이 네 기관에 봉사했다기보다는 설립 초기에 아주 조금은 참여했기에 이 단체들을 간략하게라도 소개하기로 한다.

## 태극 마을

1989년 1월 31일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Development)의 지원금으로 비영리단체인 한미주택공사 '태극 마을'이 설립되었다. 태극 마을 입주자격은 62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HUD의 실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수입의 30%만 입주자 부담이고 부족한 금액 70%는 HUD에서 보조한다. 80여 명의 한인 연장자들과 10여 명의 미국인 연장자들이 거주하는 태극 마을의 뒤뜰에 넓은 채소밭이 있고, 휴게실과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24시간 한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도 있다. 태극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매월 특강, 매주 전문의 내진, 24시간 경비, 태극 마을 전용버스와 각 교회 버스운영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태극 마을은 미시간 한인사회 봉사회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1981년 나를 비롯한 김흥기와 이선익 등 몇 사람이 한인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한인봉사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1989년 태극 마을이 설립되면서 봉사회 창립위원들이 대부분 한미주택공사로 옮겨가는 바람에 봉사회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참여율이 저조해지면서 약 10년간 활동을 멈추었던 봉사회는 2010년 3월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들이 많다는 판단 하에 재정비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1981년 봉사회가 발족한 이후 약 5, 6년 동안은 사무실과 직원까지 두고 미시간 한인들이 필요한 영어번역과 통역, 직장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 당시 봉사회 회장이던 김흥기의 요청으로 나는 100여 페이지나 되는 미시간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학습 가이드를 한

국말로 번역하였다. 그는 이 한국말 학습 가이드를 타자로 치고 복사해서 필요한 미시간에 있는 한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봉사회의 주관으로 태극 마을을 설립했다고 하나 사실은 김흥기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인 연장자 아파트가 시카고에 있는 것을 안 그는 미시간에도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태극 마을이 마침내 설립되었다. 그는 시카고에도 여러 번 자비로 다녀왔고 미시간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모금파티에도 여러 번 참석했다. 김흥기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출신으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를 하였고 비교적 과묵한 심성으로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서 사람인데 아깝게도 2000년 후반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였다. 비록 그는 소천하여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의 열정으로 세워진 태극 마을은 영원히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보금자리고 남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김진상 목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태극 마을은 아파트 전문 관리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3명의 풀타임 직원이 매일 수고하고 있다. 한국에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태극 마을과 같은 주택이 있는 도시에 정착해보기를 권한다. 부모님께서 이런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생활비, 건강 및 교통문제 등을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한인교회나 사회단체의 봉사원들이 이런 곳에 거주하는 한인 연장자들을 자기 부모님 같이 섬긴다는 사실도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다.

## 세종학교

1972년에 개교한 세종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학교 중의 하나이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 학교는 유아반에서 성인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계속되며 학생들은 한국어와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무용과 태권도 등도 배우고 있다. 미시간의 한국학교 협의회에 속하는 20여 개 한국학교 대부분은 한인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한인교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한국학교에서 학생들은 주일에 한 시간 씩만 수업을 하고 또 주일학교 등 여러 가지 다른 활동과 겹치는 까닭에 한글 학습효과가 비교적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매주 3시간 반 동안 한글교육만 하는 세종학교는 대다수 이 지역의 한인 동포 자녀와 한국 입양아인 아동들에게 Korean-American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종학교는 1982년부터 SAT(Scholastic Aptitude Test)반을 신설했다. SAT는 비영리 시험전문회사인 College Board가 주관하는 미국대학의 입학 시에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매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SAT 시험을 치른다. SAT에는 논리적 시험과 과목별 시험이 있으며, 과목별 시험 중 언어분야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과 함께 다행히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세종학교의 SAT반은 언어분야에서 한국어를 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신설된 반이다.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한글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바로 이 세종학교에서 장남인 캔도 공부하였으며,

나는 한국역사를 가르쳤다. 그러나 캔이 이 학교에서 두 학기만 하고 학업을 그만둔 이유는, 일주일에 하루는 숙제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해야 한다는 그의 끈질기고도 확고한 주장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나도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 그때 내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서 세종학교에 계속 보내지 못한 것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뼈저리게 후회했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세 아이 모두를 세종학교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가 대학에 다닐 때 ‘연세대학교 국제하계대학에 보내 달라.’고 여러 번 졸랐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고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 너무도 후회가 된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었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그들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를 해보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 한미장학재단

한미장학재단은 1969년 재미동포 유지들이 워싱턴에서 창설한 순수한 민간 재단이다. 이 재단은 미주 전역에 7개 지부(애틀랜타, 시카고, 디트로이트,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재단은 미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한인의 혈통을 지닌 학생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 재단은 현재 약 400만 달러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

다. 그동안 250여만 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이미 지급했고 지금도 매년 250여 명에게 40여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장학재단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전국적으로 '1천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월에 발족한 중동부 지역의 본부는 디트로이트에 있지만, 미시간, 오하이오와 인디애나 주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동부 지부는 미국의 7개 지부 중에서 제일 작지만 매년 약 10여 명에게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는 설립 초기부터 중동부 지역의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작은 역할을 즐겁게 담당하며 장학생 선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나는 2014년 가을 한미장학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고 나이 등을 고려하여 중동부 장학위원회 이사를 사퇴했다.

장학생들을 선정할 때는 최소한 몇 명은 미국가정에 입양된 한국계 학생들이 받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재미동포 학생들이나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온 유학생들은 거의 본인만 참석하지만, 미국가정에 입양된 학생들은 대부분 양부모와 함께 참석한다. 나는 식사 시간에 가끔은 양부모들에 '1천 달러의 장학금이 적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1천 달러의 장학금도 너무 감사하다.'며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종종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도 한다.



## 미시간 대학교 남한국학연구소

1997년 시작된 미시간 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2007년에 한국학연구소로 승격되었다. 다시 이 연구소는 2010년 6월에는 후원자 중 한 인사인 남상용의 이름을 따서 남 한국학연구소로 개명되었다. 미국에서 큰 대학이나 저명한 대학은 대부분 한국학 프로그램이나 연구소가 있지만, 한 개인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연구소는 위에 언급한 남한국학연구소뿐이다. 특히 건축학을 전공한 남상용은 원래의 꿈은 대학의 교수였다. 그러나 미시간 대학교에 한국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을 아쉬워한 그는 원래의 꿈인 교수를 접고 미시간 한국학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그는 미시간 대학 부근에 주택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몇만 달러씩 모일 때마다 미시간 대학교에 기증하였다. 그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미시간 대학에 한국학 연구를 위해 기부한 총금액은 놀랍게도 4백만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한국학연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지닌 남상용은 1934년 한국에서 출생했고 1964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으며 2011년에 위암으로 운명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와 미시간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한국의 중앙대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 대학에 한국학이 설립되기 전부터 나는 남상용과 다소 안면이 있었고 또 한국학 관련 행사에서 가끔 만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미시간 대학에 한국학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결성한 ‘미시간 대학 한국학설립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 위원회는 몇 번 만

나고 모금활동도 했지만, 미시간 대학에서 한국학설립의 조건으로 요구한 금액을 모금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저절로 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 후에 나는 그와 골프를 치거나 어떤 행사에서 만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고 점차 그의 매력에 끌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검소하고 열정적이며 또 가장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비록 그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세운 미시간 대학교의 남한국학연구소는 그의 유산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 고마운 사람과 필요한 사람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세 번을 다른 도시나 주로 이사를 하고 1977년에 미시간에 정착한 뒤에 지금까지 같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미시간에 산 셈이다. 나는 이곳에 오던 달부터 미시간에 한국교회로는 제일 큰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를 가졌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자 된다는 말처럼 내가 이곳에서 만난 모든 한국인들은 다 애국자들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만남은 '스승과 책과 친구'라고 하는데 내 기억 속에는 고마운 사람도 많고 또 필요한 사람도 많다. 그중에 내 삶에서 소중한 두 명의 지인을 여기에서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미시간에 있는 나와 가까운 많은 재미동포 중에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북한연구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증오하는 북한에 대한 연구는 나와 내 가족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들이다. 내가 북한연구를 시작했을 때처럼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다. 도움을 준 사람 가운데 인정상 마지못해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 두 사람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나에 대한 그들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우정과 내가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부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섭섭하게 했을 때나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들은 항상 나를 변함없이 좋은 친구로 대해주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중한 인연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일시적이고 이 해득실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변치 않는 우정이 있다면 정말로 하늘의 존귀한 별처럼 지극히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 박태수 정신과의사

한국에서 가톨릭 의과대학을 나온 박태수는 1978에 디트로이트에 와서 한때는 웨인주립대학 의대 강사도 했고 디트로이트 부근에서 정신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 의료선교회 창립위원을 한 사람으로 북한과 또 학문에 관심이 많은 의사이기 때문에 나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이 교류하게 되었다. 그는 내가 2002년 북한연구를 시작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다. 그의 미국에 관한 저서에는 나의 논문이 있고 또 나의 북한 저서에는 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내가 미국에서 조직한 북한세미나에 두 번이나 자비로 참석해서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인 그는 미시간 교민을 위해 건강세미나도 여러 번 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의하는 편안한 친구이다.

원래 기독교 의료선교회는 1989년 디트로이트 인근의 한국 의사들이 북한을 비롯한 제3 세계에 의료지원을 위해서 설립했다. 1991년 의료선교회는 평양에 있는 제3 병원이라고 하는 신식 병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의료기구와 약품 등을 전달했다. 초기에는 미 전역에 14개의 지부를 두고 매년 여러 명의 재미 한인의사들이 제3 병원을 방문해서 그곳의 의사들과 간담회도 하고 시범수술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 활동이 점차 쇠퇴해서 지금은 그 활동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

## 송희철 의사

의사인 송희철은 한 마디로 지극히 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송희철 같은 인물을 두고 일컫는 말 같다. 내가 보기에 그는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된 후 모든 평신도들에게 따듯하고 밝은 미소로 제일 인사를 잘하는 장로인 것 같다. 송희철은 의사이면서도 남이 싫어할 수도 있는 봉사회와 건물시설위원회 같은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주로 봉사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블루칼라 신분의 장로이다. 그의 말 없는 봉사는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시간 한인봉사회 회장과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디트로이트 지역의 도시빈민들과 이동농민을 위한 건강검진 사역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나만의 판단일지 모르나 상대적으로 미시간에서 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송희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집필한 북한 저서인 『North Korea at a Crossroads』라는 책을 제일 먼저 여러 권 사준 사람도 바로 송희철이다. 그는 내가 건강문제가 있을 때 부담 없이 수시로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내가 1997년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부탁으로 다섯 번 남짓 특강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중에서 내가 2007년에 발생한 미국의 대 경기후퇴와 미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에 대한 특강은 그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지극히 선한 심성과 맑은 영혼의 소유자인 나의 소중한 친구인 송희철은 봉사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천성적인 의사임에 틀림이 없다.

## 고마운 사람과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고마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소중한고 때로는 필요한 인맥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지속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고마움보다는 때로는 서로에 대한 '필요'이다.

누구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단체에서 꼭 필요한 구성원 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남들이 가는 길만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지극히 쉬운 일만 하고, 생색을 내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특히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며 잔머리나 굴리는 기회주의자보다 더욱 나쁜 사람은 남을 비방하거나 음모하고, 속이고 이용하거나 아부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부정적인 의식으로 불평을 일삼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억에 담아둘 하나의 교시적 일깨움은 1995년 미스 아메리카에 선정된 청각장애인인 미국 앨라배마 주 버밍햄의 헤더 와이스톤의 눈물겨운 수상 소감일 것이다. 헤더 와이스톤은 어릴 때 앓은 병으로 인해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왼쪽 귀도 5%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자기 이름을 말하기까지 꼬박 6년이 걸렸으며, 왼쪽 귀에 보청기를 끼고도 음의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했으나, 다행히 리듬은 감지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다.

그녀는 한때 장애에 대한 좌절과 분노로 모친에게 몇 번이고 반복

해서 이렇게 묻기도 하였다.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귀머거리가 되어야 해?” 그럴 때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의 모친은 딸 헤더를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서 그녀의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1994년 9월의 어느 날 밤, 헤더와 이스톤은 기적처럼 1995년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을 쓰게 되었다. 그 때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녀의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헤더 와이스톤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힘써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외쳤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부정적 사고로 화해나 화평을 불사르고 파괴하는 패배주의에 발목을 잡힌 불행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름지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도 내가 설 곳은 좁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공간이라도 내가 서게 되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일이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실력으로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주어진 업무는 절대적이지만 그 못지않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녀야 한다.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며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저절로 필요한 사람이 된다. 능력 있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은 단체에서 스스로를 인정받게 되고, 필요로 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중요하다.

한 헤드헌터의 인재선택기준은 외모와 능력 그리고 태도(인성)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효한 선택은 태도였다.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 몸담은 공동체나 조직에서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뇌하고 끊임없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일이다. 이처럼 공동체에서 서서히 인정받고 절실하게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 1)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
- 2)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
- 3) 창의력과 판단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 4) 언행이 일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 5)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
- 6) 솔선수범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 7) 불평불만 없이 업무에 충실한 사람,
- 8) 지각, 결근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
- 9) 소신껏 일하고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
- 10) 적극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은 남의 땅: 떠나온 고향으로 가고파

금의환향하겠다고 나 자신에게 굳은 약속을 하고 고향 반곡리를 떠난 지도 덧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어느덧 60년이 흘러갔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고향은 바로 그리움이다. 나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은 흙으로 떠나갔고 살아있는 세대들은 고향을 등지고 멀리 큰 도시나 혹은 가깝지만, 농촌이 아닌 도시로 떠나갔다. 몇십 년 오롯이 이마 맞대고 우리 가족들이 한 고향에 붙박여 대를 이어 살아가던 삶은 영원히 과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반곡리는 내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립다.

내가 미국을 오던 1969년만 해도 한국은 몹시 가난한 나라였다. 나는 김포공항을 떠날 때 미국에서 선진 경영지식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몇 번이나 굳게 다짐을 하

였다.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어느덧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되었다. “동방의 등불”은 1929년 인도시인 타고르가 한국인에게 보낸 송시의 제목이다.

유럽에서 온 미국의 이민 1세대들 중에 적잖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조국에 돌아가 정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몇 년 전까지도 은퇴하고 한국에 가서 내 여생을 보내거나 아니면 매년 한국에서 몇 개월씩 지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2013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 일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내 조국 대한민국도 나에게서 영원히 남의 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내가 태어나서 33년간 살았던 조국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

〈가고파〉의 바다는 이은상이 태어나고 살았던 마산 앞바다 합포만으로, 이 시는 1932년 그가 이화여전 교수로 재직할 때 쓰였다고 한다. 이 시는 나에게 평화로운 고향 “반곡리”와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시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테 얼려 옛날같이 살고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